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 STRATEGY FOR REVITALIZING SUNDAY SCHOOL MINISTRY THROUGH TRAINING SUNDAY SCHOOL TEACH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HAMDOEN CHURCH

written by

DUCK YOUNG KIM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Do Il Kim


Seungkeun John Choi


Jin Ki Hwang

August 31, 2015

**A STRATEGY FOR REVITALIZING SUNDAY
SCHOOL MINISTRY THROUGH TRAINING SUNDAY
SCHOOL TEACH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HAMDOE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DUCK YOUNG KIM

AUGUST 2015

교사교육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
- 참된교회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도일 교수

김덕영

2015년 8월

Abstract

A Strategy for Revitalizing Sunday School Ministry through Training Sunday School Teach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hamdoen Church

Duck Young Kim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Korean church's Sunday school ministry is in crisis, and therefore, it is urgent for the Korean church to revitalize its Sunday school ministry, by training good teachers. The purpose of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present a strategy for revitalizing Sunday school ministry through training Sunday school teachers.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even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ory chapter, which presents the questions, purpose, and methodologies of this study, chapter 2 describes the history of Sunday school ministry in the Korean church. It then discusses the most serious challenge of decreasing numbers of students in the Korean church's Sunday school ministry and analyzes reasons for the decrease.

Chapter 3 discusses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culture, especially regarding educational matters. This chapter then insists that the virtues of authority, relationship, love, spirituality, listening, and empathy are crucial for teaching children and youth today. And chapter 4 deals with a strategy for revitalizing Sunday School ministry through training Sunday School teachers for intergenerational religious education.

Chapter 5 describes the history and pastoral philosophy of the Chamdoen Church and examines the church's Sunday school ministry. Chapter 6 then presents a survey of the Chamdoen Church's Sunday school teachers and analyze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lso, this chapter takes this analysis and presents a

strategy for revitalizing the Chamdoen Church's Sunday school ministry through training teachers. The strategy establishes programs that help teachers understand their students according to their stage of life, both pastorally and educationally, and uses practical curriculum. Chapter 7 concludes this ministry focus paper by summarizing the study.

Theological Mentors: Do Il Kim, Ed. D

Seungkeun John Choi, Ph. D.

Jin Ki Hwang, Ph. D.

감사의 글

어린 시절 교회에서 철없이 뛰놀았던 때가 생각납니다.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서 손꼽아 기다리고, 교회에 가면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수다도 떨고, 때로는 미숙한 기타 코드를 잡고 찬양을 부르며 즐기워했던 그 때가 생각나서 웬지 눈물이 핑 돌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돌아보셨음이 생각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돌아보니 부족한 종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좋은 목회자와 선생님들, 믿음의 선배들,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때 받았던 가슴 깊은 사랑으로 인해 20년 가까이 교육목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대학원 논문지도와 더불어 목회학 박사논문지도까지 사랑과 신뢰로 지도해 주신 김도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태석 목사님의 배려와 격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로 동역해 주신 이인순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참된교회 장창진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인격적으로 신뢰해 주시고 목회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지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된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참된교회라는 목회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참된교회에 부름 받아 함께 섬기는 부목사님들과 교육부·청년부 동역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눈물의 기도로 부족함 없이 키워주신 아버지 김진만 집사님, 어머니 서순자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 가족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평생 멘토가 되어 주시는 장인어른 이일량 원로목사님과 김정자 사모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언제나 묵묵히 사랑과 격려로 목회적 내조를 아끼지 않는 나의 돕는 배필 이신영 사모와 언제나 아빠를 응원해주는 유향이와 선목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5년 8월 김택영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동기	1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3
제 3 절 실행연구	4
제 2 장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역사	9
제 1 절 한국교회 교회학교 역사의 시대구분	9
1. 제1기(1885-1919): 개신교의 수용과 민족교육, 신앙교육의 형성기	10
2. 제2기(1919-1945): 민족교육의 쇠퇴와 신앙교육중심의 시기	10
3. 제3기(1945-1970): 다양한 커리큘럼 도입 및 기독교교육학의 학문적 개척기	11
4. 제4기(1970-2000) : 교회학교의 양적성장 및 학문적 정립기	12
제 2 절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현주소(1995-현재)	13
1. 연령대별 인구수 추이	13
2. 교회학교 학생 수 추이 및 분석	15
3. 교회학교 학생 수, 교사 수 비교 및 감소원인 분석	22
제 3 장 현 세대의 트렌드, 미래시대 이해 및 특징	28
제 1 절 현 세대의 트렌드와 미래교육의 키워드	29
1. 현 세대가 살아갈 미래시대의 트렌드	29
2. 미래교육의 키워드	30
3. 현 시대의 특징	34
가. 문화시대	34
나. 포스트모던시대	36
다. SNS 시대	37
제 2 절 현 세대를 위한 교육방안	39

1. 권위 있는 가르침	39
2. 관계로의 가르침	41
3. 사랑으로의 가르침	43
4. 영성으로의 가르침	45
5. 공감과 경청으로의 가르침	46
제 4 장 간 세대 교사교육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	48
제 1 절 간 세대 기독교교육의 필요성	48
1. 간 세대의 정의와 목적	49
2. 간 세대 기독교교육의 필요성	51
가. 상호적 영향을 주고받는 신앙공동체의 형성	51
나. 가정의 적극적 동참	52
다. 작은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교육모델	52
제 2 절 간 세대 기독교교육의 형태 및 실제	53
1. 간 세대 기독교교육의 여러 형태	53
2. 간 세대 기독교교육의 실제	55
제 5 장 참된교회의 역사와 교회학교 현황	58
제 1 절 참된교회의 역사와 담임목사의 목회철학	58
1. 참된교회의 역사	58
가. 1대 박창하 목사	58
나. 2대 장창진 목사	61
2. 2대 담임목사의 목회철학	62
가. 6대 비전	62
나. 교역자 충원 및 전담배치	63
다. 양육시스템	63
라. 분립계획	64
제 2 절 참된교회 교회학교 현황 및 각 부서 운영	65

1. 참된교회 교회학교 현황	65
2. 참된교회 각 부서 현황 및 운영	65
가. 영·유아부	66
나. 유치부	67
다. 유년부	69
라. 초등부	70
마. 소년부	71
바. 중등부	73
사. 고등부	74
제 6 장 참된교회 교회학교 교사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교사교육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	79
제 1 절 참된교회 교회학교 교사 의식 및 활동	79
1. 설문조사 인원	79
2. 연령별 분포	80
3. 신앙생활 경력	81
4. 연령별 교사 수	81
5. 각 부서 교사 분포도	82
6. 교사 경력	83
7. 구원의 확신	84
8. 교사를 하게 된 동기	85
9. 교사로서의 사명감 및 영성관리	85
10. 공과공부 준비 및 준비시간	86
11. 학생들을 위한 기도시간 및 만남시간	87
12. 학생들 심방 방법 및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88
13. 학생들의 가정 심방 또는 부모와 대화한 경험	89
14.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	90
15. 교회학교 부흥요소 및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	91

제 2 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문제점과 해결책	92
제 3 절 참된 목자로서의 교사	95
1. 양을 아는 교사	96
2. 양을 먹이는 교사	97
3. 양을 인도하는 교사	98
4. 양을 보호하는 교사	99
제 4 절 교사교육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	100
1. 전방향 교육 리더십	101
2. 사명회복	102
3. 말씀과 영성훈련	103
4. 가정과의 연계(심방과 사랑)	104
5. 탐방 및 순례	105
제 7 장 결 론	107
부록	113
참고문헌	121
Vita	124

표 목 차

<표 1> 9가지 형태의 간 세대교육	54
<표 2> 성별분포	79
<표 3> 연령별분포	80
<표 4> 교회에서의 직분	81
<표 5> 섬기는 부서	82
<표 6> 섬기는 일	82
<표 7> 교사경력	83
<표 8> 구원의 확신	84
<표 9> 교사를 하게 된 동기	85
<표 10> 교사로서의 사명감	86
<표 11> 교사 영성관리를 위한 경건생활(예배,기도,말씀)	86
<표 12> 공과공부 준비	87
<표 13> 공과공부 준비시간	87
<표 14> 학생들을 위한 기도시간	88
<표 15> 주일 외에 학생들과의 만남시간	88
<표 16> 학생들 심방 방법	88
<표 17>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89
<표 18> 학생들의 가정 심방 또는 부모와 대화한 경험	90
<표 19>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	90
<표 20> 교회학교 부흥요소	91
<표 21>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	92

그래프 목차

<그래프1>	1999-2013년까지 영아부 학생 수 추이	16
<그래프2>	1999-2013년까지 유아부 학생 수 추이	17
<그래프3>	1999-2013년까지 유치부 학생 수 추이	17
<그래프4>	1999-2013년까지 유년부 학생 수 추이	18
<그래프5>	1999-2013년까지 초등부 학생 수 추이	19
<그래프6>	1999-2013년까지 소년부 학생 수 추이	20
<그래프7>	1999-2013년까지 중고등부 학생 수 추이	21
<그래프8>	영·유아·유치부 학생 수와 교사 수 추이	23
<그래프9>	유년·초등·소년부 학생 수와 교사 수 추이	24
<그래프10>	중·고등부 학생 수와 교사 수 추이	25
<그래프11>	전체 학생 수와 교사 수 추이	25
<그래프12>	대한민국 초·중·고학생 수와 통합측 학생 수 추이	2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동기

어느 목회자의 말이다.

유럽교회는 몰락했고, 미국교회는 몰락해 가는 중이고, 한국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했다. 유럽교회가 위와 같은 평가를 받는 데는 500년이 걸렸고, 미국교회는 300년이 걸렸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100년밖에 되지 않았다.¹⁾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쇠퇴하는 즉 굴곡이 있는 교회역사라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최소 100년이 지난 후에 오늘날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총체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2005)”와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2004)”를 통한 결과를 종교별로 보면 1985-2005년 사이 가톨릭 인구는 급성장한 것에 비하여, 개신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종교이탈자(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무종교인이 됨)는 개신교의 경우 모두 760만 명으로 월등히 많고, 불교 이탈자는 390만 명, 가톨릭 이탈자는 180만 명으로 가장 적다. 최근 종교별 분포도²⁾를 보아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 결과는 최근 가톨릭의 급성장과 개신교의 쇠퇴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³⁾ 또한 한 연구에 의하면 2004년 한국교회 교회학교 학생 수는 전체 교인 수의 27퍼센트라고 한다. 1987년 개신교 교회학교 학생 수는 전체 개신교 교인의 거의 반에 육박하는 규모였으나, 1994년에는

1) 최윤석, 최현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14.

2)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 분석리포트* (서울: URD, 2014), 22-23.

3) 이원규,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서울: kmc, 2010), 86-87.

전체 교인의 32퍼센트로 줄어들었고, 2004년에는 27퍼센트로 줄어든 것이다. 우리나라 한 대형 교단의 통계에 의하면 1990년 64만 명이던 청소년과 어린이의 숫자가 2009년에는 5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10만여 명이 감소된 것이다. 1970년대 부흥기에는 교회의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처럼 어린이들의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청소년, 청년, 장년 순이었는데, 이제는 역 피라미드 모양으로 그 구조가 바뀌고 있다.⁴⁾

물론, 보는 시각과 각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의 한국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미래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지나온 한국교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본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한국교회 모습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나 비판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희망을 보고 싶고, 그 희망적 대안을 말하고 싶다.

지나온 한국교회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가히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다. 그로 인해 교회학교도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 모습을 볼 때 성장하고 있다든지, 성장 가능성이 더 많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미 한국교회는 정체상태 내지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통계에 의한 진단이다.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 출산과 고령화, 조기은퇴, 경제적 어려움, 청년실업 등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이라도 건강한 위기의식을 갖고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과거와 현재를 바르게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살펴봄으로써 있는 그대로 부흥과 정체, 쇠퇴와 순환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그려졌는지 살펴 볼 것이다. 성장에는 성장 요인이 있고, 쇠퇴에는 쇠퇴 요인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의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모습을 들여다 볼 것이다. 오늘을 직시하고 분석하게 될 때 미래에 대한 영적 헤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처해있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그리

4) 양승헌, *크리스천 터칭*(서울: 디모데, 2012), 36.

스도를 모델로 삼는 교사교육을 통해서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방법은 문헌 조사 연구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참된교회의 교회학교 현황과약을 위해서 적절한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문제제기와 목적, 연구 방법과 개요에 대해서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역사와 현재 처한 상황을 진단하려고 한다. 초창기에서부터 교회학교의 부흥기와 더불어 침체기에 이르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진단하고 왜 이러한 침체현상이 나타났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최근 20여 년간의 각 연령별 학생 수 추이와 교사 수 추이를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현 세대의 트렌드와 미래세대에 대한 이해와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래시대와 미래세대는 지금 현 세대와 다른 시대, 다른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 세대가 곧 미래세대가 됨을 이해하는 차원에서의 미래시대와 미래세대를 말한 것이다. 따라서 현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문화적 트렌드와 키워드를 분석하고 현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차원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과 정보화 사회, 특징 등을 살펴봄으로 교회학교가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현 세대를 교육하여 미래를 대비해야 할지 살펴보려고 한다.

제4장에서는 간 세대 교사교육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간 세대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적과 필요성, 실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참된교회의 지나온 역사와 2대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비전을 소개하고 교회학교에 어떻게 적용되어 실천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학교의 현황과 조직, 주요사역을 소개하려고 한다.

제6장에서는 교사들의 설문을 통해 교회학교 실증적 분석과 교사교육을 통한 교

교회학교 활성화의 실제적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교회학교 부흥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교사들의 의식 및 활동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면서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에,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모델로 하는 교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의 핵심이자, 대안이다. 참된 목자로서의 교사가 갖추어야 할 영적 태도 네 가지와 구체적인 교사교육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7장에서는 상기 논문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몇 가지 제언을 통해서 결론을 맺게 될 것이다.

제 3 절 실행연구

본 연구를 위해 먼저, 교사교육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에 관련된 저서와 논문 및 실행연구 자료들을 살펴보고 간략하게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양승헌은 *크리스천 티칭*이라는 책을 통해서 지금의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스토리가 끊어질 위기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두 가지 요인을 말했다.⁵⁾ 첫째는 스토리를 이어받을 다음 세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위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 출산의 위기이다. 미국의 인류학자 폴 히윗(Paul Hewitt)은 “한국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하지 않으면 2100년에는 현재 인구의 3분의 1만 남게 되고, 2200년에는 140만 명만 남게 되어, 지구에서 한국인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까지 말했다. 통계청에서도 10세에서 19세까지의 총인구수가 2005년에는 1200만 명이었지만, 2031년이면 74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⁶⁾ 둘째는 스토리를 이어줄 믿음의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것이다. 한국 교회 주일학교는 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농어촌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있으며 도시 교회에서도 출석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출산율 감소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 주일학교의 수적인 감소, 주일학교가 미치는 영향력의 추락, 주일학교 부서 자체가 사라지는 등의 모습 속에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일까? 양승헌은 그 대안을 *크리스천 티칭*으로 말한다. 즉 탁월한 교사, 탁월한 모델로

5) 양승헌, *크리스천 티칭*, 34-37.

6) Ibid.

서의 예수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원리 여섯 가지를 말한다. 첫째,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인간회복(Restoration)이다.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며, 사회가 변하더라는 것이다. 둘째, 예수님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다. 복음서 전체 구절 3,629구절 가운데 1,950절이 예수님의 말씀이며, 신약 7,800구절 가운데 4분의 1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 증거이다. 누가 어떠한 질문을 해도 명쾌하게 답을 해 주셨고, 천국의 비밀 또한 가감 없이 알려 주셨다. 셋째,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가르치셨다. 넷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 다섯째, 예수님은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 삶의 모본과 희생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으며,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어루만지시면서 온전하게 회복시켜주셨다. 여섯째, 하늘의 동력으로 일하셨다. 즉,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의 원동력은 성령의 도우심이있다.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설교, 가르침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의 현 문제점을 통찰하고, 그 대안으로 탁월한 교사요 탁월한 모델이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방법을 제시한 것을 통해 교사교육의 중요성과 방향을 잡게 되었다. 예수님은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며 복음을 전하셨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성인들에게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통찰하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셨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변화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정의 사람들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윤식·최현식은 *한국교회 미래지도 2*에서 미래학적인 관점으로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⁷⁾ 먼저, 한국의 미래를 3가지로 예측할 수 있는데 첫째가 ‘저성장’이고, 둘째가 ‘금융위기’, 셋째가 ‘제2의 외환위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의 미래도 3가지로 갈라질 수 있다. 첫째는 선방하면 ‘정체’이다. 둘째는 ‘심각한 재정위기’이며, 셋째는 재정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재정 위기가 발발할 경우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 ‘교회파산’이나 ‘교회분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대세적 성장도 멈추었다. 2013년 기준으로 장로교는 세신자의 44.4퍼센트, 감리교는 43.7퍼센트, 성결교는 42.6퍼센트가 수평이동을 했다. 1990년대 후반

7) 최윤식, 최현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38-39.

부터는 전체적으로 눈에 띄게 성도들이 줄었는데, 대형 교단에서도 어린이 부서의 숫자가 10-20퍼센트 감소했으며, 중소형 도시에서는 교회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60-70퍼센트 될 것이라 예측한다. 2013년 분석을 보면, 예장합동은 재적 교인 299만 4,873명에서 287만 7,065명으로 감소했고, 예장통합도 281만 531명에서 280만 8,912명으로 감소했으며, 기장은 29만 7,752명에서 28만 9,854명으로 감소했다.⁸⁾ 지난 10여 년 동안 교단을 막론하고 비슷한 추세로 재적 교인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영적 침체, 세속화, 재적 교인의 감소, 교회학교 붕괴, 과도한 건축, 시대적 역발상 행동 또는 도덕적 이미지 실추로 인해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는 상황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윤식은 2028년경이 되면 한국교회 교인들의 주력 세대가 60-70대가 되는 상황을 맞이하는데, 전체 교인의 60-70퍼센트가 55세 이상 은퇴자일 것으로 예측하며, 경기 외곽 지역이나 지방 대도시는 그들이 70-80퍼센트 차지할 것으로 본다. 일명 '고령화된 한국교회'인 것이다. 그렇다면 위기의 한국교회를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최윤식은 대안 중 하나를 “교육부서”라고 했다. 왜냐하면 교육부서는 한국교회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고, 시금석과 같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미 많이 무너져 있는 유럽교회나 무너지고 있는 미국교회에서도 주일학교를 살리는 교회는 부흥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교회를 살릴 마지막 남은 출구이자 급격한 쇠퇴를 막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때문에 주일학교를 살리기 위해 “교사를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교사교육을 통한 교회학교의 부흥의 키워드와 동일하다. 교사를 잘 세우게 되면 미래의 세대들이 잘 세워지게 된다. 때문에 교회학교를 섬기는 교역자의 우선순위는 학생 전도가 아니라, 교사를 세우는 것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어서 교사는 말은 아이들을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교역자는 교사를 살리고, 교사는 학생들을 살리는 선순환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최윤식은 지금 한국교회 교사들의 절대적 헌신과 사명감, 열정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영적 자질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교사훈련이 빈약해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군대에서도 짧은 시간동안 훈련을 통해 정예부대로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진짜 정예부

8) 최윤식, 최현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52-53.

대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충분한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훈련 속에 진정한 정예군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교사는 단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국 교회에서 교사교육이 일 년에 한 두 차례 있는 교회도 많지 않다. 교사가 부족한 형편에서 교사교육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교회 최후의 보루로서 다음세대를 섬기는 교사들의 교육이 부재하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시글픈 현실이다. 교회학교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사역들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사교육을 통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의 핵심인 한국교회의 침체를 극복하고,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교사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오철훈의 풀러신학교 목회학박사학위논문인 “목양교사 사역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 관한 연구”⁹⁾에서 교회학교의 침체 요인 중 하나를 교사의 지도력으로 말하고 있다. 교사의 지도력이란 영성과 전문성이다. 교사의 지도력을 키워주는 것이 다음세대를 살리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당회를 비롯한 전교회적으로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연구자는 주장한다. 이처럼 여러 책과 논문에서 교회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사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교회학교의 성장 방안으로 교사교육을 연구하려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상진은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교사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교회학교의 침체현상과 교사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현상이다. 이것은 통계청의 자료와 각 교단들의 출식률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회학교 학생 수의 감소현상이 꼭 인구감소에만 연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경우(주변 환경의 영향을 배제한다면) 교사요인이 학생 수 증감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교사요인이 학생 수 감소현상의 중요한 원인 일뿐 아니라 동시에 교사교육 활성화의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저자는 교사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를 교사상으로 꼽는다. 또한 교사교육의 내용에 대한

9) 오철훈, “목양교사 사역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D. 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5) 27.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신앙성숙, 학생이해, 인격도야, 성경지식, 교수기술 순이었다. 교사교육에 있어서 신앙성숙이 가장 중요하고, 신앙성숙을 근간으로 하는 양육체계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이와 같은 자료와 내용을 근거로 교사교육의 대안으로서 리더십 모델 다섯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공동체적 교사교육, 양육 중심의 교사교육, 소그룹을 세우는 교사교육,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교사교육, 실천과 참여의 교사교육 이상 다섯 가지이다. 그 중에서 양육 중심의 교사교육은 본 논문의 교사교육 활성화 방안에서 연구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교사교육은 획일적이거나, 일방적 교육이 아니라 각 교사의 삶의 여정을 돕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교사교육은 교사들의 신앙성숙의 과정이 되어야 하며, 영적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전통적인 교사교육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새로운 교사교육의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교사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성환의 풀리신학교 목회학박사학위논문인 “교사교육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¹⁰⁾에서 교사교육의 목회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교사 개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명이 확실한 교사라 하더라도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면 교사로서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교사로서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이다. 교사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학생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사역자라는 것이다. 셋째는 교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삶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성숙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사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임과 동시에,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교사 스스로도 성장과 성숙을 해야 하며, 동시에 학생들의 신앙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섬겨야 하는 사명자가 교사이다.

10) 표성환, “교사교육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109.

제 2 장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역사

한국교회가 성장해 온 이유 중 하나는 교회학교의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에 있다. 물론 장년들의 성장과 함께 동반성장을 해 왔지만, 다음세대들에게 영적 씨앗을 꾸준히 뿌려온 결과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열매를 기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정체를 넘어 감소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다음세대가 교회 안에서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감소한 이유를 알아내고 그에 따른 대안을 세워야 할 때이다. 우선, 기독교교육의 측면에서 교회학교 역사를 시기로 구분하여 주요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 1 절 한국교회 교회학교 역사의 시대구분

장신군은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교회학교의 역사를 크게 네 번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¹¹⁾ 제1기(1885-1919)는 선교사들에 의해 개신교가 한국에 전해지고 기독교 학교와 교회의 사경회, 주일학교 등을 통하여 민족교육과 신앙교육이 형성된 시기이다. 제2기(1920-1945)는 이러한 민족교육이 크게 쇠퇴하고 주로 교회 안에서 교회학교를 통하여 신앙교육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그리고 이 시기 이후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기독교교육의 정체성이 많은 부분 상실되었던 기독교교육의 포로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3기(1945-1970)는 다양한 기독교교육 커리큘럼이 해외에서 도입되고 기독교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시도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제4기(1970년 이후)는 한국사회의 근대화과 더불어 교회교육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기독교교육

11) 고용수 외, *기독교교육개론*(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10), 352.

학의 학문적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고 있는 시기이다.

1. 제1기(1885-1919) : 개신교의 수용과 민족교육, 신앙교육의 형성기¹²⁾

이 시기는 먼저 개신교의 수용과 민족교육의 형성시기이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주일교회학교의 태동과 발전이다. 기록상 최초의 주일학교는 1888년 1월 15일 스크랜턴(M.F. Scranton) 부인이 어린이 12명과 3명의 부인, 4명의 선교사와 더불어 이화학당에서 시작한 주일학교였다. 1890년에는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처음 설립되었고, 1897년에는 5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 이후 각 선교학교와 교회에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설립되었다. 1986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 노블(Noble)목사가 평양 선교부에 부임하여 주일학교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함으로써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다. 그는 유년주일학교라는 이름으로 5세에서 15세까지의 아동들을 따로 모아서 성서공부를 지도하면서 주일학교 운동을 전개해 나갔는데 이것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주일학교가 점점 성장하여 한국교회 안에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¹³⁾ 1915년경부터 유년주일학교는 전국의 교회 내뿐만 아니라, 교회가 없는 곳에 확장주일학교(Extension Sunday School)라는 이름으로 개설되었다. 이 시기에 주일학교는 계속적인 부흥을 이루었으며 1919년 말에는 주일학교 학생 수가 만여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유년주일학교는 아동들을 위한 신앙 교육의 장이었고 동시에 전도와 교세확장을 위해서도 큰 공헌을 하였다.¹⁴⁾ 교육이 곧 선교적 역할과 기능을 한 것이 성장의 중요한 요소였다.

2. 제2기(1919-1945) : 민족교육의 쇠퇴와 신앙교육중심의 시기¹⁵⁾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시기는 일제 강점 하에서 많이 위축 되어 가는 상황이었으

12) 고용수 외, *기독교교육개론*, 353.

13) 양금희, *기독교 유아·아동교육*(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256.

14) 고용수 외, *기독교교육개론*, 356.

15) Ibid., 358.

나, 주일학교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3·1 운동을 통해 민족과 백성들을 깨우치도록 하자는 소망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교육운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다. 그 결과 1921년에는 전국에 3,899개의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있었고, 여기에 속한 학생 수는 22만 3천명에 육박하였다. 1922년부터는 하기아동성경학교가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으며, 1930년에는 약 36,000여명이, 1934년경에는 약 130,000여명이 성경학교에 참여하였다. 확장주일학교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21년에는 전국주일학교대회가 시작되었고, 1922년에는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발족되었다. 주일학교에서는 주일학교 교육 교재를 발간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수의 교사용 참고서적들을 출판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교과연합으로 이루어져왔던 주일학교 운동이 이 시기에 교과별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주일학교를 모체로 하는 교세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한국교회 교육은 그 내용에 있어서 당시의 한국사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와 다양한 도전들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해 주지는 못했다. 따라서 제2기는 초기의 민족교육의 정신이 많이 후퇴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교육이 그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였으며 성인교육 중심에서 아동교육으로 축소된 시기였다. 1920년부터 1926년 사이에 주일학교의 성장과 더불어 잠시 수직인 부흥을 누리던 한국교회는 사회와 역사에 대한 책임감의 상실과 무관심으로 인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밀려나기 시작하였고 수적으로도 많은 감소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42년부터 두 해 동안은 각 교단별로 이루어졌던 공과 출판마저도 금지 당하게 되었다.

3. 제3기(1945-1970) : 다양한 커리큘럼 도입 및 기독교교육학의 학문적 개척기¹⁶⁾

1960년까지의 시기는 주일학교연합회의 활동¹⁷⁾이 재개되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또한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패배로 인한 한국의 해방, 미국의 군정, 한국전쟁의 발발, 4·19혁명, 산업화, 도시화의 시작 등으로 인하여 매우 혼란하고 과도기적인 시기였다. 이 시기에 한국교회는 시대를 통찰하고 복음에 기

16) 고용수 외, *기독교교육개론*, 360.

17) 고용수 외, *21세기 한국 교회교육의 과제와 전망*(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8), 129.

초한 기독교교육을 회복하지 못한 채 교회 재건의 주도권을 두고 다투면서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된다. 다행히도 해방과 더불어 한국교회는 주일학교 재건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어린이 주일학교와 중·고등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하였다. 1947년에는 일체에 의하여 1938년에 강제로 해산되었던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다시 그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하였고, 1948년에는 그 명칭을 대한기독교교육협회로 바꾸기도 하였다. 즉 해방 후 1960년까지는 다시금 주일학교가 복구되고 있는 시기로 보면 될 듯 하다. 또 하나의 현상은 1960년대부터는 그 동안 사용되어 오던 주일학교라는 명칭이 교회학교라는 명칭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주일교회학교 내에 좀 더 체계적인 내용과 제도를 확립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었고, 계단공과를 집필하여 나오게 되는 결실을 본 해이기도 하다.¹⁸⁾

4. 제4기(1970-2000) : 교회학교의 양적성장 및 학문적 정립기¹⁹⁾

1980년대 한국교회의 급격한 수적 성장은 교회학교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교회학교 학생 수는 1987년에 480만(전체 교세의 47.5 퍼센트), 1994년에 455만(전체 교세의 31퍼센트), 2004년에 500만명(전체 교세의 27.2 퍼센트)에 달했으며, 이 기간 동안 교회학교 학생 수 구성비는 전체의 52-29퍼센트가 초등부 이하의 아동이었고, 26-30퍼센트가 중고등부 학생이었으며, 11-21퍼센트가 청년과 대학생들이었다. 2004년 현재 한국교회는 전국의 총 학교 수(19,831개교)보다도 더 많은 교회학교수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속한 총 학생 수는 전국 총 학생수의 43퍼센트에 해당하는 510만 명에 달한다.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 교육목회라는 개념이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이에 기초한 교육목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기도 했다. 1970년대부터 양적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남과 동시에 뿌렸던 영적 씨앗들이 자라나서 지금의 한국교회를 지탱해주는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통합측 통계자료를 보면 1995년부터 교회학교는 침체내지는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한국교회의 자체 성장둔화도 이 때부터 시작되었다.

18) 양금희, *기독교 유아·아동교육*, 259.

19) 고용수 외, *기독교교육개론*, 362.

제 2 절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현주소(1995-현재)

한국교회 교회학교 역사(1885-2000)를 시대적으로 구분해 보면서 그 시기에 일어났던 주요한 변화와 흐름을 살펴보고있다. 특히 교회학교의 성장, 쇠퇴, 침체 등 변화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았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교회학교의 감소추세가 1995년부터 급속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원인을 추적해보면 대한민국 가정들의 가정 당 출산율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것이 교회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교회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교회학교가 변천되어 온 역사와 더불어 현 시대의 흐름을 통찰할 줄 알아야 한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으며, 현재 없는 미래는 없기 때문에 현재를 통해 과거를 배우며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인구 수 변화의 추이와 그에 따른 교회학교 학생 수 변화의 추이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출산율 저하만 문제인지 그 밖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그에 따른 분석을 통해 대안을 세워보고자 한다.

1. 연령대별 인구수 추이

2014년 대한민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로는 1.21명이 되어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우려를 가져오는 상황이다. 과거출산율이 1960년에는 6.0명, 1970년 4.5명, 1980년 2.8명, 1990년 1.5명, 2001년 1.3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 40년간 한국은 그야말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수치를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2010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은 1.23명이다. 이러한 저 출산율의 영향으로 인해 2010년에는 학령인구가 46년 만에 1천만 명이하로 떨어졌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²⁰⁾ 2010년 학령인구가 990만 1천 명으로 전년보다 16만 1천 명 감소하였는데, 학령인구가 1천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64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는 학령인구가 616만3천 명, 2050년에는 460만 2천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학령인구가 가장 많았던 1980년의 1440만 1천명 명에 비해 1/3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임기 여성

20) 정제영, *한국교회, 10년의 미래*(서울: SFC, 2012), 34-35.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면 '초 저 출산'이라고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15년째 초 저 출산의 나라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생육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저 출산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곧 바로 다음 학년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 즉,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각 학년의 학생들이 오랜 시간동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출산율의 저하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 교회학교에 미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저출산에 따른 1970년부터 2014년 최근까지 대한민국 유·초·중·고등학생 수를 살펴봄으로 연령별 증감률의 변화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 지 살펴보자.(부록 1)

통계청의 유·초·중·고등학생수의 증감을 보면, 몇 가지 뚜렷한 현상이 나타난다. 첫째는, 1970년부터 1990년까지는 미취학아동과 중·고등학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장로교 통합측의 총회회의록에 나타난 교세의 수와 아동 숫자의 증감추이를 보았을 때에도 1960년대 이후 1990년까지의 기간에 지속적인 증가추세, 가파른 상승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1995년부터 초·중·고학생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8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 자료"를 취합한 결과 2008년 4월 1일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9.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²¹⁾ 학급당 학생 수 감소는 1990년대 후반 본격화된 저출산의 여파로 초등학교 수가 2003년 417만 5626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약 10만 명씩 줄어든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전체 초등학교는 367만 2207명으로 2007년보다 15만 7791명(4.1퍼센트)이 감소했다. 이처럼 출산율의 저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드러난다.

가장 극심한 감소 현상을 보이는 연령대는 0-4세인데, 1997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평균 3.2퍼센트씩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에는 200만대로 감소했고, 2006년에는 239만 212명으로 줄어들었다. 5-9세 아동들도 2001년까지는 약간씩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부터는 지속적인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10년 간 매년 평균 감소율은 0.42퍼센트이다. 그리고 중·고등부 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15-19세의 경우에도 1999년 이후부터는 2006년에 정체를 보인 것 외에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매년 평균 2.2퍼센트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²²⁾

21) 김희균,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20명대로 줄어", 경향신문, 2009년 12월 6일자.

22) 박상진, *교회교육현장론*(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8), 365.

종합해서 알 수 있듯이 중·고등학생 수의 격감 원인이 이러한 인구 감소 현상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시간대에 개신교 아동 인구 수와 중·고등학생 인구 수도 마찬가지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목할 것은 전체 개신교 인구 수의 감소라는 요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아동 수의 감소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가장 최근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이다. 여전히 학생들의 인구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199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학생 수가 좀처럼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출산율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단 시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청소년이 되기까지는 15년 이상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영유아 출산율 저하는 앞으로 10-15년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부록1, 2)

2. 교회학교 학생 수 추이 및 분석

최근 15년간(1999-2013) 통합교단의 주일학교 통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13년의 증감률을 보면 영아는 20퍼센트 증가했으며, 유아는 2.9퍼센트 감소, 유치는 36.3퍼센트 감소, 유년은 33.3퍼센트 감소, 초등은 31퍼센트 감소, 소년은 35.3퍼센트 감소, 중고등은 9.7퍼센트 감소하였다.²³⁾(부록, 3)

영아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초등학생이 되기 전, 유치부의 증·감이 중요한데, 2003년부터 2103년까지 감소하고 있는 현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린이부서도 매년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 추이를 보다 면밀하고 자세하게 살피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 현재 한국 교회 교회학교의 문제점과 원인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라 하더라도 교육적인 내용 하나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빚어내는”²⁴⁾ 것과 같은 창조적인 작업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교회학교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교육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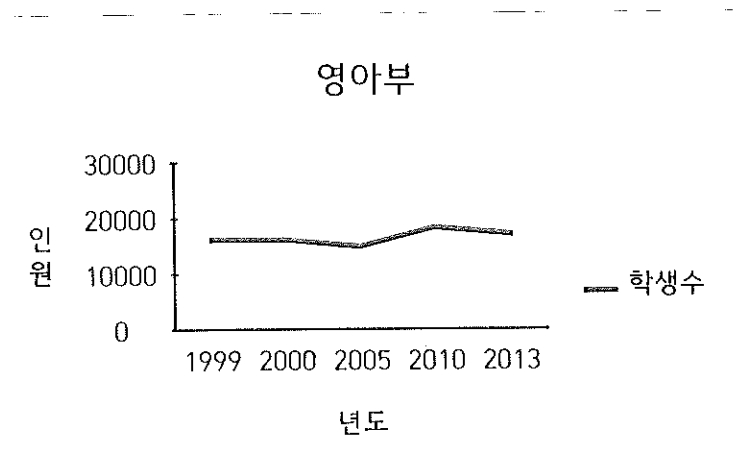
23)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학생 수, 1999년부터는 유치부를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로 나누어 학생 수를 보고하도록 했다.

24) Maria Harris, *회중 형성과 변형을 위한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 역(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14.

운영의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일방적 주입식 교육 구조, 주일에 잠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해 교사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 교사의 충원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역적 구조, 다음세대들에게 매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고정관념과 틀, 교회학교와 지원체제(교회와 가정 그리고 기독교 학교)간의 협력관계의 단절 등이다.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신앙공동체라면 교육구조를 재정립하고 교회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변화를 주어야 한다.

통계자료는 단순하게 지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 지표에는 많은 사역의 흐름과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한국교회가 어디에 집중해서 가고 있는지 또한 교회학교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최선의 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교회학교의 변화 추이를 보다 자세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교육의 결과물은 단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포인트를 잡고 가야 하는 것이다. 증·감애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에 따른 결과는 같은 해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차차 나타날 수도 있다. 때문에 최근 15년 동안의 학생 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통찰을 얻고자 한다.

<그래프1> 1999-2013년까지 영아부 학생 수 추이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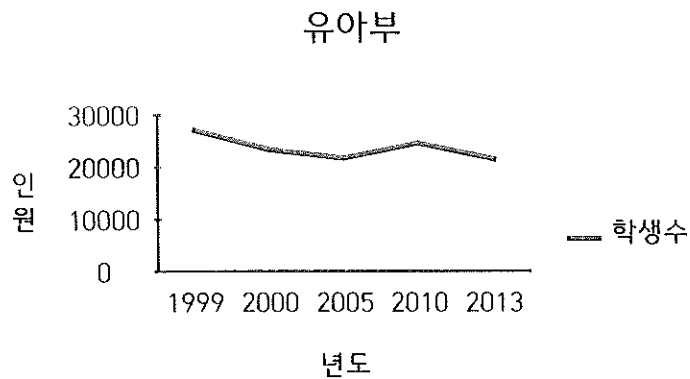


영아부 학생 수는 2002년과 2003년에 줄었다가 2006년부터는 조금씩 증가해서

25)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계위원회, 제84회 회의안 및 보고서(84회-99회까지 매년 총회에서 보고되는 내용 중 통계위원회 교회학교 보고서를 참고하였음).

2011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12년부터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99년부터 15년이 지난 2013년까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 증가한 것이다. 출산율의 감소를 생각하면 영아부의 소폭 증가는 고무적인 일이며 또한 부모인 젊은 세대들이 어린자녀들과 함께 출석하고 있기에 더욱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프2> 1999-2013년까지 유아부 학생 수 추이



<그래프3> 1999-2013년까지 유치부 학생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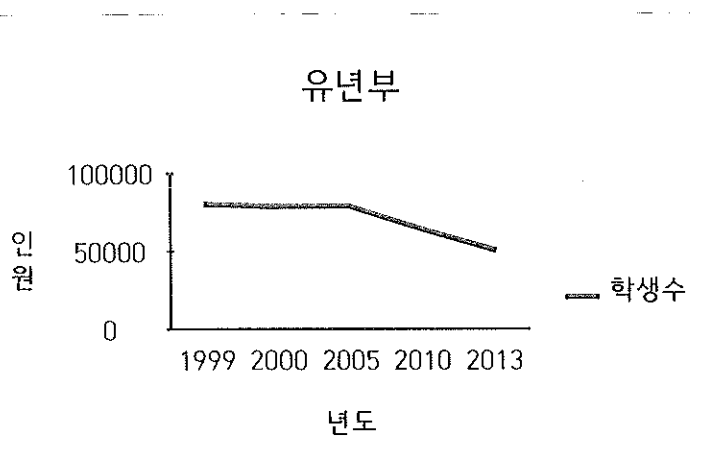


<그래프2>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유아부는 1999년에서 2000년까지 즉 1년 만에 13.8퍼센트 감소했다. 그 후로도 감소하다가 2010년과 2011년에 잠시 증가했다. 그러나 그 후로는 다시 감소추세이다. 이 결과는 1999년과 2000년, 2011년 전체 교인 수

가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며, 2012년에도 전체 교인 수 또한 소폭 감소했다.

<그래프3>에서 보듯이 유치부는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증가했으나,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줄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영아부와 유아부를 합친 전체 숫자보다 유치부가 통계수치로는 크다. 그래서 조금만 인원이 줄어도 사실은 크게 줄게 될 것과 다름이 없다. 1999년을 기준으로 2013년에는 28퍼센트가 줄어든 것이고, 숫자로는 22,787명이 줄었다. 2013년 유아부가 21,555명임을 감안 할 때 적은 숫자는 아니다. 어느 한 부서의 감소가 그 부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각 부서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즉, 영아, 유아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유치부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연속선상에 있는 영아부와 유아부의 성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프4> 1999-2013년까지 유년부 학생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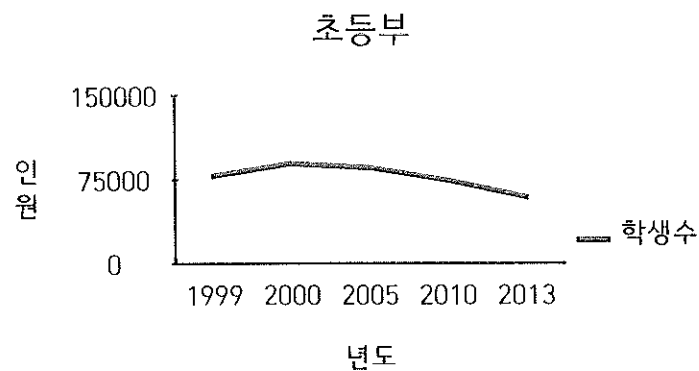
<그래프4>의 유년부는 1999년부터 소폭으로 감소하다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2007년에서 2008년 사이²⁶⁾ 그리고 2010년에서 2011년 사이²⁷⁾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해당 년도의 장년 숫자가 큰 변화 없음을 볼 때 당시 목회자의 윤리적 문제와 여러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실추로 인해 민감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났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 1999년 이후로 2013년까지 15년간 소년부와 유년부가 가장 감소한 것

26) 2007년 7월 19일 분당의 M교회 아프칸 탈레반 무장세력에게 피랍되어 2명 순교하고, 21명은 42일 만에 풀려 남. 이 때 한국교회는 대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일방적 비난을 받음.

27) 2010년 청년사역으로 유명한 S교회 담임목사 성추행으로 사임, 한기총 금권 선거 등

으로 나타난다. 부쉬넬은 “어린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하며, 그리스도인 외의 어떤 다른 존재로도 자신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²⁸⁾라고 까지 말하였다. 교회학교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교회학교 부흥의 시작은 어린이 부서였다. 한국교회 내에는 어린이 부서를 특화하여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들이 많았다. 따라서 유년부와 소년부의 침체는 교회학교의 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프5> 1999-2013년까지 초등부 학생 수 추이



<그래프5> 초등부를 보면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14퍼센트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후로 2005년까지 감소하다가 2006년 전년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후에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2010년부터는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다. 2010년의 추이를 보면 유아부를 제외하고 전 부서가 감소하였는데, 전체 성인 수가 소폭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교회학교가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는 위기의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교회학교에서 초등부는 유년부와 소년부 사이에서 허리와도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유년·초등·소년부의 그래프 곡선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28) Horace Bushnell, *기독교적 양육*, 김도일 역(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36.

<그래프6> 1999-2013년까지 소년부 학생 수 추이



<그래프6> 소년부를 보면 2002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그 후로는 큰 변동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2년에도 급격히 감소하여 영아부부터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숫자가 줄어든 부서가 되었다. 2013년을 기준으로 15년 전인 1999년과 비교해보면 무려 35퍼센트가 감소하였으며 173,667명이다. 이 수치는 2015년을 기준으로 영아부부터 유년부까지의 학생수를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이다. 이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수치상으로는 감소의 뚜렷한 원인을 찾아내기 어렵다. 그러나 소년부의 감소는 곧 바로 중등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내어 대안 마련을 시급히 해야 한다. 위기의식을 갖고 소년부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소년부를 섬기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학생들의 양육과 관리를 철저히 하며, 예산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임을 감안할 때, 교회에 출석 중인 학생들을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소년부 학생들은 사춘기가 시작되는 때임을 감안하여 그들과의 소통과 관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소년부 학생들 스스로도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이기에 좌충우돌 할 수밖에 없다. 이 때 교사는 논리적, 합리적 접근과 대화보다는 감정으로 공감해주고, 무조건 수용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태도나 자세를 고치려고 하거나, 수정하려고 하면 튕겨 나갈 것이다. 인내하는 사랑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래프7> 1999-2013년까지 중고등부 학생 수 추이



<그래프7> 중·고등부를 살펴보면 1999년부터 2001년과 2002년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2-2009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부터는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감소하였는데, 1999년을 기준으로 2013년에는 17퍼센트가 감소하는 안타까움을 보였다.

이와 같이 통합측 교회학교 학생 수를 부서별로 조사하여 분석해 보았다. 최근 15년 동안 굴곡 있는 교회학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학생 수의 증·감을 확인함으로써 인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앞으로가 예측된다는 것이며,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15년 동안 막연하게 정체가 내지는 감소하였다는 말은 어떤 영향도 그리고 어떤 깨달음도 주지 못한다. 어느 해에 증가하였는지 그리고 어느 해에 감소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부서들이 얼마만큼 성장해 왔으며 성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개 교회별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기준으로 통합측 성인들의 성장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교회학교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부록 4)

1999년을 기준으로 통합측 교회학교 학생 수(영아부-고등부)는 578,271명이며, 2013년 교회학교 학생 수(영아부-고등부)는 432,796명이다. 차이는 145,475명이고, 25퍼센트가 감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기준으로 성인교세는 1999년 2,245,326명이고, 2013년에는 2,808,912명이다. 563,586명이 증가한 것이고, 25퍼센트가 증가한 수치이다.

결국, 15년 동안 교회학교는 25퍼센트 줄었고, 성인들은 25퍼센트 늘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가? 교단차원 그리고 각 교회들이 여전히 목회의 무게 중심을 성인들에게 두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목회의 취약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2009년 통합측 교단은 대대적으로 300만 운동을 벌였다. 이 또한 성인 중심의 진도 사역이었다. 교단 전체가 움직이는 사역이었고, 탄탄한 조직구성과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다.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잃은 양을 찾는 본질적인 구원의 사역이기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교사와 다음세대를 일으키야 한다. 교단 차원에서 교사와 다음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대대적인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교회학교 성장과 부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어떠한 대안을 세워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느 한 교회만 잘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교단차원에서 대책과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 대안을 세워도 당장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뿌리는 사역이 되어야 하며 전략적 집중 사역이 되어야 한다.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부터라도 다음세대를 성장시키기 위해 집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사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학생들의 영적 양육을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교회학교 학생 수, 교사 수 비교 및 감소원인 분석

지금까지 각 부서별 학생 수의 증·감, 성인 수의 증·감 그리고 그에 따른 비교분석을 하였고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대로 침체하고 있는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서는 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 과연, 줄어들고 있는 교회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의 수에는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학생 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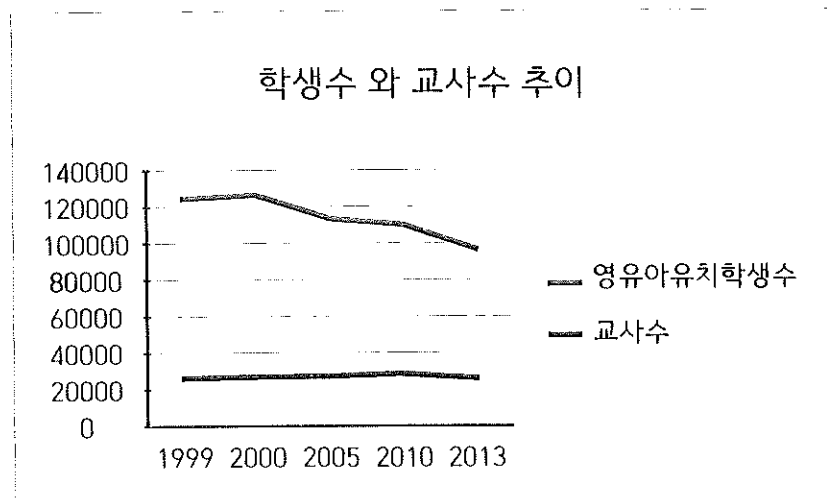
최근 15년간의 교사 수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부록 5)

영아부의 교사는 1999년을 기준으로 2013년에 35퍼센트가 증가하였으며, 유아부는 5퍼센트 증가하였다. 유치부 8퍼센트 감소, 유년부 21퍼센트 감소, 초등부 13퍼센트 감

소, 소년부 28퍼센트 감소, 중고등부 5퍼센트 감소이다. 영아부, 유아부를 제외하고 교사의 수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영아부, 유아부의 학생 수가 증가하였는데, 교사의 수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부서들은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교사의 수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아부는 1999년을 기준으로 2013년도에 학생 수가 36.3퍼센트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교사의 수는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소년부의 경우 학생 수의 감소와 더불어 교사의 수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부서별 교사의 수를 합산한 것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유치부는 최근 15년간 교사의 수는 크게 변동이 없다. 그러나 어린이부서(유년,초등,소년)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교사의 수가 22퍼센트 감소하였다. 학생의 수가 32퍼센트 감소하였음을 볼 때, 교사의 수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영·유아·유치부의 학생 수가 15년간 22퍼센트 감소하였을 때, 오히려 교사의 수가 감소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또한 영·유아·유치부 학생 수의 합산과 유년·초등·소년부 학생 수 합산과 중·고등학생 수의 합산의 분석을 어느 부서의 교사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안이 나와야 한다. 그래프를 통해 변화의 추이를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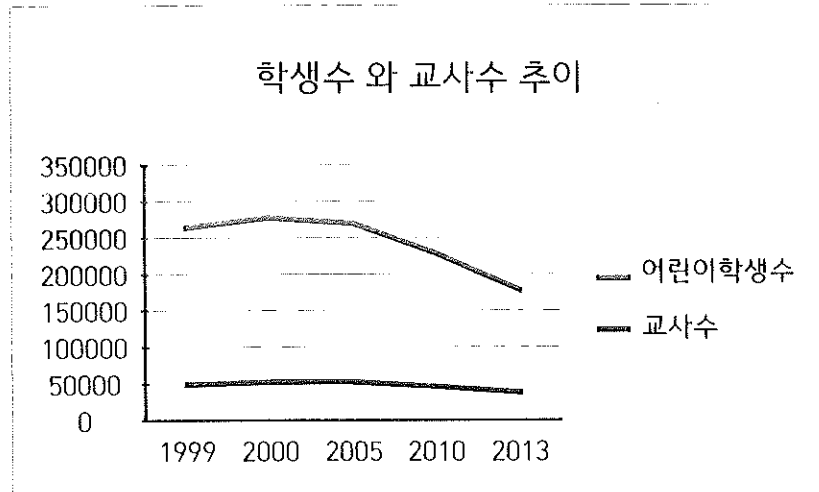
<그래프8> 영·유아·유치부 학생 수와 교사 수 추이



<그래프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유아·유치 학생 수는 최근 15년 동안 감소하고 있지만, 교사 수는 오히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영·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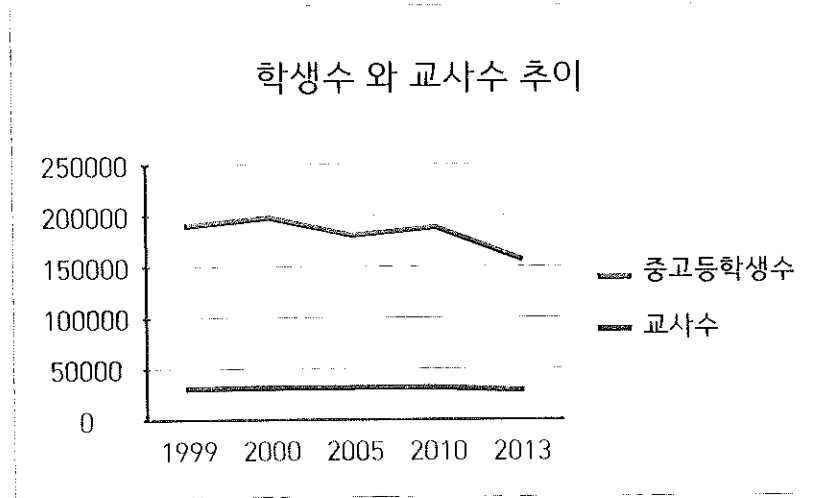
아부 아이들의 증가하는 원인을 교사 수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아이들이 감소하더라도 교사 수가 거의 변동 없다는 것이 영·유아·유치부 성장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래프9> 유년·초등·소년부 학생 수와 교사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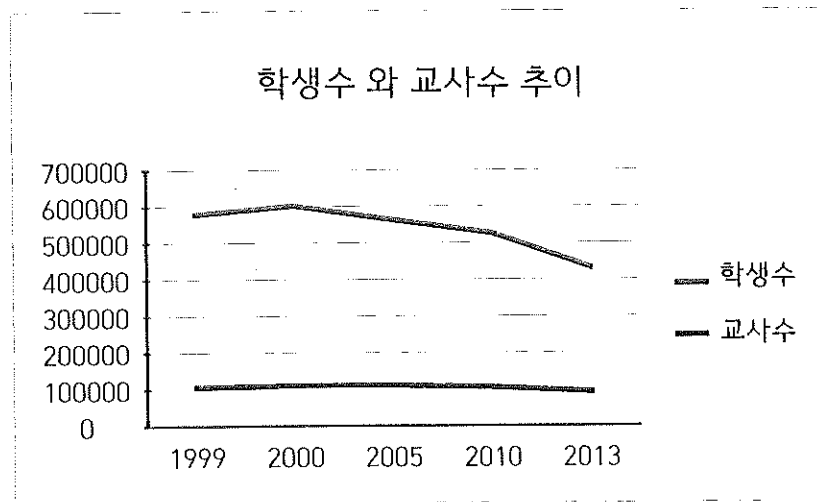
<그래프9>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2000년 이후로 어린이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 부서에 비해 감소폭이 크며, 어린이부 감소는 중등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동시에 감소하고 있는 교사 수급에 대한 부분도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학생 수가 감소함과 동시에 교사 수마저 감소한다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교회 교회학교마다 어린이들이 많았음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감소현상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은 자명하다. 학생 수의 감소와 교사 수의 감소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최우선 해결책은 교사의 충원이다. 교회의 다양한 인력 중에서 가장 헌신도가 높고, 사명감이 있는 분들을 교사로 임명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교사교육을 통해 교사의 사명감을 높이고, 교사를 세워간다면 그것이 대안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프10> 중·고등부 학생 수와 교사 수 추이



<그래프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고등부는 2000년과 2005년-2010년 사이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뚜렷한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1999년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이다. 반면 다행히도 교사 수는 크게 변동이 없다. 상대적으로 중·고등부 교사들은 시간과 물질을 헌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어려운 사역이지만 교사들이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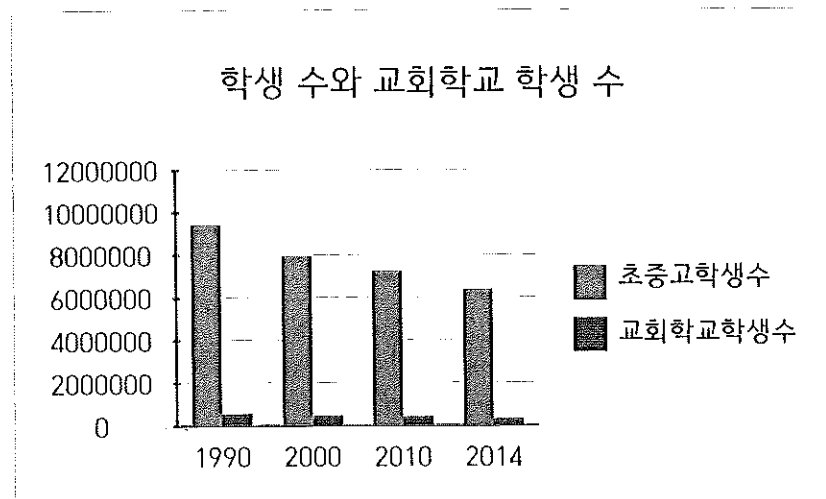
<그래프11> 전체 학생 수와 교사 수 추이



<그래프11>은 최근 15년간 전체 학생 수와 교사 수의 변동 추이를 나타내고 있

는데, 학생 수는 2000년 이후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교사 수는 1999년이나 2013년을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교사들로 인해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세를 그나마 막은 것이 아닌가 싶다. 때문에 교사교육은 교회학교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사가 버티고 있는 한, 반전은 가능하며 그 중심에 교사교육이 있다. 교사가 없다면 학생들이 누구에게 도전을 받고 양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겠는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교회학교를 새롭게 빚어 가야 한다. 저 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자연감소 그리고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에 대한 긴급성과 위기의식을 갖고 막을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단 기간에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교회학교가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현상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5년간 교회학교의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교사의 자리를 지켜낸 교사들의 헌신이 고맙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교사교육의 중요성은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본 논문은 그 대안을 교사교육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프12> 대한민국 초·중·고학생 수와 통합측 학생 수 추이



<그래프12>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970년과 2014년 우리나라 초등학생 수가 절반가량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저 출산으로 인한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실감하는 데이터이다. 2010년부터는 대한민국 중·고등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2014년에 우리나라 초등학생 수는 7.6퍼센트 감소하였고, 중·고등학생 수는

9.5퍼센트 감소하였다. 같은 기준으로 통합교단 초등학생 수는 35.7퍼센트 감소, 중·고등학생 수는 20퍼센트 감소하였다. 출산을 저하로 인한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의 감소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교회학교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으며, 긴급한 대책과 대안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부록 6)

지금까지 통합 측 학생 수와 교사 수의 자료 분석을 통해 교회학교의 정체와 감소현상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최근 15년간의 자료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 준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국가적인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출생률 감소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전처럼 교회학교의 폭발적인 성장은 없을 지라도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제자를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셨듯이 교사는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키워낸다면 반드시 새로운 부흥은 올 것이라 확신한다.

제 3 장

현 세대의 트렌드, 미래시대 이해 및 특징

교회학교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분석하여 문제점과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다. 교회학교의 침체현상에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안은 있으며 그것은 교사를 교육하여 사명감을 높이고, 격려하고 훈련하여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교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통찰로 현 세대를 바라보고, 그들이 살아갈 미래 시대를 이해하여 교육의 장에서 실천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현 세대의 트렌드(Trend)와 미래시대에 대한 이해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미래시대는 미래세대가 살아가게 될 시간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시대와 미래세대를 현 세대와 분리해서 이해하거나, 다른 세대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미래시대는 현 시대의 미래적 의미이며, 미래세대는 성장하게 될 현 세대를 말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미래시대, 미래세대, 미래교육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김도일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²⁹⁾ 미래시대는 영어로 표현하면 Future Era 정도가 될 것이다. 미래시대는 미래세대가 살아 갈 프레임(Frame)인데, 그 경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미래세대란 Future Generation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세대라는 의미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말할 때는 30년 정도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미래세대란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 속에서 삶의 다양한 영역들을 공유하는 세대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교육(Future Education)은 현 세대가 살아갈 시대를 위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9) 김도일, *미래시대·미래세대·미래교육*, 26.

제 1 절 현 세대의 트렌드와 미래교육의 키워드

1. 현 세대가 살아갈 미래시대의 트렌드

트렌드라는 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 내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김도일 교수에 의하면 성경이 기록한 한 사건을 통해 트렌드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³⁰⁾ 역대상 12장에 사울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돌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부족이 연합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잇사갈 지파인데, 성경에 이르기를 “잇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백 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대상 12:32)라고 한 것이다. 잇사갈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숫자는 적었지만 시세를 알았다는 것이다. 시세는 세상의 흐름 즉 트렌드를 안다는 것이고 행동지침과 원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현 세대를 교육함에 있어서도 트렌드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앞서 행하는 것이 된다. 앞서 행할 때 이끌어 갈 수 있다. 세상에 뒤처지는 교육은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다. 미래학자들이 미래사회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을 내놓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전망일 뿐 어느 누구도 정확무오한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 제공된 자료를 기반으로 향후 10년 안에 일어날 변화와 트렌드를 내다보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교회학교에서는 현 세대가 맞이하게 될 미래교육 키워드를 파악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날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급변하기 때문에 어떠한 예측마저도 빗나가기 일췌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앞서 분석한 교회학교 통계 자료들을 토대로 통찰하고 추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이다. 현 세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과거세대가 되며, 트렌드는 또 다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끊임없이 트렌드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현재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다음세대를 이끌어 가는 교회학교는 미래를 앞당기는 새로운 돌파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30) 김도일, *미래시대·미래세대·미래교육*, 38-39.

2. 미래교육의 키워드³¹⁾

김도일은 미래세대 트렌드 분석을 통하여 미래교육의 키워드로 7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세계화와 지역화, 개인주의와 군집주의, 고령화와 평생화, 컨버전스와 디버전스, 마음훈련과 행동훈련, 연결과 봉사, 자본주의와 영성주의 이다. 이것은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교회학교의 현장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왜냐하면, 교회교육이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 넓은 실천이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간 세대교육을 통해 세대 간 이해를 높이고, 다음세대와 어른세대들이 함께 성장해 가며,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세계화와 지역화이다. 세계화로 인해서 과거에 존재했던 나라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중심개념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한 현상이 양극화 현상과 다원화 현상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해 반동적으로 태동한 하나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지역화이다.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현 세대들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게 될 것이다. 한국적인 것으로 타문화권에 있는 세계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K-POP 스타들과 한류스타들이 그 예이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개인주의와 군집주의이다. 개인주의는 자신의 존재 확인과 이익을 위해 국가나 사회나 어떤 군집도 자신 외에는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주의를 말한다. 고도로 다원화된 탈현대 사회에서는 집단보다는 개인이 중시되고, 집단에 매몰되기보다는 자신을 찾고 느끼려는 경향이 강해지게 된다.³²⁾ 때문에 미래세대는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기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점점 극대화될 우려가 있다. 또 하나는 군집주의(swarm mentality)인데, 현 세대는 군집의 중요성 혹은 그러한 존재조차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로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개인으로서 이루어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이 땅에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협동과 상생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최신 트렌드를 연구하는 기관에서도 집단적 사고(collective mind)³³⁾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포괄적이고 많

31) 김도일, *미래시대·미래세대·미래교육*, 40-54.

32) 정재영, *한국교회, 10년의 미래*, 148.

은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함께 존재하는 창조적이고 유기체적이며 상호관계적인 만족과 행복감을 위해 군집주의적 사고와 행동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고령화와 평생화이다. 인구 구성비 변화추이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전체 인구의 20퍼센트가 고령인구인 사회)로 이행하는 데 155년이 걸린 반면, 한국은 단 26년 만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³⁴⁾ 2018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의 진입이 확실해 된다.³⁵⁾ 고령화 사회이든지 고령사회이든지 미래를 살아가게 될 세대의 운명은 고달플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노후를 준비한 노인들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며 노인기를 맞이한 노인들과의 삶은 커다란 차이를 보일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앞으로 사회복지, 노인보건, 노후보장 등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정치가들이 빼 놓을 수 없는 공약이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유지되려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여야 하는 데 이 또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책과 대안정책이 마련되고, 그것을 장·단기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보며 성장해가는 현 세대들은 전 세대와 다른 인생론과 미래 계획관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미래의 이노시즘에는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반영구적인 인공장기 혹은 자신의 즐거이세포로 배양한 새 장기로 대체해 주는 사업도 변창하게 될 것이다. 고령화와 평생화라는 두 단어가 시차를 두며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키워드는 컨버전스와 디버전스이다. 컨버전스는 융합내지는 복합을 의미한다. 디버전스는 컨버전스와는 달리 분기(分岐), 갈라져 나옴, 발산을 의미한다. 뜻하는 바는 어떤 개인 또는 기업, 국가도 혼자서는 설 수 없다는 것이다. 서로 협력 경영, 융합 경영을 하고, 교회도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는 융합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

33) Peter A. Gloor, and Scott M. Cooper, *쿨헌팅, 트렌드를 읽는 기술*, 안진환 역(서울: 비즈니스맵, 2008), 33.

34) 정제영, *한국교회, 10년의 미래*, 25.

35) 김현기, 정연승, 허원무, 배영준, *2018 인구변화가 대한민국을 바꾼다*(서울: 한스미디어, 2010), 86. 김도일, *미래시대·미래세대·미래교육*(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3), 40-54에서 재인용.

러나 미래세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끼를 발산하고 다양한 민족적 유산, 문화, 성향,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디버전스형 라이프스타일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퓨전을 하면 디퓨전(diffusion)을 늘 염두해 두어야 하는 세대인 것이다. 컨버전스형 트렌드가 뭉쳐서 자기의 개성을 집단개성화 하는 인투(into)형 스타일이라면 디버전스형 트렌드는 컨버전스를 통해 얻어진 기술습득과 배움을 통해 형성된 학습에너지와 새롭게 형성된 자신만의 개성 있는 에너지를 다방면에서 분출하고 발산하는 디스퍼스(disperse)형 스타일이다. 이와 같이 현 세대를 교육하는 사람이라면 컨버전스와 디버전스라는 균형 있는 양날개를 갖고 비상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마음훈련과 행동훈련이다. 교회학교는 현 세대들의 마음을 훈련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워드카드너도 미래마인드라는 책에서 미래를 살아갈 현 세대들에게 5가지 마음 즉 훈련된 마음, 종합하는 마음, 창조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윤리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마음훈련을 위해서는 뇌에 대한 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음은 뉴런(neuron, 신경세포)과 시냅스(synapse, 신경세포와 근육세포 사이의 신경 충격을 전달하는 주위)의 복합적인 활동으로 좌우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뇌는 100억 개 이상의 뉴런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냅스 숫자는 10조에서 100조 이상이다. 이는 지구상 모든 모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이다. 사람마다 마음이 복잡하고 다른 이유 또한 이들이 만들어낸 조합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³⁶⁾ 그런데 이 마음훈련과 행동훈련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1개의 세포가 다른 1만 개의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지적, 정서적 활동이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³⁷⁾ 소위 NLP(Neuro-Linguistic Programming, 신경언어 프로그래밍)는 자신의 무의식 세계를 살펴보고 무의식 속에 있는 마음 자체를 고쳐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것이다.³⁸⁾ 즉 NLP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일어나는 원리를 설명하고 어떻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다루는 심리 전략 프로그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하는 몸은 뇌의 지배를 받기에 최대한 밝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전달하는 것이 미래세대에게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마음과 행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

36) 이영돈, *KBS 다큐멘터리 마음*(서울: 예담, 2006), 32.

37) 전성수, *자녀교육혁명 하브루타*(서울: 두란노, 2012), 145.

38) 이영돈, *KBS 다큐멘터리 마음*, 140.

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가르치는 자의 사명이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연결과 봉사이다. 미래세대는 지구촌이 연대하고 협력해야 존재할 수 있다. 정치, 경제, 환경, 교육, 문화 등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미래세대가 꼭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타 문화권에 대한 진심어린 존중도 배우도록 해야 한다. 온 인류의 주인 되시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그리스도께서 가르치 주신 정신으로 봉사와 섬김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미래 시대를 살아갈 현 세대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키워드이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자본주의와 영성주의이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이 물질과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했다는 것과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세계에 대한 갈망함으로 인해 이 두 가지 관점이 긴장관계 혹은 상호보완의 관계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확장될수록 삶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편리해졌지만 인간은 거기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본질적인 인간다움에 목말라 했다. 때문에 인간의 내면을 채워줄 수 있는 절대적 신을 찾게 되어 있다. 이러한 찾음도 인간에게만 부여된 신비한 영적세계이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은 놀라운 영적 능력인 것이다.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실존능력 그리고 영성지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현 세대가 자본주의와 영성주의의 균형 잡힌 삶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교회학교에서 자라나고 있는 현 세대를 교육함에 있어서 트렌드를 이해하고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하게 될 때 훨씬 구체적인 교육적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며,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학생들로 세워갈 수 있다. 교사의 사명 중 하나가 학생들을 인도하는 것이다. 교사가 성장했던 시대적 배경과 자라고 있는 학생들의 시대적 배경은 다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생각이 과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학생들을 인도한다는 사명을 감안한다면 교사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3. 현 시대의 특징

현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 트렌드와 미래교육의 키워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회학교 다음세대들이 성장하게 될 미래의 토양을 먼저 내다보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과 방법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속해 있는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해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준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성장해 온 시대적 특징만을 고집할 수 없고, 학생들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시대적 특징과 흐름을 빠르게 이해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시대, 포스트모던시대, SNS시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문화시대

1990년대 이후부터 한국 사회에서 문화라는 용어가 서서히 유행하기 시작했고,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오늘날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사회문화이론³⁹⁾도 발달하였고 문화와 사회적 경험을 중요하게 다루기도 한다. 한국사회에 대중문화 시대가 도래 하게 된 사회적 변화는,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과 경제적으로는 소비지향적인 사회로의 전환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문화산업이 빠르게 확장해간 것과 동시에 대중의 소비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개개인의 문화적 욕구 충족은 주로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소비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레저, 스포츠,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 온라인 게임 등의 소비문화산업의 팽창으로 가능했다. 정부차원에서든, 민간차원에서든 누구나 문화로 소통하는 시대가 도래 하게 된 것이다. 어떤 면에서 대중문화는 공교육과 종교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중문화가 지닌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구촌에 피지고 있는 한류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한류란, “아시아

39) Laura E. Berk, *생애발달 I*, 이옥경 외 6인 역(서울: 시그마프레스, 2012), 30.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음악과 대중문화 콘텐츠 개발로 인해 붐이 일어나 외국에 전파되고 확산 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⁴⁰⁾ 근래에 가수 싸이(Psy), 소녀시대, EXO, 빅뱅 등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면서 한류는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대중문화의 흐름을 예견하는 문화 척후병 역할도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소위 판파라(삼류 또는 저급) 문화라고 불리던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사이의 퓨전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허물어져 가는 포스트모던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혼종(혼용)현상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상호 의존적인 쌍방향성이다. 포스트모던시대의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프로수머(prosumer)의 역할을 하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개진하고 불매운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문화 수용자의 역할과 비중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공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던시대의 공공문화는 개개인의 문화적 취향을 일깨울 뿐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들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을 새롭게 변화시켜나가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구지역화와 정체성을 지향하는 문화이다. 한류는 세계화의 연관 속에서 특히 문화의 지구지역화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류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다문화와 만나고 교류하면서 양자는 상대를 포용하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것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⁴¹⁾ 한류가 특정 나라의 문화에 들어가서 그것을 종속시키거나 예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흡수 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미래 대중문화는 주체자와 수용자와 사이에서 지구지역화와 정체성을 지향하는 문화적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다음세대들도 문화의 소비자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교회 안의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다. 설교자가 설교시간에 또는 교사가 공과시간에 아이돌 가수에 대해서 말하거나 또는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이름만 이야기해도 학생들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소비하고 있는 문화를 공감해 주고, 나아가서 이해해 주는 것을 원한다. 가르치는 교역자나 교사가 문화를 세상적인 것으로만 규정하거나 무관심 할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의 위험성과 긍정성을 성경적 차원에서 가르치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할 책임도 있

40) 김도일 외, *미래시대·미래세대·미래교육*, 87.

41) Ibid., 107-108.

는 것이다.

나. 포스트모던시대

포스트모던이라는 단어는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가 “역사의 연구”에서 서구 역사를 크게 암흑기, 중세기, 모던, 포스트모던의 네 시기로 구분한 것에서 유래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포스트모던이란 제1차 세계대전 또는 1870년대 이후의 세계를 의미한다.⁴²⁾ 그럼에도 포스트모더니즘을 규정하거나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실재를 밝히고 대변할만한 통일된 움직임이나 학파 또는 학문적 이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사회의 흐름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던은 근대와는 다른 문제와 도전을 기독교에 가져 온다.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는 다원주의이다.⁴³⁾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의 문제가, 이성주의에 입각해 문화와 사회를 획일화하는 세계관이 삶을 억압하고 비인간화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체 작업과 그 결과로 다원성에 대한 강조를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한다. 기독교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와 도전 또한 다원성에 입각한 종교다원주의이다. 이는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초월적 범주와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며 종교를 미학적 선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큰 문제는 독단적 다원주의이다. 둘째 상대주의이다. 상대주의는 진리에 상대적 국면이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신적 권위든지, 이성적 법칙이든지 절대성을 표방하는 것을 모두 배격한다. 상대주의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포스트모던적 상대주의는 상대성 자체를 궁극적인 것으로 절대시하고 규범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때로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혼합되는 혼합주의로 빠지기 쉽고 무기준, 무토대, 무원칙이 판을 치는 문화를 양산할 수 없는 우려도 있다.⁴⁴⁾ 이러한 문화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물질 즉, 돈일 것이다.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

42) 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 17. 여기서 인용된 책은 토인비 자신이 아니라 D.C 쇼머벨이 요약하여 출판한 ‘역사의 연구’임을 밝힌다.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서울: IVP, 2005), 14에서 개인용.

43)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236-237.

44) 고흥수 외, 21세기 한국 교회교육의 과제와 전망, 45.

을 수 있고, 자신의 향락과 쾌락을 위한 절대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세대가 추구해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양상을 띠는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과 젊은세대들의 신앙적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과 물질관으로 부장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는 구성주의이다. 다윈주의와 상대주의의 뿌리는 구성주의이다.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언어와 사회적 담론의 역할을 궁극적으로 여기는 구성주의 또는 비본질주의를 신봉한다. 구성주의는 삶의 모든 것이 자연적인 것이 아닌 역사적이며, 사회적 담론의 산물일 뿐으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극단적 비결정론이다. 이 이론은 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규범, 가치, 진리가 상당 부분 사회적인 담론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삶이 담론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삶이 주어진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 이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은 지적인 면은 의지적인 면으로, 이성적인 면은 감성과 감정적인 면으로, 도덕적인 면은 상대주의적인 면으로, 실체는 사회적 구성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대체시켰다.⁴⁵⁾ 이렇듯 새로운 포스트모던 세계관이 옛 근대주의적 세계관을 대치하고 있다. 이 결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포스트모던적 비그리스도인의 사상과 내용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를 만난 것이다. 때문에 다윈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그 뿌리가 되는 구성주의를 살펴본 것이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며, 이중적 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학생들이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우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신앙이 깊지 못할 경우에는 혼란스러워 한다. 또한 다윈주의가 팽배함으로 인해 절대적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을 상대적으로 이해하거나 고리타분하게 여길 수 있는 위험성도 늘 있다. 이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다음세대들을 흔들고 혼란하게 하는지 모른다.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성경적 가치관과 진리의 절대성을 바르고 확고하게 가르쳐야 하며, 믿음의 세대로 키워야만 한국교회 미래가 희망이 있게 되는 것이다.

다. SNS 시대

45)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252-253.

세계적인 미래학자이며 신학자인 레너드 스위트는 오늘날의 의사소통 기술을 가리켜 TGIF라고 말한다. 이 단어는 정보화 세대의 의사소통 수단인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의 이니셜을 사용하여 패밀리 레스토랑 이름을 빗대어 만든 것이다.⁴⁶⁾ 최근에는 페이스북,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온라인상에서 인맥을 형성하게 하고 인간관계까지 넓혀주는 데 도움을 준다. 사람들은 SNS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가 되며 소통을 한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국적도, 이념도, 문화도 뛰어 넘은지 오래이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언제든지 접속하여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교통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휴대폰으로 TV를 시청하고, 각종 영화와 음악도 다운로드 받아서 어디서든 보며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불과 30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이 지금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SNS 시대에도 빛과 어두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보 불평등의 문제도 심각하다.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빈곤층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사용이나 인터넷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로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정보화의 영향으로 사생활 침해가 늘어났다”는 문항에 응답자 절반 이상이 긍정의 대답을 하였다고 한다.⁴⁷⁾ 또한 휴대폰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왔을 경우에는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을 겪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 고립될까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실제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으면 불안해하는 핸드폰 금단현상과 과도한 중독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 도구가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많은 제약을 주는 것이다.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많이 저장할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그로인해 번호를 암기하는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네비게이션으로 인해 편리하게 목적지를 갈 수는 있지만, 반면에 사람들의 공간지각능력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이 인간사회에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인간 사이의 소통이 매체된 채 지나치게 인터넷 또는 SNS에 몰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미래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어두운 그림자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균형을 잃으면 안 될 것이다. 특히 교회에서 예배드림과 젊

46) 정재영, *한국교회, 10년의 미래*, 129.

47) Ibid., 134.

은이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적절한 매개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시대적인 요청이나 흐름을 무조건 세상적이라고 비판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명분만을 내세워 무비판적으로 교회가 수용하는 자세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국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학교에서도 적절하게 SNS를 활용할 경우 학생들과의 소통과 나눔이 활발해 질 수 있다. 이때 다음세대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과의 소통과 알림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즉시 나눌 수 있는 장점을 살려서 교육의 효과적인 장으로 활용한다면 주중 만남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교사는 시대적 상황에 민감해야 할 뿐 아니라, 이끌어가야 하는 사명자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로 낮아지심을 뜻한다. 교사들 또한 성육신의 자세로 다음세대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가야 한다. 미래 세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빛과 어두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통찰력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 2 절 현 세대를 위한 교육방안

1. 권위 있는 가르침

권위, 즉 authority는 라틴어 동사인 *augere*(증대시키다)와 명사인 *auctoritas*(권위 그 자체)에서 유래한다. 증대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과거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연속성을 세워간다는 뜻이다.⁴⁸⁾ 또한 희랍어 *exousia*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신약에서의 '권위(authority)'이다. 네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소유(*possession*), 인간(*person*), 장소(*place*), 결정적인 말이나 행위(*precedent*)이다. 즉 권위는 힘의 소유나 영향력을 나타내며, 권능을 행사하는 사람과 그 힘을 행사하는 법적, 도덕적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권위는 힘과 영향력이 행사되는 장소, 분야, 영역,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결정적 행위나 지지해주는 말이나 행위를 의미할 수 있다.⁴⁹⁾ 균형 잡힌

48) Robert W. Pazmino, *권위 있는 가르침*, 김도일·김정훈 역(서울: 디모데, 2002), 15.

49) *Ibid.*, 17-18.

바른 권위 행사에 있어서 최고의 본보기는 하나님 아버지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역과 권세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⁵⁰⁾ 첫째, 하나님은 온 우주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창조된 세상을 유지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이시기에 모든 권위의 근본이 되신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에 대하여 억압 또는 통제가 아닌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행하신다.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역설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권위와 자유를 행사하고 누리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는 인류를 위해 자유를 창조하시며 누리게 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권위 있는 인류 최고의 교사요, 교육자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서의 배움은 늘 새로울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는 하나님 나라에 확장에 맞추어 진다.⁵¹⁾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아 계시, 그리고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아 계시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권위의 근원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권위는 경이롭고 놀라웠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내용보다는 형식에 얽매이게 하는 율법을 가르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을 받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계시하는 자의 권위로 가르쳤기에 사람들은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권위(exousia)는 육신을 입기 전의 하나님의 아들, 즉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양으로 세상에 보내진 사실에 기반을 둔다. 즉 그의 권위의 토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위격이며, 구속과 화해의 사역 명령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이다. 그분의 권위는 신으로서의 본성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온 것이다. 셋째 성령은 교회가 권위 있게 가르치고 권위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예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신다. 성령은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예정이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유지하고, 양육하며, 인도하고, 촉구한다. 가르침의 측면에서 성령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지을 수 있으며, 기록된 말씀은 권위 있는 가르침의 근원이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성령의 권위는 성경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다. 가르침의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여하신 권위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권위는 가르치는 개인의 어떠한 것으로 생성될 수 있

50) Robert W. Pazmino, *권위 있는 가르침*, 22.

51) 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론*(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128.

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것이고 인정되는 것이다. 오늘날 시대는 권위 자체에 대한 부정과 인정이 떨어지고 있다. 교회학교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거나 없을 경우에는 학생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미래세대를 가르침에 있어서 권위의 회복은 절실하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영적권위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권위적이거나, 높고 낮음의 계급적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의 가르침은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준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자 혜택인 것이다. 교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권위를 부여받아 가르치는 사명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2. 관계로의 가르침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할 정도로 관계는 뿌리요 근본적인 것이다.⁵²⁾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한 사람이 출생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성장을 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양육되어지며, 그 결과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다. 이처럼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 존재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생존을 위한 기반이 되고 모체가 되는 것이다.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정, 학교, 사회, 교회, 온라인 공간 모두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장이고, 관계의 공간이다. 키에르케고어(Soren Kierkegaard)는 인간을 하나님과 피조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자기관계성을 지닌 존재로 이해하면서 관계적 인간이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람은 영이다 그러면 영은 무엇인가? 영은 자기(the self)이다. 그러면 자기는 무엇인가? 자기는 관계(a relation)이다. 즉, 자기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연결시키는 관계이다. 사람은 일종의 종합(a synthesis)인데, 무한과 유한, 영원과 시간, 자유와 필연성의 종합이다. 종합은 두 요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사람은 자기가 아니다. 두 요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관계’는 제3의 요소로서 일종의 부정적 연합(negative unity)이다. 두 요소는

52) 김도일 외, *기독교교육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곱주제*(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9), 125.

제3의 요소인 관계에 자신들을 관계시킨다. 사람을 영혼(a soul)이라고 간주할 때, 그러한 관계는 영혼과 육체 사이의 관계이다. 반면 관계가 그 자신에게 자신을 관계시킨다면, 그 관계는 긍정적인 제3의 요소(a positive third term)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이다. “자기”가 다른 제3자에 의해 구성된다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나타낸다. 즉, 인간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세우거나 스스로의 힘에 의해 평형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오직 모든 관계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관계시킴으로써 설 수 있고,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을 자기 자신에게 연결시킴으로써, 그리고 스스로 기꺼이 자신이고자 함으로써, 자기는 자기를 세워 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투명하게 기초된다.⁵³⁾

케에르케고어(Soren Kierkegaard)의 관계적 인간 이해의 핵심은 인간이란 유한과 무한, 필연성과 가능성, 육체와 영혼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동시에, 이러한 두 축 사이에 역동적 균형을 유지해 나가도록 특별히 지음 받은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가치는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정체성과 존재가치가 확립되며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형성된다. 이런 면에서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하며 회심과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경로와 만남을 학생들에게 안내, 사랑, 격려, 축복, 지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 자신이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성경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당연히 가르치는 사역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복자, 상담자, 안내자, 멘토, 스승, 신앙의 선배, 코치 등의 역할이다. 교사와 학생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로 시작되지만, 학생들이 성장을 해 감에 따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양방향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사도 학생에게 배울 수 있고, 학생도 교사를 통해 신앙적,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가르침을 받게 된다. 교사가 학생과의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안에서 배풀어지는 인격적, 신앙적 관계가 형성되면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관계가 주는 힘은 지속적이고 오래토록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사람

53) Soren Kierkegaard, *Fear and Trembling*(New York: Doubleday, 1954), 49f. 김도일 외, *기독교교육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곱 주제*(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9), 133-134에서 재인용.

의 존재를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한 관계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다음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관계를 통한 가르침에 힘써야 한다.

3. 사랑으로의 가르침

구약성경에서 사랑(Love)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히브리어로 표현된다.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로는 명사 헤세드(hesed)와 동사 아헤브(aheb), 명사 도드(dod)와 라야(raya), 그리고 형용사 야디드(yadid) 등이 있으며 흔하게 사용되지는 않지만 영어로 좋아함(liking), 애정(affection), 우정(friendship), 충성(loyalty), 애착(attachment)로 해석되는 동사 하사크(hasaq)도 있다. 헤세드(hesed)는 구약에서 흔한 명사(대략 250번)로서 때때로 “친절함”(kindness)을 나타낸다. 그러나 가장 빈번하게는 70인 역에서 제시되는 것으로서 “자비”로 번역된다.⁵⁴⁾ 헤세드는 신학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계신 성품인 헤세드와 인간과의 상호작용 안에서의 헤세드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관계를 표현하는 핵심용어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이 용어는 새 가지 차원, 즉 약속, 필요를 위한 준비, 자유를 간절하게 통합한다. 헤세드의 종교적 사용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인간의 사랑(hesed)과도 관련된다. 약한 자와 소외당한 자에 대한 배려와 그들을 돕는 사랑으로 표현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휼함을 입을 때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한 올바른 관계형성은 모든 창조 안에 있는 평화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회복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구약성경 면면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흐르고 있으며, 그 헤세드가 이스라엘을 지속하고 유지하도록 해 주었다. 즉 헤세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성장을 돕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레지 조이너(Reggie Joiner)도 타인의 영적성장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다섯 가지 중 하나를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⁵⁵⁾ 즉 사랑을 말하였다.

54) 김도일 외, *기독교교육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곱주제*, 152.

55) Reggie Joiner, *싱크 오렌지*, 김희수 역(서울: 디모테, 2011), 206.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사랑’은 아가페와 필레오 어족이 지배적이다. 이 가운데 헬라이 동사 아가파오(agapao) 즉 ‘사랑하다’와 관련된 명사 아가페(agape), ‘사랑’은 신약성서에서 흔하게 사용된다. 아가페 어족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과 그 정체성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용어이다. 또 다른 용어인 헬라이 동사 필레오(phileo) ‘사랑하다, 사랑에 빠지다’가 있다.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의 다양한 합성어로 필라가토스(philagathos) ‘선한 것을 사랑하기’, 필리오테오스(philothéos)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필로테크노스(philoteknos) ‘어린이를 사랑하기’ 등의 의미를 갖는다. 동사 아가판(agapan)은 요한복음에서 35번, 요한일서에서 28번 나타난다. 명사 아가페(agape) ‘사랑’은 복음서에만 7번, 서신서에서 18번 나타난다. 동사 필레인(philein) ‘사랑하다’는 요한복음에서 13번 나타난다. 요한복음의 메시지의 기본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다.⁵⁶⁾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인 성품이시기에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는 인간의 사랑을 이끌어 낸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창조적인 사랑을 열어 가지며, 그 사랑이 이웃에게 보여 지도록 이끌어 주신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면, 그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며 그것이 예수의 제자를 구별하는 것이 된다. 다음세대를 가르침에 있어서 이 사랑의 원칙과 원리가 필요하다. 때로 하나님은 사랑을 명령하신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형제 또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요한1서 4장 21절)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포함한다. 사랑은 인격적 관계이며, 무조건적이며, 상황과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음세대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이 원리를 가지고 학생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더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리에 깔려 있는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존재로는 실천하기 불가능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실천해 내야 한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포기는 사랑을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된다. 다음세대들이 학교와 가정 등 자라나는 환경을 통해서 받게 되는 상처, 낮은 자존감, 비난, 열등감, 피해의식, 스트레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56) 김도일 외, *기독교교육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곱주제*, 161.

같은 문제들을 피하거나 도피하게 하지 않고 직면하게 하며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준다.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가르침은 학생들의 존재 의미를 일깨워주며, 자신의 존재를 넘어 타인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해 준다. 이처럼 가르치는 교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적이고 인격적이며 그리고 넘치는 사랑으로 학생들을 대할 때 그 자체로 상처의 치유와 자존감, 열등감 등이 회복될 것이다.

4. 영성으로의 가르침

영성(spirituality)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내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성품, 성질, 혹은 성향을 가리키며, 라틴어 spiritualitas 는 비물질적인 본질 혹은 내적인 영적 본질을 의미한다.⁵⁷⁾ 영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앨리스터 맥그레스(Alister McGrath)의 정의는 포괄적으로 이해를 도우며 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독교 영성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전 인격적 탐구이다. 또한 기독교의 근본적인 개념들을 삶과 연관시키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범위와 규범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인 경험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태도이다.⁵⁸⁾

내용의 핵심은 기독교 영성은 존재에 대해 탐구하는 것과 삶의 총체적인 경험이라는 것이다.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거룩한 성품을 추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추구의 과정 가운데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동시에 외적으로는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사명과 위치를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섬김과 봉사를 통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워드 헨드릭스(Howard G. Hendricks)는 교사가 성장을 멈추면 내일 가르침을 멈추어야 한다고까지 말한다.⁵⁹⁾

57) 김도일, *온전성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1), 64-65.

58) Ibid.

59) Howard G. Hendricks,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서울: 생명의말씀사, 2011), 15.

그렇다면 영성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 있다. 비교적 낭만주의 견해를 가지고 있던 자유주의 기독교학자들은 신앙을 가르칠 수 있다고 했고, 반대로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여 신앙은 전적인 은혜에 기인한 하나님의 선물어기에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처럼 영성을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입장을 균형 있게 취하는 통합적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즉, 가르치는 사람은 영성 그 자체를 가르쳐서 얻게 하거나 줄 수는 없어도 영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혜를 사모하게 하며 영성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배우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영성을 가르친다는 것은 최종적 결과물(product or being)로서의 영성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process or becoming)으로서의 영성적 삶을 이끌어 가도록 돕는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⁶⁰⁾ 영성으로 가르침을 할 때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 공동체적 차원이 있다. 온전한 영성교육을 위해서는 둘 다 고려해야 한다. 즉 내면의 수련들(묵상, 기도, 금식, 공부 등)과 외면의 수련들(고독, 순종, 섬김, 봉사 등) 그리고 공동체 훈련들(예배, 합심기도, 대외 봉사 등)이다. 이와 같이 교사는 적절하게 영성의 방법들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여 실천함으로 얻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하며, 영성적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한다. 때로는 가르침의 말보다 삶의 영성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더 깊은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다. 교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 즉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관계를 깊이 형성해감으로 얻어지는 영성은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영성은 학생들의 영적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준다. 교사 스스로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때 영적 안정감을 얻게 될 것이고, 가르침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게 될 것이다.

5. 공감과 경청으로의 가르침

공감(共感)은 한자어로 직역하면 “함께 느낀다”라는 의미이며, 경청(傾聽)은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공감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60) 김도일, *온전성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 69.

존재하지만 크게 행동적 관점, 성격적 관점, 체험된 정서적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⁶¹⁾ 행동적 관점은 공감을 길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객관적인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성격적 관점은 공감을 정서적인 것보다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지속적인 성격 또는 성향으로 이해한다. 즉, 이때의 공감은 개인의 관점이며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죄책감과 수치심의 문제⁶²⁾에 부딪치게 된다. 이 때 교사는 가장 먼저 학생들을 공감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잘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회피하거나 단절되지 않고 그리스도안에서 직면하도록 하여 회복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서적, 신학적 차원에서 이해는 다음과 같다. 공감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전지전능하시므로 고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무한한 사랑과 자유 가운데서 피조물을 창조함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까지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공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하여 공감하는 인간의 원형적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공감의 능력을 갖도록 해주고 이것을 유지하게 하고 더욱 성숙하게 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과 존재방식에 나타나는 공감은 인간들이 지향해야 할 공감의 삶과 공동체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교사에게는 이와 같은 가르침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진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도록 도전을 주고 함께 동행 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작은 소리에도 경청해 주시는 것처럼 교사 또한 학생들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동등하게 공감해 주며 경청해 줄 때 관계 형성은 물론 교사와 학생이 하나가 되어 신뢰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될 것이다.

61) 김도일, *온전성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 179-180.

62) Donald E. Capps, *인간발달과 목회적 돌봄*(서울: 이레서원, 2002), 123.

제 4 장

간 세대 교사교육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

4장에서는 간 세대 교사교육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 데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침체하고 있는 한국교회 교회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을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밝혔다. 그렇다면 교사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중요할 것이다. 교사들은 현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트렌트와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다음세대들을 앞서 인도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 교회학교를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 논문은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다양하게 나와 있으며, 실시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교회학교 현실을 들여다보면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다양한 교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규모가 작은 교회는 교사가 없거나 있어도 교육할 예산이 없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어느 한 쪽을 위한 교사교육은 더 이상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규모가 큰 교회를 위한 또 다른 교사교육을 대안으로 내놓기보다는, 규모가 작은 교회도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규모가 큰 교회도 새롭게 적용해 볼 수 있고, 규모가 작은 교회는 오히려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간 세대 교사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 1 절 간 세대 기독교교육의 필요성

기독교교육은 “모든 세대로 하여금 영적공동체에 속하게 하며, 그 공동체의 신앙과 사랑에 함께 동참하도록” 돕는 의도적인 행위이다.⁶³⁾ 즉, 영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

도록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영적 공동체 안에서 세대 간의 소통과 대화 그리고 연결은 점차 단절과 분리 그리고 불통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교회교육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한국교회가 성장해 오면서 교회학교는 부서를 점차 세분화했다. 즉,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 청소년, 청년 그리고 성인세대를 분리한 것이다. 예배도 분리해서 드리고, 모든 신앙교육도 따로 해 왔다. 학습자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한다는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점차 침체하면서 교인 수가 줄어들었고, 그에 따른 교회학교 학생 수도 점차 줄어들었는데 성인 수 보다 더 급격하게 교회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 교회학교가 통폐합되고, 심지어는 학생이 없어서 교회학교가 없어진 교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형편이다. 학생이 없으니 교사도 없는 것이다. 일반적인 교사교육은 조직과 예산 그리고 학생들을 학년별 또는 연령별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교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이러한 교사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는 아닐지라도 한국교회 안에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는 절반을 넘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작은 숫자의 학생들이 출석하는 교회는 수 없이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부터 큰 대형교회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교사교육의 형태가 필요한 것이다. 간 세대 기독교교육은 예배와 교육 그리고 양육에 있어서 성인과 아동,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영적 경험과 실천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1. 간 세대의 정의와 목적

간 세대교육이란 여러 세대 간의 단절과 분리를 극복하고 동시에 신앙의 공동체성 회복과 성숙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 자녀세대, 부모세대, 조부모세대 등과 같은 상이한 세대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간 세대 교육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루스 맥도

63) Margaret A. Krych,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교육*, 이규민 역(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40.

웰(Ruth McDowell)은 간 세대교육이란 “두 세대 또는 그 이상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아동, 청소년, 성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계획된 일대일의 나눔과 의사소통에 참여할 때” 이루어진다. 맥도웰은 간 세대(intergeneration)라는 용어의 접두사에 해당하는 inter라는 단어는 사이(between), 가운데(among), 더불어(together), 상호 호혜적(mutually reciprocal), 연결(bridge) 등과 같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⁶⁴⁾ 찰스 포스터(Charles Foster)는 “간 세대교육은 적어도 두 세대, 연령 그룹 또는 보다 적절하게는 세 세대, 연령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이 경험과 삶의 자리를 통하여 서로 주고받는 교수-학습 과정에 함께 하는 것”으로 본다.⁶⁵⁾ 정웅섭은 학습의 장, 주제, 내용 등의 동일성을 강조하면서 간 세대교육을 “신앙공동체 안에서 다른 연령 그룹 사람들이 공동 경험의 교류, 수평적 학습, 상호적인 나눔과 협력을 통해 믿음 안에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정의한다.⁶⁶⁾ 제임스화이트(James W. White)는 간 세대 종교교육(intergenerational Religious)을 “연령층이 다른 두 세대 또는 그 이상의 연령 그룹이 신앙공동체 안에서 공동경험(in-common experience), 평행 학습(parallel-learning), 서로에게 기여하는 계기(contributive occasions), 상호대화를 지향하는 나눔(interactive-sharing)을 통해 신앙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⁶⁷⁾ 위와 같은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간 세대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세대가 참여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공동의 학습내용과 주제를 나누며, 세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의 신앙 성장을 지향하는 교육모델임을 알 수 있다. 간 세대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안의 모든 세대가 분리되지 않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영원한 교제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실천함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정웅섭은 간 세대 기독교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목적을 4가지 차원으로 말한다.⁶⁸⁾ 첫째는 교육 참여자들로 하여금 세대와 세대사이의 관계의 질을 높이도록 돕는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란 신앙을 통해 서로 호환하는 영적 성장을 말한다. 둘째는, 학습자들이 의미 있는 인지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반적으로 인지적 학습이란 인지적 과정을 통해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가

64) 장신근, *공직신앙을 양육하는 교회와 가정교육*(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1), 308.

65) Ibid.

66) 정웅섭, *현대 교육목회의 전개*(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177.

67) 장신근, *공직신앙을 양육하는 교회와 가정교육*, 308-309.

68) 정웅섭, *현대 교육목회의 전개*, 177.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즉, 간 세대 간의 공동체성을 통해 신앙적 자세와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학습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학습자들이 전인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전인적 차원이 중요하다.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를 다음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어른들이 다음세대를 격려하고 품어주는 사랑을 경험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된다. 넷째는 신앙공동체의 모든 회중이 기독교적 삶의 양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앙공동체 안에서 타인을 사랑하고 이해하도록 해 주며 다른 사람의 생활을 건설적으로 도와주고, 다양한 연령과 개인의 다양한 은사들이 함께 어우러져 흥미로운 분위기가 조성된다. 진리 안에서 생명의 가치, 믿음, 소망, 사랑 등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다.

2. 간 세대 기독교교육의 필요성

가. 상호적 영향을 주고받는 신앙공동체의 형성

간 세대교육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 함께 배우고 나누며 실천하는 “상호적(mutual)” 신앙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 중요하다. 전통적인 교회교육의 구조에서 주체는 언제나 성인이다. 그리고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은 교육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 이러한 이원론적 생각과 구조는 교육이 지닌 상호성(mutuality)을 간과하기 마련이다. 교육의 대상과 주체를 구분해 놓고 일방적인 시각으로 교육하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회교육은 어떻게 하면 성경 본문과 대화⁶⁹⁾가 이루어져 서로를 듣고 서로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끊임없이 묻고, 상호간의 삶과 그에 따른 배움의 내용을 함께 교육하고 나누며 동시에 교육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지만 그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된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교사도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삶이 필요하며, 배우는 학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 서야 한다. 동시에 교사

69) Charles F. Melchert, *지혜를 위한 교육*, 송남순·김도일 역(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29.

와 학생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성장하고 자란다. 상호성은 공동체의 성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관계가 많아질수록 영적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 지며, 영적 친밀감을 누리게 된다. 이처럼 간 세대교육의 상호성은 교사와 학생간의 필수적 요인이다.

나. 가정의 적극적 동참

간 세대교육은 가정에 많은 관심을 둔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교회교육에서는 가정과의 연계성 내지는 가정과 함께하는 교육의 내용은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주일날 설교나 공과를 통해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 나누거나 반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지 못했다.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거나 소통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른 간 세대교육은 신앙형성에 있어서 교회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가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교회와 가정 모두가 신앙공동체로서 상호 작용하고, 협조하고, 소통하며, 함께 할 때 올바른 신앙형성이 이루어진다. 교사는 교회와 가정을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의 영적 성장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정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학생들의 부모들이 교회에 다니거나 우호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불신자 부모라 해도 자신의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며 관심을 갖는 교사를 멀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때에는 신앙적 소통은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며, 자녀의 전도를 통해 부모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도 많이 볼 수 있다.

다. 작은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교육모델

간 세대교육은 500이하의 교인이 한국교회 전체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규모 상 작은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교육모델이다. 물론,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케런 타이(Karen Tye)⁷⁰⁾에 의하면 수적으로 작은

70) Karen B. Tye, *Christian Education in Small Membership Church*(Nashville: Abingdon Press, 2008), 101.

교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⁷¹⁾ 첫째, 작은 교회는 대형교회에 비하여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이 강하다. 둘째, 작은 교회는 가족이 확대된 것처럼 관계의 친밀감, 수용, 관용, 책임 정신이 강하며, 가족과 같이 세대 간의 상호작용이 용이하다. 셋째, 작은 교회는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넷째, 작은 교회는 교회의 여러 예배와 활동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많으며, 참여율 또한 높다. 다섯째, 작은 교회는 조직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여섯째, 작은 교회는 예배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작은 교회가 지닌 여러 가지 특징을 보면 간 세대교육을 함에 있어서 개별성과 익명성이 강조되는 대형교회보다 매우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수직으로 성장하여 대형화되면 면대면의 친밀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어려울뿐더러,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누구 누가인지 잘 알지 못한 채 다니기 마련이다. 상대적으로 간 세대교육을 통해 작은 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보완되고 실천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면대면으로 친밀감을 높이고 함께 봉사하고, 나누며, 교육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형성에도 매우 유리하다. 작은 교회일수록 예산과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그러나 교회학교 학생이 한명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교육의 주체가 되고 학습자가 되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작은 교회는 교회교육의 주체가 학생 대 학생이 될 수 있으며, 청년과 학생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간 세대교육이 지양하는 교육의 형태와 구조가 작은 교회일수록 실천하기 쉽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 교회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그리고 통폐합되고 있는 교회학교 실정에 상관없이 실시되는 천편일률적인 교사교육은 그 효과도 미미할뿐더러, 전 세대를 아우르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간 세대교육을 잘 적용한다면 작은 교회일지라도 친밀한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다.

제 2 절 간 세대 기독교교육의 형태 및 실제

1. 간 세대 기독교교육의 여러 형태

학자들에 따라서 간 세대의 기독교 모델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루스 맥도웰

71) 장신근, *공적신앙을 양육하는 교회와 가정교육*, 299-300.

(Ruth McDowell)은 간 세대 기독교교육의 형태를 기간에 따라서 일회성 행사, 연구 시리즈, 연중 진행되는 연구(year-round study) 등 3가지로 분류하는 데 이것은 가정과 교회를 연계하고 간 세대교육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⁷²⁾ 조지 켈러(George Koehler)는 간 세대 학습 유형을 경험-성찰 모델, 개별화 모델, 대화 모델, 발표-성찰 모델, 워크숍 모델, 행동 모델 등으로 분류한다. 이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교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9가지 형태의 간 세대교육을 제시하는데 이것을 토대로 교회학교 적용점을 찾아보자.

<표 1> 9가지 형태의 간 세대교육

9가지 형태	교회학교 적용점
계절 단위의 간 세대 단원	고난주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간 세대 절기에매
간 세대 성경학교	새 학기 준비, 여름성경학교
하나의 단원으로 진행되는 간 세대 교회학교 학급	학교 학급체계를 뛰어넘는 통합적 편성
간 세대 선택연구	장년, 청소년, 어린이세대를 연합하여 편성
간 세대 입교반	신앙교육의 기초가 되는 입교 과정을 장년이 함께 준비하면서 도와 줌
간 세대 철야학습 어드벤처	금요기도회를 간 세대가 연합하여 진행
가족교육 프로그램	평일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야외로 이동
간 세대 교제-학습의 밤	신앙적 주제 또는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들을 장년과 다음세대가 함께 나눔
한번의 수업으로 진행되는 간 세대 학습 이벤트	진로, 미전, 꿈, 직업, 학업, 관계 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진행 함

마가렛 바이쉴트(Marguerite R. Beissert)는 교수학습의 형태 또는 교수 매체의 선택이라는 시각에서 간 세대 교육 모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⁷³⁾ 첫째, 하나의 특정한 공통적 주제에 관하여 모든 참가자들에게 강의 또는 자료를 주어 그것을 기초

72) 장신근, *공적신앙을 양육하는 교회와 가정교육*, 310-311.

73) 정웅섭, *현대 교육목회의 전개*, 205.

로 하여 공동작업을 전개시키는 방법인데, 이것을 제임스 화이트(James W. White)는 공동으로 참여하여 일어지는 중요한 경험으로 말한다.⁷⁴⁾

둘째, 교차 연령 그룹의 나눔 학습으로 진행 또는 그룹에 의한 단일 주제에 관한 작업에서 얻어진 최상의 결과를 가지고 여러 하위 그룹들이 이것을 나누는 학습법 셋째, 학습 센터 접근법인데 이것은 학습자의 흥미, 관심, 필요, 정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며 이를 결론 부분에서 통합하는 학습법이다.

2. 간 세대 기독교교육의 실제

위에서 언급한 간 세대 학습 모델들을 참고하여 3가지 모델을 실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예배와 교육의 통합 모델이다. 에버네디(W. Abernethy)는 “3막으로 구성된 예배”를 제안했다.⁷⁵⁾

- 단계 1: 경험의 단계인데, 모든 연령층 학습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와 학습을 통해 공동의 경험과 삶을 나눈다.
- 단계 2: 가르침의 단계인데, 노소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학습 상황에서 연령적 특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활동을 심화한다.
- 단계 3: 다시 모든 참여자가 함께 모여 연령층별로 정리한 것을 함께 나누며 정리하고, 그 의미를 축하하는 축제를 갖는다.

위의 모델에는 다음과 같은 배려가 있다. 적절한 활동의 시간 고려와 시기의 적절 그리고 실험과 경험을 위한 충분한 시간의 확보이다. 또한 참여와 관여의 깊이의 고려, 전인의 의미 강조, 진행 순서 계획의 철저함, 적절한 지도력의 고려, 헌신과 결단의 의미와 자세이다. 오늘날 교회학교에서의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넬슨(Nelson)도 신앙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의해서 소통이 되고 서로의 삶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사건들과의 관계에서 개발되어 진다고 했다.⁷⁶⁾

74) James W. White, *Intergenerational Religious Education*(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8), 26-27.

75) 정웅섭, *현대 교육목회의 전개*, 210-211.

76) C. Ellis. Nelson, *Where Faith Begins*(Knox Press, 1967), 10.

예배의 기획부터 전 세대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획을 하는 것이다. 찬양인도, 교독문, 성경낭독, 대표기도 같은 경우에는 장년과 다음세대가 함께 순서를 나누어서 맡을 수 있다. 교독문 같은 경우에도 장년과 다음세대가 번갈아가며 교독 할 수 있고, 대표기도 또한 어린이가 할 수 있다. 다음세대는 예배 안에서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순서를 맡게 됨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영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절기에배를 통해서 더욱 공동체가 견고해 질 수 있다. 절기에배를 위한 절기교육⁷⁷⁾은 일방적인 정보습득만이 아닌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성만찬 순서를 마련하여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며 교제할 수도 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어른세대와 다음세대가 소그룹을 하며 교제할 수 있으며, 전체가 다시 모여서 소그룹의 내용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한다면 예배와 교육의 통합 모델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특별행사이다.⁷⁸⁾ 대부분의 교회는 참여와 신앙생활의 재미와 유익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 특별행사를 열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성인중심이다. 전교인 체육대회의 경우에도 유치, 유년, 중·고등부는 게임의 순서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주변인처럼 따로 노는 경우가 많다. 간 세대에 의미를 둔다면 게임 종목도 3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배치하고, 새신자와 인도자, 교회학교 어린이와 장로, 권사, 집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과 순서를 개발해야 한다. 행운권 추첨이나 선물 배부 등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어린이나 중·고등학생에게 맡겨서 그들도 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모든 교인 즉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일한 시간, 장소, 목적으로 모여서 연합 캠프를 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여러 교회가 시도한 바 있으며,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많이 실시했던 모델이다. 그러나 요즘은 잘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함께 연합하고, 충분한 시간 내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주말 또는 겨울과 여름을 활용해서 캠프를 할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캠프는 그 목표에 따라 다양한 내용들을 초점에 둘 수 있다. 종교적·신앙적 공동체 형성, 바람직한 놀이와 삶의 재창조, 영적 삶의 증진, 봉사 작업 활동, 기독교 유적지 순례와 신앙 계승, 예술 활동을 통한 신앙적 삶의 표현 등이다. 여름과 겨울에 주로 교회학교 주관으로 성경학교

77) 황병준, *미래교회 트렌드*(서울: 올리브나무, 2014), 149.

78) 신현숙, *전교인 예배가 행복하다*(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3), 41.

와 수련회가 있게 된다. 부모와 떨어져서 세대별 캠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간 세대교육의 모델을 따른다면,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2박3일 또는 3박4일 지내는 연합캠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짧은 시간 안에 간 세대와의 영적 교류가 활발해지며 가족 간의 영적관계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 5 장

참된교회의 역사와 교회학교 현황

제 1 절 참된교회의 역사와 담임목사의 목회철학

참된교회는 한국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하던 시기인 1987년에 복된교회에서 분립 개척된 교회이다. 당시 박창하 목사와 100여명의 성도들이 지금의 부천시 소사구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 참된교회는 양적인 성장에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경적 목회철학에 따라 분립개척의 지속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모이는 성도들 또한 이러한 교회의 정신을 존중하여 분립·개척에 동참하게 된다. 교회학교의 역사 또한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 건강한 성장을 지속하게 되었다. 하지만 거의 매 년 분립 개척교회가 세워지게 됨으로 인해 교회학교는 부모들이 개척된 교회로 옮기게 될 때 함께 이동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도 겪게 된다. 참된교회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면서 현재까지의 성장과정을 교회학교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단, 교회학교가 성장해 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참된교회 20년사에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쓰고자 하며, 2대 담임목사의 부임으로 인한 교회학교의 다양한 변화와 성장해 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쓰고자 한다.

1. 참된교회의 역사⁷⁹⁾

가. 1대 박창하 목사

(1) 교회의 태동

박창하 전도사의 과수원교회(복된교회의 전신인 북부천교회)개척과 순교적 헌신

79) 박창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참된교회 20년사(1987-2007, 2008)*, 156-162.

의 밑바탕위에 부천에서의 목회사역 시작과 이어지는 복된교회로의 개명(改名)과 부흥 그리고 성장, 복된교회당 헌당기념 예배에서 결의된 분립과정에서 참된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다.

(2) 개척기(1987-1989)

참된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부천노회 소속의 교회로서 1987년 11월 23일 첫 개척예배를 드렸다. 참된교회의 개척과정에는 매우 독특한 역사가 있다. 복된교회의 헌당기념으로 교회 분립을 결의하고 어떤 목회자를 파송할 것인가를 기도하던 중 복된교회의 위임목사인 박창하 목사가 몸소 분립개척에 주저 없이 앞장서게 되며 이미 안정된 기존의 평안함을 뒤로 한 채 107명의 성도가 분립개척에 동참하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결단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통해 오늘의 건강한 교회의 모범이 된 것이다.

(3) 발전기

부천지역은 한국 경제의 획기적 발전과 시기를 함께 한다. 예전 소사라는 지명과 북송아산지로 유명한 부천은 경인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산업단지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한다. 당시 부천지역은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도 인천지역으로 다녔으며(1975년 인천지역 평준화 1회 시행 때 부천지역 중학교도 인천으로 배정) 모든 경제활동이 주로 서울이나 인천에 종속되어 있는 베드타운과 같은 기능을 할 때였으며 과수농사를 주로 한 농업과 가내공장 등이 많았다. 1973년 부천시로 승격과 함께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의 유입, 경인지역 경제블록화는 가히 폭발적인 지역 팽창을 가져 오게 된다.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듯 지역의 발전과 경제활동의 증가는 교회의 성장과 맞물려 간다. 이런 현상은 부천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1973년 시승격 때 인구는 65,080명이었던 주민등록 인구수가 1992년에는 70만을 돌파하였고 2015년 4월 기준으로는 853,162명이다. 이렇듯 숨가쁜 상승곡선을 짓던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 신도시의 개발과 사회 SOC확충 등으로 이어지며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여러 사회적 발달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게 되었고 북부천교회와 복된교회로, 이어지는 참된교회의 개척은 이렇듯 급변하는 사회적 팽창기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4) 도약기

초창기 참된교회가 송내지역에 들어설 때는 거의 버려진 땅이었으며 교회 앞은 진로소주의 주정공장이었다. 교회는 주변 건물을 임대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비록 교회 주변 환경이 열악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교회는 점점 성장해갔다. 주변환경과 상황도 급속하게 바뀌어 갔다. 교회 옆 경인전철 중동역의 신설과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 및 중동신도시의 건설이 시작된 것이다. 그와 더불어 교회 앞 진로소주 주정공장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으며, 교회 옆 공한지에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교회가 존재함으로 주변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지역 인프라의 확장과 변화는 참된교회의 부흥에 밑거름이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교역자들의 헌신 그리고 성도들의 눈물과 섬김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된 것이다.

(5) 성숙기

1987년 부천시 송내동 396-2번지의 2층 임대교회에서 시작된 참된교회는 이듬해인 1988년 1월 4명의 교역자(전도사)가 부임을 했고 동년 6월2일에는 성전대지 175평(송내동 400-27)을 계약하였으며 7월30일에 현재의 교회당이 위치한 대지(송내동 365-4)와 맞교환하게 되며, 9월에 성전기공 분립개척의 어려움 가운데서 불과 1년 안에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참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1989년 3월26일 참된교회의 역사에서 중요한 시작인 분립개척의 첫 사역이 믿음교회 개척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교회의 내적 성숙과 열정적인 전도로 교회는 부흥을 거듭하여 매년 300명씩 출석교인이 증가하게 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는 1992년 영락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만사운동”을 결의하였다. 만사운동이란 당시 통합측 교단 교회 수가 전국적으로 오천여교회, 신도 수가 약 이백만이 었다. 향 후 20년 동안(1992년에서 2012년까지)매가 운동하여 일만교회, 사백만 성도

운동을 펼쳤던 것이다. 만사운동본부계획에 의하면 참된교회는 향후 20년 동안 20개 교회를 분립개척 하라는 것이다. 이 공문을 접수한 참된교회 당회는 이렇게 결의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향후 20년 동안 분립개척 하라는 것을 향후 10년 동안 20개 교회를 분립·개척하라는 것으로 잘못 오해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두 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노력하여 네 달란트 받음으로 칭찬을 받았는데, 참된교회도 향후 10년 동안 20개 교회를 분립·개척하라 하였으니 더 열심히 하여 40개 교회를 분립개척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겠는가 하면서 실행을 결의한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1년에 4개의 교회를 분립·개척해야 하는 계산이 나온다. 그리하여 꼭 백점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자 하여 2015년 지금까지 51개의 분립·개척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근거리 지역으로 시작하여 1995년 정읍참된교회와 포항참된교회의 개척으로 참된교회의 분립개척은 지방으로 이어졌으며 같은 해 11월30일 참된교회 또 하나의 선교지침인 군선교의 첫 사역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열 번째 분립개척인 충만교회의 창립이다. 충만교회는 육군 제5사단 205포대에 세워진 군인교회로서 군목이 아닌 민간인 목회자에 의한 설립으로 한국교회의 군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사역이었던 것이다. 1997년에는 참된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이어지는 3월에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이자 옛 소비에트연방 당시의 수도인 알마아타(현 지명 알마티)에 시온교회 성전을 기공하게 되며 2005년에는 해외인 미국 뉴욕에 뉴욕 참된교회도 설립하게 된다. 2003년에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영상고등학교(옛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를 인수하여 학교법인 영상학원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2005년에는 지역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참된복지관도 설립하게 된다. 이로써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확고하게 하게 된다.

나. 2대 장창진 목사

참된교회는 2013년 2월24일 2대 담임목사로 장창진 목사께서 부임하여 2개월 후인 4월28일 위임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2013년 교회 표어를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라 정하고 첫 해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특히 부임 첫 해부터 ‘전교인 40일 작정새벽기도회(2013.3.4-4.18)’를 선포하고 말씀과 기도 중심의 건강한

목회를 지향하며 나아간다. 또한 배월 말씀묵상집을 발간하여 렉시오디비나 와 ACTS 기도법을 제시하였다. 여름에는 교인들의 영적 재충진과 하나됨을 위해 ‘전교인 참 힐링 수련회’를 개최하였으며, 가을에는 ‘세이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였다. 2014년 교회 표어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로 정하고 전교인 40일 작정 새벽기도회, 새 생명 전도축제, 전교인 참 힐링 수련회, 세이레 특별새벽기도회 등 교인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역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 갔다. 2015년 교회 표어는 ‘말씀대로 새우소서’로 정하고 연초에 ‘전교인 구약 통독’을 실시함으로 말씀으로 한해를 시작하도록 하였으며, 고난주간을 정점으로 하는 ‘전교인 40일 작정 새벽기도회’를 실시하였다. 미자립교회를 돕고 섬기는 선교 파송의 날과 어르신들을 돌보는 실버부가 신설되었으며, 여름에는 ‘참 힐링 전교인 수련회’를 신약성경통독으로 진행하였고, 가을에는 ‘세이레 특별새벽기도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 과 영혼의 추수를 위한 ‘새 생명 전도축제’ 진행하며 말씀대로 세워가는 한해가 되고 있다.

2. 2대 담임목사의 목회철학

가. 6대 비전

참된교회의 6대 비전은 다음과 같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 복음으로 영혼을 전도하는 교회, 나눔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는 교회,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이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는 말씀중심의 목회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교인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렉시오디비나(Lectio Divina)를 하고 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독서를 영적생활의 원천으로 삼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훌륭한 안내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렉시오디비나를 통해 5단계 준비단계, 읽기, 묵상하기, 기도, 관상의 단계와 반추

의 과정으로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으로 영혼을 전도하는 교회는 참된교회와 51개 분립교회가 부친성시화, 한국복음화, 세계선교에 앞장 서는 교회가 됨을 말한다. 봄 또는 가을에 ‘새 생명 전도축제’를 통해 영혼구원의 사역을 힘 있게 감당하고 있으며, 주중 다양한 전도대가 구성되어 지역사회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눔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의 실천은 40일 작정 새벽기도회를 통해 교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헌금과 금식으로 헌금한 것을 모아서 파송한 선교사와 분립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석에도 사랑나눔헌금을 통하여 파송한 선교사와 이웃 교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성껏 사랑을 나누고 있다. 세이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한 헌금과 성탄헌금 또한 같은 목적으로 이웃을 위해 섬기고 있으며,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하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지역사회의 독거 어르신들을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떡과 음료수를 매주 200-500여명에게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있다.

나. 교역자 충원 및 전담배치

참된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는 담임목사와 부목사 7명 그리고 교회학교 및 청년부 교역자 8명이다. 특히 담임목사의 다음세대 부흥전략과 젊은세대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교회학교 교역자를 파트에서 준전임교역자로 충원하였으며, 사역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그로인해 교회학교는 준전임 5명과 파트 2명, 청년부는 준전임 1명이 사역하고 있으며 부목사 2명이 각각 교육부와 청년부 디렉터로 섬기고 있다. 교회학교는 준전임교역자 배치로 인해 주중 교육인 아기학교와 어와나 사역을 신설하여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주중 학교 심방과 교사심방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교회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음세대 눈높이에 맞는 교육관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 교사세미나를 통해 교사들로 하여금 사명감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으며, 교사대학을 통해 기존교사와 신입교사를 훈련시키고 있다.

다. 양육시스템

참된교회는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에 따라 성도들의 신앙성장과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양육과정을 새롭게 편성하였다. 모든 교인들이 양육과정의 배움을 통해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갖게 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단계별 양육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세 가족 교육 후, 일대일동반자 과정 그리고 일대일양육자 과정을 이수하게 되어 있으며 영적훈련과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 특히, 2단계부터는 성경적 배움이 이론에만 머물지 않도록 성경의 현장성을 높이고, 이해를 도우며, 성경적 삶의 실천을 돕기 위해 이스라엘 성지순례과정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3단계 수료자는 터키 성지순례, 마지막 4단계 수료자는 유럽 성지순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과정별 이수자에게는 전체비용의 30퍼센트를 교회에서 지원해 줌으로 배움의 유익을 갖도록 하고 있다.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경파노라마, 성경파노라마 플러스, 기초교리학교, 기도학교가 전·후반기에 열리며, 치유상담학교를 통해 교인들을 영적으로 위로하며 치유하는 사역 또한 감당하고 있다.

라. 분립개척

1대 박창하 목사께서는 참된교회 25년 사역을 하는 동안 51개의 분립개척교회를 탄생시켰다. 목회자와 교인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파송함으로 교회가 교회를 낳는 사역을 지속한 것이다. 목회자와 장로, 권사, 집사를 함께 파송함으로 개척과 동시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상 자립하지 못한 교회도 있다. 자립하지 못한 교회도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볼 때, 교회는 규모나 성도의 수, 제정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 자체로서의 존귀한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2대 장창진 목사는 박창하 목사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되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시대가 요청하는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분별하고, 한국교회가 지향하며 나아 갈 미래 개척교회 모델을 면밀히 연구하고 있다. 그로인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매년 개척을 위한 재정을 확립하고 있으며 교역자 준비 및 교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양육과정으로 훈련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컴패션의 사역훈련을 모델로 하는 양육방식을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준비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제 2 절 참된교회 교회학교 현황 및 각 부서 운영

참된교회는 개척되어 27년간 건강한 성장을 해 왔으며 1대 담임목사의 아름다운 은퇴와 더불어 2대 담임목사의 부임으로 인해 건강하게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교회이다. 참된교회와 성도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문에는 참된교회와 51개 분립교회가 부친성시화, 한국복음화, 세계선교에 앞장서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된교회가 무엇보다 앞장서야 할 사역은 교회학교 사역이다. 교회학교 사역은 참된교회의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를 복음화하여 지역복음화와 민족복음화 그리고 세계선교에 주춧돌을 놓게 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음세대를 살려내고 복음화하는 길이다. 다음세대가 떠나간 교회는 희망이 있을 수 없다. 때문에 참된교회는 지역에 속한 교회로써 인적 자원과 물질을 통하여 다음세대를 복음화하는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즉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린 후 기다려야 열매가 맺어지는 법이다. 참된교회의 열매는 곧 한국교회의 자산이다. 참된교회는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지리적 위치나 환경이 뛰어나고, 주변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교회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한다면 침체되고 있는 한국교회에 좋은 성장의 교회학교 모델이 될 만한 교회이다. 참된교회의 20년 역사에 담긴 교회학교의 현황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참된교회 교회학교 현황

2008년 참된교회 20년사가 발간된 전년도까지의 교회학교 출석현황과 주요사역을 살펴보고 7-8년이 지난 2015년 현재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서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참된교회 각 부서 현황 및 운영

아쉽게도 참된교회 교회학교가 성장해 온 변화의 과정을 통계자료 또는 기록에 남겨진 자료를 자세히 확인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 다행히도 참된교회 20년사에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어느 해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20년사가 편찬되고 기록 될 당시의 시점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2015년 현재의 모습과 비교를 해 본다면 교회학교가 어느 정도 변화의 흐름 속에 있는 지 알 수 있다.

가. 영·유아부

참된교회 20년사에 의하면,⁸⁰⁾ 0세-4세까지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대상이며, 아이들 재적은 55명, 출석은 50여명이다.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는 90여명이다. 부장단은 부장, 부감, 총무, 회계, 서기로 구성되어 있고, 교사는 20여명이다. 영·유아는 양육자와 영·유아야간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되는 시기로 애착(attachment)⁸¹⁾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기와 성인기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주요행사로는 생일잔치, 말씀암송, 새친구 축하시상식, 절기행사, 여름성경학교, 가정의 달 행사 등이 있다. 영·유아기의 시기를 보내는 유아들은 하나님 사랑을 온 몸으로 경험하는 때이기에,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림으로 안정된 신앙을 갖게 되며, 끊임없는 사랑과 축복으로 성장하게 된다. 2015년 8월30일을 기준으로 아이들 재적은 76명, 출석은 69명이다. 주요사역은 다음과 같다.

- (1) 2015년 표어: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가족, 말씀으로 행복한 우리 가족”
- (2) 2015년 주제성구: “말씀대로 세우소서”(시119:28)
- (3) 2015년 연간주요사역
 - (가) 말씀암송잔치: 온 가족이 말씀 손유희를 하며 하나님 말씀을 먹어요.
 - (나) 열매통장시상: 매 주일 예배를 정성껏 드려요.
 - (다) 절기행사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 교회력에 따른 절기 교육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져요.
 - (라) 여름성경학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무력부력 건강하게 자라요.

80) 박창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참된교회 20년사*, 235.

81) 김지현 외, *부모교육*(서울: 양서원, 2014), 77.

(마) 새 생명 진도축제: 새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해요.

(바) 한 달에 1회 이상 대 그룹 활동: 말씀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요.

(4) 교육과정

(가) 주일모임 및 예배

11:00-11:20 교사 경진회

11:30-12:10 찬양 및 예배

12:10-12:30 반모임 및 활동 프로그램

12:30-12:50 교사 모임

(나) 월례회: 매월 마지막주일

(5) 2015년 조직

교육지도: 김희진 전도사 / 위원장: 이건태 장로 / 부장: 송희찬 집사 / 총무: 윤영순 선생 / 회계: 전정숙 선생 / 서기: 이슬아 선생 / 부서기: 김소연 선생, 이지원 선생 / 찬양팀: 박명숙 선생, 최혜경 선생, 명이숙 선생, 김령희 선생, 공유진 선생 / 엔젤 찬양단: 박인영 선생 / 반주: 김지에 선생

(6) 반편성(담임 및 보조교사)

은혜반: 전정숙, 화락반: 유재희, 소망반: 임지은, 믿음반: 박명숙, 사랑반: 김영순, 지혜반: 한선희, 기쁨반: 박화순, 자비반: 최혜경, 화평반: 윤영순,
보조교사: 함권용, 이한별, 박경란, 장주혜, 김온유, 김온전, 주효중

나. 유치부

참된교회 20년사에 의하면,⁸²⁾ 5-7세 미취학 어린이들이 대상이며, 어린이들 제직 90여명, 출석은 70여명이다. 부장단과 교사는 20여명이다. 주요행사로는 생일잔치, 새 친구 환영식, 절기행사, 야외예배, 어려운 이웃 돕기 저금통, 봄 맞이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날 행사, 친국 잔치 등이 있다. 유치부 시기를 보내는 어린이들은 영아기에서 성장하여 이제는 소통이 가능하며 자신을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말씀에 대

82) 박창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참된교회 20년사*, 237.

한 반응도 하게 된다. 2015년 8월30일을 기준으로 아이들 재적은 101명, 출석은 63명이다. 주요사역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표어: “말씀 먹고 쑥쑥-믿음위에 튼튼”

(2) 2015년 주제성구: “말씀대로 세우소서”(시119:28)

(3) 2015년 연간주요사역

(가) 매일 말씀 먹어요: 상하반기 성경읽기

(나) 말씀압송잔치: 즐거운 음으로 맞추어 율동으로 말씀을 표현해요.

(다) 절기(종려주일,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선생님들과 준비하는 역할극으로 교회력에 따라 신앙의 기초를 배워요.

(라) 겨울·여름성경학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부력부력 건강하게 자라요.

(마) 4분기 특별활동프로그램: 만들기, 그리기, 신체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흥미롭게 배워요.

(바) 새 생명 전도축제: 새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해요.

(4) 교육과정

(가) 주일모임 및 예배

11:05-11:15 교사 경건회

11:30-11:45 준비 찬양

11:45-12:30 예배 및 분반공부

(나) 월례회: 매월 마지막주일

(5) 2015년 조직

교육지도: 김재모 전도사 / 위원장: 최연호 장로 / 부장: 김순식 집사 / 부감: 함광수 선생 / 총무: 서전우 선생 / 회계: 조봉춘 선생 / 서기: 조명숙 선생 / 지휘: 김혜경 선생 / 반주: 손화영 선생

(6) 반편성(담임 및 보조교사)

5세 믿음반: 김수형, 소망: 정신화, 감사: 이은미, 기쁨: 신정에

6세 믿음반: 황삼선, 소망: 박태희, 감사: 양혜진, 기쁨: 김예리, 사랑: 이영경

7세 믿음반: 이에선, 소망: 성정규, 감사: 김혜경, 기쁨: 윤한별, 사랑: 유은미

보조교사: 김이래, 김수현, 최수현, 진수민, 함진, 이종예, 황현옥 / 신입반 : 이보순

다. 유년부

참된교회 20년사에 의하면,⁸³⁾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이 대상이며, 어린이들 제적 90여명, 출석은 70여명이다. 부장단과 교사는 30여명이다. 유년부 어린이의 특징은 미취학에서 벗어나 왕성하지는 않지만 신체와 언어, 사회,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때이다.⁸⁴⁾ 유년부 주요행사로는 생일잔치, 말씀암송 및 쓰기, 새 친구 축하 및 등반, 시상식, 절기행사, 봄·여름 성경학교, 가정의 달, 친구초정잔치, 학교 앞 전도, 어린이대회 참여 등이다. 학령기에 접어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갈 밑거름이 되는 신앙훈련의 시기이다. 2015년 8월30일을 기준으로 아이들 제적은 53명, 출석은 44명이다. 주요사역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표어: “말씀속으로 GO! GO!”

(2) 2015년 주제성구: “말씀대로 세우소서”(시119:28)

(3) 2015년 연간주요사역

(가) 매월 말씀암송(마지막주),매주 말씀쓰기

(나) 사순절/대림절 - 예수님을 닮아가요(사랑의 빵 저금통)

(다) 부활절/성탄절 - 부활의 기쁨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어요

(라) 봄 성경학교(2월)/여름 성경학교(7월)

(마) 부활절 친구초정잔치(4월): ‘복음’을 친구(이웃)에게 전도해요/ 세 생명 전도축제(10월)

(바) 식탁공동체(6월) - 친구들을 초청해서 요리하기

(사) 야외소풍(10월) 및 추수감사절(11월)

(4) 교육과정

(가) 주일모임 및 예배

83) 박창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참된교회 20년사*, 238.

84) 김지현 외, *부모교육*(서울: 양서원, 2014), 101-103.

11:00-11:20 교사 경건회
 11:30-12:10 찬양 및 예배
 12:10-12:30 분반공부 및 특별활동
 12:30-12:50 교사 모임

(나) 월례회: 매월 셋째주일

(5) 2015년 조직

교육지도: 채수영 목사, 위원장: 나영길 장로, 부장: 최홍규 집사, 부감: 광금창 집사, 회계: 김정임 집사, 총무: 박노관 집사, 부총무: 장세명 선생, 서기: 김희숙 선생, 지휘: 윤자현 선생, 반주: 김예진 학생, 찬양율동: 박유니아

(6) 반편성(담임 및 보조교사)

1-1반 유미화, 1-2반 김은주, 1-3반 윤여신, 1-4반 김미현, 1-5반 광금창, 1-6반 이규진

2-1반 이은혜, 2-2반 임기쁨, 2-3반 이해정, 2-4반 이지영, 2-5반 이선재

보조교사: 유선옥, 광애림, 김지원, 이애은

라. 초등부

참된교회 20년사에 의하면,⁸⁵⁾ 초등학교 3-4학년 어린이들이 대상이며, 어린이들 제적 100여명, 출석은 70여명이다. 부장단과 교사는 30여명이다. 초등부 어린이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여자 어린이들이 남자 어린이 보다 성장이 빠르다는 것이다.⁸⁶⁾ 교사가 공과를 통해 만들기를 할 때에도 어린이들의 손놀림이 빨라서 잘 따라하며 습득하는 시기이다. 주요행사로는 생일잔치, 새 친구 환영 및 등반, 시상식, 절기행사, 달란트 잔치, 학교 앞 진도, 봄·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대회 참여 등이다. 2015년 8월30일을 기준으로 아이들 제적은 75명, 출석은 50명이다. 주요사역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표어: “말씀으로 세우는 초등부”

(2) 2015년 주제성구: “말씀대로 세우소서”(시119:28)

85) 박창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참된교회 20년사*, 239.

86) 김지현 외, *부모교육*(서울: 양서원, 2010), 98-100.

(3) 2015년 연간주요사역

- (가) 절기행사(성탄절,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등)
- (나) 겨울성경학교(2월), 사순절 성경쓰기(3월)
- (다) 풍신 만들기, For you(5월)
- (라) 여름성경학교(7월)
- (마) 세 생명 전도축제(10월), 성탄절 파티 전도(12월)

(4) 교육과정

(가) 주일모임 및 예배

11:10-11:20 교사 경건회

11:20-11:30 준비 찬양

11:30-12:30 예배 및 분반공부

(나) 월례회: 매월 마지막주일

(5) 2015년 조직

교육지도: 임윤근 전도사, 위원장: 원유정 장로, 부장: 김형주 집사, 부감: 김윤영 권사, 총부: 염인선 선생, 서기: 전화자 선생, 회계: 채경연 선생, 지휘: 박해린 선생, 반주: 박정연 학생

(6) 반편성(담임 및 보조교사)

3-1반 이지윤, 3-2반 손화자, 3-3반 권혁남, 3-4반 이애숙, 3-5반 박해린, 3-6반 이진숙

4-1반 김명숙, 4-2반 김윤영, 4-3반 전화자, 4-4반 강금남, 4-5반 김정숙, 4-6반 권오민

보조교사: 황준하, 황진숙

마. 소년부

참된교회 20년사에 의하면,⁸⁷⁾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들이 대상이며, 어린이들 제적 100여명, 출석은 90여명이다. 부장단과 교사는 20여명이다. 주요행사로는 찬양에

87) 박창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참된교회 20년사*, 241.

배, 생일잔치, 달란트 잔치, 성경퀴즈대회, 말씀암송대회, 야외예배, 반별성경공부, 자연 사랑활동, 절기행사, 봄·여름 성경학교, 어린이대회 참여 등이다. 2015년 8월30일을 기준으로 아이들 재적은 71명, 출석은 54명이다. 주요사역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표어: “말씀으로 세우는 소년부”

(2) 2015년 주제성구: “말씀대로 세우소서”(사119:28)

(3) 2015년 연간주요사역

(가) 절기행사(성탄절,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등), 배월 반별 헌신예배

(나) 새 학년 환영(1월), 겨울성경학교(2월)

(다) 사순절성경쓰기(3월), 부활절축제(4월)

(라) 가족축제(5월), 여름성경학교(7월)

(마) 새 생명 전도축제(10월),

(4) 교육과정

(가) 주일모임 및 예배

09:10-09:25 교사 경건회

09:35-09:45 준비 찬양

09:45-10:40 예배 및 분반공부

(나) 월례회: 배월 마지막주일

(5) 2015년 조직

교육지도: 원병훈 전도사, 위원장: 김수진 장로, 부장: 김연득 집사, 부감: 천성숙 권사, 총무: 김은미 선생, 서기: 김영랑 선생, 회계: 김신화 선생, 지휘: 전혜영 선생, 반주: 김이래 학생

(6) 반편성(담임 및 보조교사)

5-1반 김은숙, 5-2반 강원보, 5-3반 박만재, 5-4반 박명자, 5-5반 장익선, 5-6반 천성숙

6-1반 이영란, 6-2반 정영운, 6-3반 김은선, 6-4반 김혜연, 6-5반 박혜준, 6-6반 이성희

보조교사: 이아름, 이한별, 이희성 / 새친구 : 정은숙

바. 중등부

참된교회 20년사에 의하면,⁸⁸⁾ 중학교 1-3학년 학생들이 대상이며, 학생 154명이다. 재적인원과 출석인원은 구분되지 않았다. 부장단과 교사는 27명이다. 중등부 학생들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정체성의 혼란⁸⁹⁾과 신체적 발달이 매우 왕성한 때이다. 따라서 교사는 사춘기에 대한 이해와 대화법 그리고 정체성이 확립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행사로는 생일잔치, 성경퀴즈대회, 특강, 고난주간 특별세백기도회, 아버지 날 카네이션 달아 드리기, 겨울·여름 수련회, 절기행사, 열매의 밤, 노회 대회 참여 등이다. 2015년 8월30일을 기준으로 아이들 재적은 119명, 출석은 76명이다. 주요사역은 다음과 같다.

- (1) 2015년 표어: “말씀으로 변화되는 Changing 중등부”
- (2) 2015년 주제성구: “말씀대로 세우소서”(시119:28)
- (3) 2015년 연간주요사역
 - (가) 겨울캠프 (1.23-24), 부활주일 새 생명 전도축제 (4.5)
 - (나) 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제자훈련학교(11월)
 - (다) 여름캠프 (7.24-26)
 - (라) 특별행사 (성경통독대회, 마스터셰프, 소풍)
 - (마) 새 생명 전도축제(10월), 열매의 밤(10월), 성탄절 노방전도 (12.24)
- (4) 교육과정
 - (가) 주일모임 및 예배
 - 09:20-09:30 경건회
 - 09:40-10:40 예배
 - 10:40-11:00 공과공부
 - 11:00-12:00 교사회의
 - (나) 월례회: 매월 마지막주일
 - (다) 토요일동아리 활동:

88) 박창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참된교회 20년사*, 243.

89) 김춘경 외, *청소년 상담*(서울: 학지사, 2006), 40-43.

축구동아리 (매주 토요일 오전 09:30), 엘키즈 댄스 동아리 (중,고등부 연합),
Rainbow 기타동아리(매주 토요일 오후 14:00), 농구동아리(매주 토요일 오전
11:00),탁구동아리(매주 토요일 오전 11:00)

(5) 2015년 조직

교육지도: 민강태 전도사, 위원장: 한상갑 장로, 부장: 이상빈 집사, 부감: 윤성
득 집사, 총무: 엄태준 선생, 서기: 정세아 선생, 회계: 이순애 선생, 지휘: 정
의진 선생, 반주: 김수현, 최수연 학생, 찬양팀 : 최보화 선생

(6) 반편성(담임 및 보조교사)

1-1반 이주원, 1-2반 송병옥, 1-3반 한영복, 1-4반 엄태준, 1-5반 김가영, 1-6
반 추효숙

2-1반 최수혁, 2-2반 이순애, 2-3반 김에린, 김진솔 2-4반 정승희, 2-5반 윤
성덕, 2-6반 나병웅

3-1반 신광영, 3-2반 유익두, 3-3반 김형중, 3-4반 김윤미, 3-5반 윤송희, 3-6
반 이승경, 3-7반 최지훈

새가족: 고영선, 김정숙, 한상숙 / 서기부: 고영진, 김혜진, 정세아 / 보조교사
: 송경, 이하은

사. 고등부

참된교회 20년사에 의하면,⁹⁰⁾ 고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대상이며, 학생 124명
이다. 제적인원과 출석인원은 구분되지 않았다. 부장단과 교사는 29명이다. 고등부 학
생들의 특징은 입시준비와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이
다. 교사들의 대화가 중등부 학생들보다는 원활하며 학생이 교사들을 위로하기도 하
는 성숙함을 보여준다. 또한 성인의 전 단계⁹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하
지만, 정체성이 완성된 단계는 아니다.

주요 행사로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부모님께 편지

90) 박창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참된교회 20년사*, 244.

91) James C. Willhoit, John M. Dettoni, *발달주의적 시각으로 본 기독교적 양육*(서울: 쿰란출
판사, 2005), 216-218.

쓰기, 학생과 교사를 위한 특강, 겨울·여름 수련회, 성경퀴즈대회, 노방전도, 절기행사, 엘키즈 발표회, 참된올림 발표회, 아셀 중창단 발표회, 노회 행사 참여 등이다. 2015년 8월30일을 기준으로 아이들 제직은 60명, 출석은 43명이다. 주요사역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표어: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2) 2015년 주제성구: “말씀대로 세우소서”(시119:28)

(3) 2015년 연간주요사역

(가) 겨울 및 여름 캠프

(나) 야외 예배

(다) 엘키즈(중고등부 힙합댄스팀) 공연 및 참된올림(발표회)

(라) 새 생명 전도축제(10월)

(4) 교육과정

(가) 주일모임 및 예배

09:00-09:15 교사경건회

09:00-09:30 예배 준비

09:30-10:30 예배

10:30-11:00 공과공부

11:00-11:30 고등부 교사회의

(나) 월례회: 매월 마지막주일

(5) 2015년 조직

교육지도: 이문순 전도사, 위원장: 이래춘 장로, 부장: 전영호 집사, 부감: 김명회 권사, 총무: 남윤권 선생, 서기: 최은정 선생, 회계: 신보순 선생, 지휘: 김광환 선생, 반주: 나단 학생, 찬양팀 : 최인진, 최현명 선생

(6) 반편성(담임 및 보조교사)

1-1반 신보순, 1-2반 정현경, 김규현, 윤지목, 1-3반 이진희, 서혁진, 1-4반 윤재홍

2-1반 민재기, 2-2반 안형아

3-1반 남윤권, 3-2반 최은정, 김은혜, 3-3반 김예랑

보조교사 : 정연우, 황수진

참된교회 20년사에서 기록한 교회학교의 현황과 2015년 교회학교 현황을 비교해보면 영·유아부를 제외하고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학생들의 수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년사에서 교회학교 현황이 어느 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나타나 있지 않으며, 기록된 학생 수가 재적인원인지 출석인원인지 불분명한 부서도 있다. 즉, 재적과 출석현황이 혼용되어 있다. 때문에 교회학교가 가장 부흥하고 성장했던 즉 가장 많은 인원이 출석했을 어느 한 시점의 재적과 출석을 혼용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년사가 발간된 해가 2008년이고 기록된 자료를 토대로 전체 부서를 출석인원으로 보고 계산했을 때 627명인데, 불과 4년이 지난 2012년 12월30일 교회학교의 전체 출석 학생 수 통계는 275명이기 때문이다. 현재 교회학교의 출석통계는 다음과 같다. 2015년 8월30일을 기준으로 교회학교 재적은 555명이고, 출석은 399명이다. 2012년 연말을 기준으로 할 때, 교회학교는 3년이 채 안되어 평균 124명 즉 45퍼센트가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교회학교가 침체를 벗어나 급성장하고 있음과 부흥의 때를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매우 의미 있는 통계이다. 총회 통계위원회가 매년 보고하는 자료들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감소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 교회학교 현실과 비교해 볼 때도 참된교회 교회학교의 건강한 성장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참된교회 교회학교가 감소했던 원인은 분립·개척교회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서 분립교회로 옮겨가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역자의 잦은 교체 문제이다. 교역자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겠지만 분립·개척교회로 인해 교역자가 자주 바뀌게 됨으로 교회학교 부서들이 교역자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역을 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교회학교의 환경과 시설의 미비도 원인이 된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구별하여 교회예산을 절약하고 모아서 분립·개척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웠던 것을 감안하면, 참된교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보완, 투자는 다소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교회학교가 성장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우선, 1대 박창하 목사께서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2대 담임목사가 안정적으로 부

임한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근간이 된다. 특히 목회적 현실에서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는 2대 담임목사의 안정적 사역을 위해 당회의 적극적 협력과 교인들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참된교회는 이러한 저력이 밑바탕이 되어 리더십이 안정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2대 담임목사의 다음세대에 대한 목회철학과 비전이 확실하고 당회가 적극 협력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정체와 침체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 수의 감소를 그저 바라만보지 않고, 참된교회의 토양과 현실을 이해하면서 급하게 변화를 주지 않고 당회와 협력하면서 서서히 단계별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우선, 파트 사역으로 편성되어 있는 교회학교 교역자가 사역지를 옮기게 될 경우, 그 자리를 파트가 아닌 준전임교역자로 대체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교회학교 7명의 교역자 중 5명이 준전임 교역자로 편성이 되었으며, 교회학교 디렉터를 교육 전문 부목사로 세움으로 인해 팀을 이루게 하였다. 그로인해 주중 사역인 아기학교와 어와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주중에도 교역자들이 여러 사역에 대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세 번째는 교회학교 예산 증가 편성과 시설 보완이다. 교회학교 예산을 상향조정하여 편성함으로 인해 다양한 사역들을 펼칠 수 있게 되었고, 부족했던 교육공간과 시설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을 통해 보완해 가고 있다.

네 번째는 교회의 성장 즉 장년의 성장이다. 참된교회는 2대 담임목사가 부임하여 3년째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장년의 성장으로 인해 교회학교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조금씩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환경과 시설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지만, 참된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가치, 새로운 리더십의 설교와 목회적 기대 그리고 교회학교의 전문성이 어우러지고 있는 것이다.

참된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인지도가 높고 좋은 평을 받고 있다. 교회성장에만 집중하지 않고, 성장하면 분립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참된교회 교회학교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참된교회 교회학교 성장은 단순히 교회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립·개척의 정신이 계승되어 파송되기 위함이며, 부친성시화를 위해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교회를 섬기게 될 일꾼을 키우기 위함이다. 이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학교 교사이다. 참된교회 교회학교 교사에게는 남다른 사명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학교 활성화를 위해 교사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모든 지원을 해서라도 교사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훈련시켜서 다음세대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가야 한다.

제 6 장

참된교회 교회학교 교사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교사교육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

제 1 절 참된교회 교회학교 교사 의식 및 활동

참된교회 교사들은 영적 지도자들이다. 교사들이 살아야 학생이 살고, 교회학교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사는 것이다. 때문에 참된교회 교사들의 의식과 활동의 점검을 통해 무엇을 도와야 하고, 무엇을 보완해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다.

참된교회 교회학교 교사의 의식 및 활동은 설문조사 방법을 택하여 실시하였다 (부록 7). 조사대상자는 영·유아부 교사로부터 고등부 교사까지이며,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미리 배포하고 수기하는 간접 설문지법을 택했다. 조사인원은 12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했으나 118명이 설문에 응해주었다. 설문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1. 설문조사 인원

<표 2> 성별분포

성 별	표집인원	백분율
남	36명	31%
여	82명	69%

<표 2>을 통해 내용을 종합해보면, 설문응답자 중 남녀비율은 남자가 31퍼센트인 반면, 여자가 69퍼센트로 2배 이상이 되었다. 남자교사보다 여자교사가 두 배 이상 많음을 알 수 있다.

2. 연령별 분포

연령별 분포도를 통해서는 현재 교회학교 교사가 연령대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표 3> 연령별분포

연 령	표집인원	백분율
20대	32명	27%
30대	20명	17%
40대	24명	20%
50대	31명	26%
60대 이상	11명	9%

<표 3>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20대가 27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근소한 차이로 50대가 26퍼센트였다. 그 다음으로는 40대가 20퍼센트, 30대가 17퍼센트였다. 20대가 가장 많은 이유는 담임교사가 아닌, 보조교사로 섬기는 청년교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50대가 26퍼센트를 차지하고 30,40대가 17퍼센트와 20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연령대별로 골고루 교사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교회학교 전반적인 교사의 연령대이기 때문에 영유아·유치, 어린이, 청소년부서 각각 분포되어 있는 교사의 연령대는 다를 수 있으며 부서별로 특정 연령대가 집중분포 되어 있을 수 있다.

교회학교 각 부서별 교사의 바람직한 분포는 연령대가 골고루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교사들의 다양한 경험과 인륜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참된교회 교육부는 연령별 분포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것을 토대로 교사교육을 함에 있어서 교사의 연령을 골고루 섞어서 워크숍(workshop)을 하게 되면, 세대 간의 소통을 이룰 수 있다. 세대 간 의식의 차이, 생각과 방법의 차이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차이 등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서로의 관심사 등을 나눔으로 인해 세대 간 이해를 높이고 서로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3. 신앙생활 경력

<표 4> 교회에서의 직분

직 분	표집인원	백분율
청년	49명	42%
평신도	3명	3%
서리집사	42명	36%
안수집사	6명	5%
권 사	14명	12%
장로	4명	3%

<표 4>을 보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자로서는 서리집사가 36퍼센트로 가장 많았지만, 청년들이 42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권사가 12퍼센트이며, 안수집사가 5퍼센트였다. 장로가 3퍼센트인 것은 다른 교회와 달리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다. 그 이유는 교회학교 각 부서 위원장이 장로이기 때문이다. 담임목사의 복회 주안점에 따른 것인데, 다음세대 교육의 중요성과 당회와의 긴밀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서 교회학교 각 부서에 장로를 세웠다.

4. 연령별 교사 수

<표 5>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린이 부서를 섬기는 교사가 51퍼센트로 절반이 넘으며, 중·고등부 교사가 36퍼센트, 영·유아 교사가 13퍼센트이다. 출석률 대비만을 놓고 보았을 때 영유아·유치부 교사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5> 섬기는 부서

부서	표집인원	백분율
영유아·유치	14	13%
어린이	55	51%
청소년	38	36%

5. 각 부서 교사 분포도

<표 6> 섬기는 일

교사의 직분		표집인원	백분율
담임교사	영유아,유치	14	12%
	어린이	35	30%
	청소년	27	23%
보조교사	영유아,유치	4	3%
	어린이	7	6%
	청소년	2	2%
기타	영유아,유치	6	5%
	어린이	13	11%
	청소년	10	9%

<표 6>는 각 부서별로 섬기는 교사의 역할 분포도를 나타낸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있는 반을 맡아서 섬기는 교사를 말하며, 보조교사는 행정, 간식 등을 담당하는 교사이며, 기타에는 부서를 운영하는 위원장, 부장, 부감, 찬양팀 등을 섬기는 교사들을 말한다. 담임교사의 비율과 보조교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균형을 이룬다면 부서운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또한 찬양팀과 같은 은사를 필요로 하는 역할에는 전문성이 더해질 때 예배의 기획이 풍성해 질 수 있다. 특히 인도자와 반주자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최상의 준비된 모습으로 드려져야 한다.

참된교회 교회학교가 건강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역할에 따른 교사의 배치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 부서에 5년 이상 머무는 것 보다는 타 부서를 섬김으로 인해 그 교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신입교사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경력 교사들로 하여금 서로 배우고 성장해 가는 순환구조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가 부족하거나, 특별한 은사가 있는 교사가 필요할 경우 부서 간 자유롭게 교사가 이동하여 섬길 수 있어야 한다.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사가 한 부서에 동시에 머물게 되면, 한 사람은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6. 교사 경력

<표 7> 교사경력

부서	표집인원				
	교사경력				
	1-3	5-10	10-15	15-20	20년 이상
영유아,유치	10 (9%)	7 (6%)	4 (4%)	1 (1%)	2 (2%)
어린이	24 (21%)	4 (4%)	11 (10%)	6 (5%)	4 (4%)
청소년	20 (18%)	11 (10%)	6 (5%)	없음	2 (2%)

<표 7>은 각 부서별로 섬기는 교사들의 경력을 나타낸다. 영유아·유치, 어린이, 청소년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1-3년차 교사들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교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즉, 5년차 이상인 경력 교사의 경우에는 청년교사들이 급격히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유치부서를 섬기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1-3년차와 5년차 이상 된 교사들의 비율이 거의 비슷함을 볼 때 경력교사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어린이부서와 청소년부서도 같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어린이부서에는 오래된 경력교사가 많음이 특징이다. 교사가 한 부서에만 오래 있게 될 경우(5년 이상) 장·단점이 있게 된다. 장점은 부서에 대한 이해가 높고 경험이 많음으로 인해 다양한 사역과 행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

며, 교사들과의 관계형성이 깊다는 것이다. 반면에 단점은 담당교역자보다 그 부서의 경험이 많음으로 인해 교사의 주관적인 영향력이 더 크게 미칠 수 있으며, 기존교사들과의 고착화 되어 있는 관계형성으로 인해 신입교사의 정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부서에서만 오랜 기간 섬기는 것 보다, 부서를 옮겨 여러 부서를 섬기는 것이 전체 교회학교 운영에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7. 구원의 확신

<표 8>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표집인원			
	있다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영유아,유치	20 (17%)		4 (4%)	
어린이	53 (45%)	1 (1%)	1 (1%)	
청소년	35 (30%)		(3%)	1 (1%)

<표 8>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에도 교사들이 가감 없이 응답을 했다. 교사들의 92퍼센트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답을 했음을 볼 때, 대부분의 담임교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답한 대부분은 보조교사로 섬기는 청년교사들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20대 초반이었다. 이제 갓 고등부를 졸업하고 보조교사로 섬기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신앙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잘못하면 보조교사들은 그저 행정만을 담당하거나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담임교사가 요청하는 일만 하는 그야말로 보조하는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각 부서 교역자와 담임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보조교사로 섬기는 교사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신앙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고 지도해야 한다.

8. 교사를 하게 된 동기

<표 9> 교사를 하게 된 동기

동 기	표집인원	백분율
사명감으로 자원해서	67명	57%
주위의 권면을 받고	41명	35%
임명받았기 때문에	10명	9%

<표 9> 교사를 하게 된 동기는 사명감으로 자원했다는 응답이 57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무엇보다 교사의 사명감이 중요함을 감안할 때 사명감으로 교사를 시작했다는 응답은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권면을 받고 교사를 하게 되었다는 응답 또한 35퍼센트로 높은 편이었으며, 임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응답은 9퍼센트였다. 교사를 하게 된 동기는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부르심이다.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좋아서, 또는 교사가 하고 싶어서 등의 이유로 교사를 하게 될 경우 그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경우 즉, 학생들이 싫어지거나, 교사를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사명감에는 부르심이 있다. 물론 하나님은 주위 사람들을 통해 권면하게 하시고 부르실 수 있다. 그렇다면 교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부르심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9. 교사로서의 사명감 및 영성관리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의 사명감에 대해서는 79퍼센트가 사명감이 있다고 답을 했다. 처음에는 있었으나 식었다는 응답도 10퍼센트나 되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보조교사들이었다. 교사의 사명감은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어야 하며, 식었을 경우에는 낙심하지 말고, 쉬과 재충전, 재교육 등을 통해 새롭게 다듬어져야 한다.

<표 10> 교사로서의 사명감

사명감	표집인원	백분율
있 다	93명	79%
처음에는 있었으나 식었다	12명	10%
없 다	0명	0%
모르겠다	11명	10%
무응답	2명	2%

<표 11>에서는 교사들 자신이 어떻게 영성관리를 위한 경건생활을 하는 지에 대해서 묻은 결과이다. 정기적으로 예배와 기도, 말씀을 읽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61퍼센트였다. 가끔씩이라고 응답한 교사들도 33퍼센트인데, 가끔씩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주관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어렵다. 거의 안 한다 도 5퍼센트였다.

<표 11> 교사 영성관리를 위한 경건생활(예배,기도,말씀)

교사의 영성관리를 위한 경건생활	표집인원	백분율
정기적으로	72명	61%
가끔씩	39명	33%
거의 안한다	6명	5%
무응답	1명	1%

10. 공과공부 준비 및 준비시간

<표 12>과 <표 13>에서는 공과를 준비하는 요일과 공과준비시간에 대해서 물었다. 공과를 준비하는 요일에 대해서는 토요일에 준비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9퍼센트였으며, 평일과 주일아침에 준비한다는 응답은 22퍼센트와 23퍼센트로 비슷하였다.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퍼센트나 되었다.

<표 12> 공과공부 준비

공과공부준비	표집인원	백분율
토요일에 한다	39명	49%
평일에 한다	17명	22%
주일아침에 한다.	18명	23%
안 한다	5명	6%

<표 13> 공과공부 준비시간

공과공부를 준비하는 시간	표집인원	백분율
30분 이하	21명	28%
30분에서 1시간	49명	65%
1시간에서 2시간	3명	4%
2시간 이상	2명	3%

새롭게 개편된 총회 공과의 장점은 원 포인트 교육과 일관성 있는 커리큘럼이다. 이러한 이유로 참된교회 교육부는 총회 공과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 후 공과를 진행함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한 공과 시간과 공과활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적 내용 제공이 부족함은 해결해 가야 할 과제이다. 공과를 준비하는 시간에 대한 물음에는 30분에서 1시간이 65퍼센트였으며, 30분 이하가 28퍼센트였다. 1시간 이내로 준비한다는 응답이 93퍼센트가 되는 것이다. 1시간 이상 준비하는 교사도 7퍼센트나 되었다.

11. 학생들을 위한 기도시간 및 만남시간

<표 14>에서 학생들을 위한 기도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매때로 기도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1퍼센트였다. 매일 기도한다는 응답은 16퍼센트에 불과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일 기도한다는 응답이 너무 작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기도하는 시간의 양도 중요하겠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잠시라도 매일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표14> 학생들을 위한 기도시간

주간기도 횟수	표집인원	백분율
매일 기도한다	18명	16%
때때로 기도한다	57명	51%
가끔 기도한다	31명	28%
안한다	6명	5%

<표 15>에서 주일 외에 학생들과의 만남의 시간의 질문에는 없다가 74퍼센트였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만나고 싶어도 학생들이 학원과 과외 그리고 방과 후 자율학습 등으로 인해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교사들의 이야기이다. 가끔 있다도 23퍼센트인데, 주일예배 후에 만나거나, 주말을 이용해서 만나는 경우이다.

<표 15> 주일 외에 학생들과의 만남시간

주일 외 학생만남시간	표집인원	백분율
있다	2명	3%
없다	55명	74%
가끔있다	17명	23%

12. 학생들 심방 방법 및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표 16> 학생들 심방 방법

학생심방	표집인원	백분율
전화심방	42명	56%
대화나 상담 (전자메일, 문자포함)	33명	44%
직접심방	0명	0%
편지나 엽서	0명	0%

<표 16>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심방방법에 대한 질문에 전화심방이 가장 높은 56퍼센트였다. 그 뒤를 이은 것이 대화나 상담(메일, 문자포함)이 44퍼센트였다. 직접 심방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교사와 학생들 간의 주중 만남이 쉽지만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심방(가정 또는 집 주변, 학원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 만큼 교사에게는 적극적인 심방사역이 필요하다.

<표 17>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르침 요소	표집인원	백분율
성경연구	7명	6%
학생과의 관계	84명	74%
가르침의 은사	11명	10%
교사의 성품	8명	7%
기타	3명	3%

<표 17>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74퍼센트가 학생들과의 관계를 말하였으며, 은사는 10퍼센트, 성품은 7퍼센트였다. 여기에서 관계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바르고 인격적인 건강한 관계를 말한다. 마틴 부버(Martin Buber)는 “인격으로의 하나님”⁹²⁾을 말하였는데, 이 말의 의미는 사랑하시는 자이며,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사들도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여야 한다. 이러한 학생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소통이 가능하고 가르침의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며, 이끌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 학생들의 가정 심방 또는 부모와 대화한 경험

예수님은 때로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셨다. 레위의 집(누가복음 5장 29절), 가나의 혼인잔치(요한복음 2장 1-2절), 베드로 장모의 집(마가복음 1장 29-31절)이 예이다.⁹³⁾

92) 고용수, *관계이론에 기초한 만남의 기독교교육사상*(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59.

교사들이 학생들이 머무는 곳 가정, 학원, 독서실 등으로 심방사역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목회적 돌봄을 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역이다.

<표 18> 학생들의 가정 심방 또는 부모와 대화한 경험

심방 또는 부모와 대화한 경험	표집인원	백분율
있 다	57명	73%
없 다	20명	26%
기 타	1명	1%

<표 18>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가정 심방 또는 부모들과 대화한 경험에 대해서 물었다. 그 결과 73퍼센트가 있다라고 답을 하였고, 26퍼센트는 없다라고 답을 하였다. 있다라고 응답한 교사들의 대부분은 가정 심방보다는 전화통화 또는 같은 교회 성도의 관계로써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교사는 반드시 부모와 건밀하게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4.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

<표 19>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

내용	표집인원	백분율
학생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	29명	45%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할 때	12명	19%
학생들이 변화될 때	12명	19%
믿고 따를 때	7명	11%
예수님을 말할 때	5명	8%

<표18>부터 <표20>까지는 주관식 질문에 대한 답의 통계와 내용이다. 객관식의 질문보다는 적게 응답을 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18>에서는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인데, 45퍼센트가 학생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라고 답을 했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할 때 그리고 학생들이 변화될 때가 각각 19퍼센트였으며, 믿고 따를 때가 11퍼센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가 8퍼센트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학생들이 인사할 때, 학생들과 대화할 때, 학생들이 경청해 줄 때, 감사하다 라고 말해 줄 때 등이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 큰 자부심과 기쁨을 맛본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다. 학생들의 믿음 성장이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 오랜 기다림 속에는 눈물의 기도와 말씀 양육, 참고 인내하는 목양의 마음이 녹아 있다. 예배에 자주 빠지고, 공과 시간에 장난도 많이 치고, 때로는 교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학생들을 자라게 하신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오는 것이다. 기쁨을 얻기 위해 교사로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를 통해 하나님은 학생들의 영적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기쁨을 얻게 하신다.

15. 교회학교 부흥요소 및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표 20> 교회학교 부흥요소

내용	표집인원	백분율
기도와 사랑	21명	39%
부모,교사,학생과의 긴밀한 관계	11명	20%
소통	7명	13%
교사교육	6명	11%
교회의 지원	5명	9%
교역자의 지도력	4명	7%

<표 20>은 교회학교가 어떻게 해야 부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다. 기도와 사랑이 39퍼센트였다. 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20퍼센트, 학생

들과의 소통이 13퍼센트, 교사교육이 11퍼센트, 교회의 지원이 9퍼센트, 교역자의 지도력이 7퍼센트였다. 그 밖에도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설교와 예배, 교사의 사명감 고취와 자질의 증가, 교육환경개선, 체계적인 교사관리 등이 있었다. 교역자나 교사의 지도력은 교회교육의 필수이다. 교회의 지도자는 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힘쓸 때 지도력이 개발됨을 기억해야 한다.⁹⁴⁾ 또한 교회학교가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이 나온 것을 볼 때, 한 가지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교회학교가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중요한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 동시에 충족되었을 때가 아닌가 싶다.

<표 21>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용	표집인원	백분율
기도	44명	48%
사명	32명	35%
사랑	8명	9%
영성	4명	4%
교육	2명	2%
말씀	1명	1%

<표 21>의 결과에 대한 마지막 질문은 교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였다. 기도가 49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사명이 35퍼센트, 사랑이 9퍼센트였다. 그 뒤를 이어 영성, 교육, 말씀의 순이었다. 그밖에도 나열한 것들(기도, 사명, 사랑, 영성 등)에 대해 중복응답이 많았다. 다시 말하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이 교사에게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기도와 사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의 응답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교사들의 응답에는 중요성의 인식과 더불어 자신이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도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제 2 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문제점과 해결책

94) 고용수 외, 21세기 한국 교회교육의 과제와 전망, 3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문지 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하여, 교회학교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살펴 볼 수 있다. 문제점과 해결책을 네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형성 어려움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관계”였다. 교사는 학생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목자, 상담자, 안내자, 신앙의 선배, 코치, 멘토, 친구 등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⁹⁵⁾ 그런데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관계형성을 함에 있어서 주일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중에 심방을 하거나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응답을 했기 때문이다.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과시간을 같이 하는 것만으로 관계형성이 어렵지만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를 보자. 교사들이 학생들을 주중에 만나려 해도 학생들이 방과 후 학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학원과 과외 그 밖에 활동이 많고, 교사들의 입장에서 직장을 마치고 만난다면 저녁시간 밖에 없는데 그 때는 학생들과의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주중 삶이 바쁜 만큼 학생들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관계는 한 순간에 형성되지 않는다. 관계가 형성되고 신뢰가 쌓이려면 시간도 투자해야 하고, 깊은 관심과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많은 이야기도 나누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주일날 짧은 시간 학생들을 만난다면 더욱 학생 한명 한명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다 쏟아야 한다. 또한 주중에 만나기 어렵더라도 문자와 카톡 또는 전화심방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주말에 운동을 함께 하거나 공연관람, 영화 등의 시간을 같이 하는 것도 관계형성에 도움이 된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기도시간도 때때로 할 것이 아니라, 사병감을 가지고 시간을 정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

둘째는 교사교육의 중요성과 교사 관리의 문제이다. 설문에서 보듯이 교사경력 1-3년차가 가장 많았다. 물론 변화가 많은 청년교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경력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상 그만 두거나 교회 내에서 다른 사역을 섬길 수 있다. 그러나 각 부서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교사가 부족한 상태이고, 경력교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95) 김도일 외, *기독교교육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곱 주제*, 141.

볼 때 교사교육의 중요성은 더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서 세대별 교사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교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은사를 점검하게 하며, 영적인 상태를 살필 수 있으며, 교역자와 교사 간에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는 다음세대의 교육의 질박성을 인식하게 하고,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지 자부심과 격려를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교사의 재교육과 재충전의 시간은 교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교사들을 다시 일깨우게 될 것이다. 지속적인 교사관리도 중요하다. 교사 한명 한명은 교회학교의 자산과도 같다.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기 마련이다. 성경연구, 영성, 학생들과의 관계형성, 소그룹 인도법, 학생 관리, 인격과 성품 등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많다. 때문에 교사를 관리할 때 각 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도와야 성장할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잠시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는다고 할 때에도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할 수 있도록 성경연구와 유의한 책들을 소개하고, 타 교회 탐방 및 세미나에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

셋째는 교육환경의 문제이다. 좋은 교육환경이 교회학교의 부흥요소이긴 하나, 가장 첫 번째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 부모들이 교회를 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교육환경이다. 교육환경에는 그 교회의 마인드가 담겨 있다. 아이들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환경이다. 교육환경은 말 그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교육환경은 단순하게 외적인 것을 좋게 해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음세대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다음세대들이 주일마저도 안식하지 못한 채 예배만 끝나면 곧바로 학원을 가고 과외를 해야 하는 상황을 궁핍히 여기고 교회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소통한다면 더 할 바 없이 좋을 것이다.

네 번째는 리더십의 문제이다. 교회를 섬기는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 교회학교에 반영되고 담임목사가 깊은 관심을 갖을 때 교회학교는 눈에 띄는 가장 빠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물론 담임목사의 목회방향을 중심으로 당회, 담당교역자, 교사, 교인들

의 협력이 하나가 될 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교회는 유기체적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회학교는 부족한 것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교사의 부족과 재정지원의 부족, 시설의 부족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볼 때 교역자의 역량과 열정에 따라서 부서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교역자는 교사와의 관계, 학생들과의 관계, 부서의 리더들과의 관계도 워만하게 이끌어 가야 함과 동시에 전문성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리더십이 불안정하거나 인정되지 않을 때 성장했던 부서도 한 순간에 주저앉을 수 있다. 교역자는 섬기는 부서의 영적 토양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예배와 말씀 준비, 교사 양육, 학생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기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교역자의 리더십이 교사들의 잠자는 영성을 깨우며, 사명감과 열정을 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다. 교역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리더십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사들과 함께 부서를 세워가고 학생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

제 3 절 참된 목자로서의 교사

참된교회 교회학교 교사에 대한 설문과 그에 따른 분석을 통해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는 교사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하고 분석해 온 것을 토대로 교사교육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방안을 위한 본 논문의 핵심적 가치를 논하고자 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는 교사교육이다.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목양하시고 양육하셨으며 가르치셨는지 모든 핵심적 요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방법이나 기법으로 가르치신 적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셨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는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는 곳마다 한 존재의 삶의 의미가 해석되고 변화되었으며, 새롭게 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예전에 비해 교사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내용이 제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사명감은 떨어지고 있으며,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다. 앞선 장에서 살펴본 대로 내·외적

요인들이 있다. 제거 할 것은 제거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시 본 받는 것이다. 화려한 기술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의 회복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참된 목자라고 말씀하셨다.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숨을 걸고 양을 돌보듯이 목양하는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이다. 교사는 이러한 목자의 에타는 심정이 있어야 한다. 양들과도 같은 학생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목자의 마음이 있을 때 교회학교 현장은 다시 변화될 것이며,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1. 양을 아는 교사

신앙인들에게 있어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는 주님과 나와서의 관계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애굽 사람의 부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인 줄 알리라”(출애굽기 6장 7절).

시편에서도 같은 표현을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시편 100편 3절). 복음서에도 같은 표현이 나온다. “나는 선한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한복음 10장 14-15절).

참된 목자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교사는 주님과 같이 양을 알아야 한다. 첫째, 거시적 차원에서 양을 안다는 것은 양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신분을 바로 아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예수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다. 주님께서 교사에게 일정기간 양을 목양하도록 맡겨주신 것이다.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양 때를 잘 알고 파악하는 것이다. 칼빈은 목자의 직무를 맡았을 때에 ‘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 때에서 참 양이 확인되고, 인정 받고, 공인되도록 진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비전, 꿈, 진로선택, 학업, 영적 관심 또는 무관심, 영적 상태, 성격과 성향, 성품과 인격, 성장해 온 환경

등을 알아야 한다. 학생들을 파악해 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천천히 관심을 가지고 하나 하나 알아가면서 관계형성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미시적 차원에서 양을 안다는 것은 양 하나 하나를 개인적인 수준에서 알아가는 것을 말한다. 교사는 학생들을 알되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학생의 이름, 학교, 전화번호, 주소, 가족관계, 생일, 혈액형, 취미, 친구, 좋아하는 것, 특기, 행동, 취향, 신앙경력, 태어난 곳 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될 때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깊어지기 어렵게 된다. 물론 피상적인 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기본적인 얕이 있을 때 더 깊은 얕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학생들에 관련된 내용 중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 바뀌고 변화되는 것들도 있다. 교사는 부지런히 이것을 파악해야 한다. 한번 알았다고 해서 일년, 이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을 아는 교사가 목자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이 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2. 양을 먹이는 교사

시편 23편 1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표현은, 선한 목자로 인해 만족감을 느끼는 양이 감탄하고 감사하며 하는 말이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관심과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포괄적으로 표현 하는 말이기도 하다. 교사는 학생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며 충분한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건강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의 회복과 관련하여 한 단어(boskein)를 사용하여 양을 먹이는 것에 대해 말씀한다. 트렌치(Trench)는 보스캐인(boskein)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양을 먹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을 꾸준히 공급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 다른 규칙이나 교리가 덧붙여진다 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영적인 양식을 대체하거나 대신 할 수 없다.⁹⁶⁾

에스겔의 때에도 34장 2-3절에 “양 때를 먹이지 않는 것”에 책망하신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을 위해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배마르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시시때때로 먹이고 공급해 주어야 한다. 이로 인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해 준다.⁹⁶⁾ 일반적으로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 하루에 3-4회나 옮겨 다니면서 먹인다고 한다. 이처럼 먹이는 데 있어서도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며, 필요의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먹여 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각자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성장해 가고 있다. 더디게 성장하는 학생도 있고, 빠르게 성장하는 학생도 있다. 외향적인 학생이 있고, 내향적인 학생도 있다. 학생들에 대해서 잘 안다면 먹이는 시기와 방법 그리고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여 먹여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영적균형을 잘 살펴야 한다. 시나이 사막에서 양을 치는 베누인들은 어떤 식물이 양에게 좋은 지, 어떤 것이 계절성이고 어떤 것이 다년생인지, 어떤 것이 약초이고, 어떤 동물의, 어떤 증세에 약효가 있는지, 어떤 것을 과다섭취하면 해로운 지등을 알고 있다고 한다. 아랍 광야 전역에서 자라나는 271가지 식물 중 대부분의 덩굴 모양과 효과 그리고 효능을 구분할 줄 알아서 칼로리가 없는 식물은 먹이지 않는다고 한다. 목자가 양을 먹이기 위해 얼마나 세심해야 하는 지 알려주는 예이다. 이러한 세심함이 있어야 양이 균형 있게 성장한다. 주님께서 양 때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양들의 필요에 따라 먹이신 것처럼, 교사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균형 있게 먹을 수 있도록 섬겨야 한다. 학생들은 신체 또한 빠르게 성장하는 때이고, 영적으로도 흡수가 빠른 때임을 감안한다면 교사들은 꾸준하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3. 양을 인도하는 교사

선한 목자장의 주권 아래에서 목자는 양이고,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다. 때분에 교사는 목자임과 동시에 양이다. 참된 목자는 양떼들을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다.

96) Timothy Z. Witmer, *목자 리더십*(P&R, 2014), 179.

97) David M. Brown, *Transformational Preaching*(USA: Virtualbook.com, 2003), 275.

목자는 절대로 뒤에서 이끌지 않는다. 목자는 이끌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해야 하고, 목적도 확실해야 한다. 방향은 예수그리스도요, 목적은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교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범은 결국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끄는 사람으로서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진정한 권위를 가진 목자라고 한다면 인도하는 학생들의 존재를 발견하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인격의 빛 아래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⁹⁸⁾

교사가 구원의 확신 없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는가? 교사가 방향 없이 학생들을 인도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교사가 학생들에게 영적인 본이 되지 못한다면 학생들이 따를 수 있겠는가? 너무나도 기본적인 질문 같지만,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며 교사를 세우는 교회학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이에 빠지리라”는 말씀을 세겨야 할 것이다. 교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믿으며, 예수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사람이어야 한다. 교사라면 학생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끄신 본을 따라 성실하게 학생들을 인도해야 한다.

4. 양을 보호하는 교사

목자의 또 다른 역할은 보호하는 것으로써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스도를 따라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간 목자들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 부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양은 실제적으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험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적들의 공격도 쉽게 받으며, 실족하기도 한다. 이렇게 양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목자만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목자는 양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때로는 유연하게, 단호하게, 정확하게 처방해야 한다. 존 머레이(John Murray)는 양을 보호하는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98) Carroll A. Wise, 영혼을 돌보는 목자(서울: 세복, 1998), 133.

만약 목자들이 이제 막 길을 잃기 시작한 양들에게 올바른 길로 가도록 부드러운 발로 권고하거나 때로는 책망하여 인도한다면 양들은 다른 길로 세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교회에는 순수함과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목자는 지체하지 말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을 포착했을 때와 양이 위험한 벼랑 끝에 다다르기 전 나서서 도와주어야 한다.⁹⁹⁾

교사가 학생들을 양육하다보면 다양한 문제 앞에 서게 된다. 이 때 진정한 목자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 무관심 또는 적당한 관심, 회피와 방관은 진정한 목자의 태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셨다. 이것이 배워야 할 진정한 목자의 자세이다. 학생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사가 진정한 교사이다. 학생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교사와 학생이 형식적인 관계에만 머무르게 될 때 거기에는 상호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으며,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것은 내적, 외적 양면을 포함한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오늘날의 영적 현실이다. 다음세대들이 세상의 문화에 얼마나 쉽게 노출이 되어 무너져 가고 있는가? 음란물, 스마트 폰 및 게임, 인터넷 중독, 과도한 TV 시청, 술과 담배, 폭력, 왕따 등의 문제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다음세대들을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다. 가족, 정신건강, 일탈 및 비행, 학업진로, 대인관계 등의 내적고민도 많다. 예배를 빠지거나, 신앙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신앙적 갈등과 고민을 하는 다음세대들도 많다. 내·외적, 신앙적 문제가 학생들에게 발생하게 되었을 때 염려와 걱정을 넘어 적절한 대응과 처방 그리고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교사가 할 수 있는 몫이다. 양을 보호하는 교사로 인해 양은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갈 것이다. 교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학생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내고 보호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교회학교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이다.

제 4 절 교사교육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

99) Timothy Z. Witmer, 목자 리더십, 224.

교사들을 위한 교육의 형태는 교사에비교육, 교사계속교육, 교사대학, 전문교육 등, 부서별 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교사에비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38퍼센트가 넘는 교사가 전혀 예비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⁰⁾ 연1-2회 정도 5시간 미만의 단시간 교육 및 세미나 교육을 받은 교사는 21퍼센트이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교사교육,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1-2일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사교육을 받은 사람은 35퍼센트였다. 계속교육의 경우에도 15.15퍼센트가 받은 적이 없었으며 연1-2회의 수시 특강 형태의 교육이 31.7퍼센트였다. 즉 응답자의 절반 정도의 교회에서는 교사계속교육이 아예 없거나, 교사들이 단기성의 교육에만 참여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사교육은 단기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약 20년 전에 실시했던 교사교육의 형태, 기간, 체제에 있어서 그리 큰 변화는 것이다.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중·대형 교회와 농어촌교회 사이의 기회균등 차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는 교사를 위한 단기적인 교육이 있지만 농어촌교회의 실정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앞으로의 교사교육은 규모가 큰 교회에서부터 작은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상황에 맞게 적용가능하며 실천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1. 전방향 교육 리더십

전방향 교육 리더십은 전방향 리더십과 교육 리더십을 합친 용어이다. 교사는 교회교육 차원에서 목회자와 다름없는 리더십을 갖게 된다. '반 목회', '담임교사'라는 개념은 이런 목회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교사는 분반공부만을 가르치는 기능적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공동체의 리더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전인적 삶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교사 리더십의 핵심은 예수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따르며 그 리더십을 본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교사 리더십은 분반공부 지도뿐만 아니라, 반목회로 일컬어지는 조직 지도성, 학생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상담 치유 지도성, 잠재적 교육까지 이끌어내는 교육 지도성, 동료 교사들과의 팀워크, 교역자와의 관계, 학부

100) 장신근, *공적신앙을 양육하는 교회와 가정교육*, 86.

모와의 관계, 학생들의 사회성 개발 및 지역사회 지도성 등을 포괄한다. 때문에 교사 교육을 통해 교회학교가 활성화된다고 할 때, 단순하게 1-2회성 교사대학 또는 세미나, 기타 프로그램 등으로 제한된 것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것이 전방향 교사 리더십이다. 교사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교역자와의 관계,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 학생들 및 부모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상하좌우의 전방향 리더십이 요청된다. 예수님도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자들과의 관계,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등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시고 전방향의 리더십을 펼치셨다. 교사 리더십은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교회교육 안에서의 영향력은 교사, 학생, 교육내용, 그리고 환경 간의 모든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영향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리더인 교사에게 있다. 교사의 리더십은 리더십을 얼마나 행하느냐보다 얼마나 진정한 리더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하나의 팀을 이루며 공동체를 형성하면 할수록 리더십은 강해지고, 그 영향력도 강해진다. 즉, 교육 리더십은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감정적인 영향력, 상호 소통, 참여, 공동체 등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교사를 교육함에 있어서 피상적이고, 일회적이며, 단순한 교육을 넘어 교사들을 전방향 교육 리더십을 갖추도록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상시적이고, 깊이와 내실을 갖춘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교회학교의 건강한 성장을 가져오게 될 것을 확신한다.

2. 사명회복

교사들에게 설문을 통해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의 물음에 많은 답을 한 것이 “기도”였고, 그 다음으로 “사명”이었다. 교사 스스로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일을 말한다. 교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교사를 하게 된 근거와 이유가 타인의 권유, 직분을 받았으니까, 아이들이 좋아서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사를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이다. 이 근거 위에 서지 않을 때 교사들은 흔들리게 되며, 교사의 사명도 약해진다. 교사는 단지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때로는 나의 의지

로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 나의 환경과 감정이 아무리 요동쳐도 이 기초 위에서 교사직을 감당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견고하다. 이것이 교사됨의 유일한 근거이다.¹⁰¹⁾ 때문에 교사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회복하게 하는 것은 교사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사명은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내가 하겠다는 의지보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교사의 사명 고취를 위해서 “일일부흥회”를 여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받은 말씀을 통해 뜨겁게 기도할 때 사명감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또한 “교사수련회(1박 또는 2박)”도 해 볼만 하다. 지친 일상을 벗어나 교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 게임, 식탁교제, 나눔과 대화를 통해 교제하고 위로하면서 교사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지쳐있는 교사들을 위로하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끝으로 “교사사명학교”를 여는 것이다. 커리큘럼은 교사의 사명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교사란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영향을 준 교사 또는 목회자는? 교사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 이유와 대처방법은? 학생들에 대한 고민 털어놓기, 이 시대가 요청하는 교사상은? 선배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등등 교사들이 가장 고민하는 내용들을 주제로 놓고 교사들 간 워킹을 통해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교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복하게 될 때 교회학교는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에 서게 될 것이다.

3. 말씀과 영성훈련

‘말씀’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통로요 방법이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통일된 하나님의 활동은 ‘변화’를 향한 활동, 즉 하나님의 교육활동이었고, 일찍이 개혁자 칼빈은 이를 “하나님 교육(paedagogia Dei)”이라고 하였다.¹⁰²⁾ 즉, 페다고기아 테이(paedagogia Dei)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교육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에스겔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가 입을 벌리자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놓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겔3:3)”고

101) 박상진 외, *교사! 미션 트립*, 33.

102) 김도일 외, *기독교교육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곱주제*, 112-114.

하셨다. 에스겔이 이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겔3:3)” 고백했다. 말씀을 먹이는 것이 양육(養育)의 모티브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사들을 선택 하셔서 말씀을 그들의 입에 넣어 주시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게 하시는 ‘페다고기아 데이’를 감당하도록 하셨다. 교사의 사역은 초대교회부터 말씀 사역이 중심이었다.¹⁰³⁾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배우도록 도와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6장 4-9절 말씀에 나타난 ‘쉐마’ 로¹⁰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철저히 교육할 것을 말씀하셨다. 즉,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씀이 되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셨으며 백성들이 신학적인 지혜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셨다.¹⁰⁵⁾ 교사 또한 이러한 가르침을 기억하여 학생들이 말씀중심의 생각, 말씀 중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교사는 또 하나 갖추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성이다. 영성은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 형성되는 성품, 성경에 근거한 자기 성찰과 고백,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며(엡 4:13),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벧후1:4), 성숙한 자아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생활하며, 자기를 비워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온전한 삶의 추구이다.¹⁰⁶⁾ 물론, 깊은 영성을 갖춘 교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며 그런 경지에 쉽게 도달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교사는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매 순간 성찰하고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 아닌, 영적으로 경험하고 친밀감을 누리는 영성이 훈련되어야 한다. 교사가 말씀과 영성훈련에 균형을 갖게 될 때 교회학교에 생명력을 불어 넣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가정과의 연계(심방과 사랑)

103) Thomas H. Groome, *기독교적 종교교육*(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384.

104) 한국기독교부모교육연구회, *성경적 자녀교육*(서울: 양서원, 2005), 114.

105) Jack L. Seymour,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교육학*(서울: 신앙과지성사, 2015), 189.

106) 김도일, *온전성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 65.

가정과 교회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조화와 협력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교회의 교육과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중 신앙교육의 장이 되는 가정에서 이어지고 실천되며 열매 맺도록 협력하고 상생하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교육을 진단, 점검, 평가하는 동시에 가정을 향하여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소통하여야 한다. 가정에서도 교회를 향하여 신앙교육이 교회에서 주도하는 독백이 되지 않고, 가정과 교회의 조화로운 동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주체들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교회와 가정을 연계하는 신앙교육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교사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가정에 관심을 갖고 부모와 소통하면서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팀웍을 이루어야 한다. 교회와 가정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가정에서는 학생들을 교회에 보내기는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무관심하며, 교회는 학생들을 교회 안에서만 가르치고 부모에게 일상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라도 교회와 가정이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의 신앙적 성장을 도와야 한다. 이로 인한 학생들의 신앙적 성장은 가정의 변화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교사는 심방을 통해 또는 교회 밖에서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해야 한다. 학생들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영적 자세는 사랑이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이며, 무조건적이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이며, 섬김이다. 내가 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학생들을 만나야 한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학생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사랑에 목발라 한다. 세상이 주는 달콤하고, 일회적인 사랑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변함없고 무조건적인 사랑 말이다. 이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바 있는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다.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는 영적 토양을 만들고 학생들을 심방하며 조건 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줄 때 학생들의 삶은 변화 될 것이며,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교회학교는 활성화 될 것이다.

5. 탐방 및 순례

교사들이야말로 교회를 벗어나 교회가 존재했고 실존하는 역사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독교 13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유적과 발자취가 전국 곳곳에 살아 있다. 교사는 그 현장을 방문하여 기독교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영적 제충진을 하여야 한다. 교사 스스로 책 안에 갇혀있게 될 때 그야말로 문자만 전하게 되는 교사가 될 확률이 높다.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가 숨 쉬는 곳, 힘과 사색이 있는 문화의 공간에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 양화진외국인 선교사 묘원, 용인순교자기념관, 유관순 기념교회(매봉교회), 여수 에양원(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 주기철 목사 순교 기념관, 금산교회, 오산학교, 도산 안창호 기념관, 대한성서공회, 장로회신학대학교 등 수많은 기독교 유적지와 탐방해볼 만한 의미 있는 곳이 곳곳에 있다. 순례가 주는 의미 중 하나는 역사는 살아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쓰여진 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자로 알고 전하는 것과 직접 방문하여 그 현장에서 느껴지고 생생하게 경험되어진 것을 나누게 될 때는 훨씬 더 강력하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는 문화와 예술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배우는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관련 분야를 꿈꾸고,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타 교회를 탐방하여 예배를 드리고, 교육시설과 공과 그리고 교육의 내용들을 보는 것도 교사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타 교회 탐방 시 주의할 점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각 교회마다 토양이 다르고, 교육방침이 다른 것은 당연한데 탐방을 통해 비교를 한다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없게 된다. 배우는 자세와 축복하는 마음이 있다면 탐방자나 탐방을 허락한 교회가 서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교사가 탐방과 순례를 통해 신앙적 견문을 넓히고, 소양을 확대하며, 더 넓은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교회학교는 교사가 성장하는 만큼 성장하며 부흥하게 될 것이다.

제 7 장

결 론

본 논문을 전개함에 있어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면서 침체와 감소 원인 추세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으로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교육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교사교육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방안을 장별로 요약한 후 결론적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함으로 본 논문을 마치려고 한다.

먼저, 1장 서론에서는 한국교회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해 왔고 교회학교도 놀라운 동반성장을 하였지만, 반대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 정체와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특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교회학교 모습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안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밝혔다. 그 문제점과 대안은 동일하게 교사교육에서 찾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을 쓰는 동기 또한 교사교육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이기에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새로운 부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논지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연구방법은 문헌 조사 연구 방법과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책과 논문 그리고 외국서적을 참고하여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역사를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신앙교육 형성기, 민족교육의 쇠퇴와 신앙교육중심의 시기, 다양한 커리큘럼 도입 및 기독교교육학의 학문적 개척기, 교회교육의 양적성장 및 학문적 정립기이다. 각 시기별로 교회학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교회학교가 어떻게 형성되어 성장해 왔는지,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정립이 되어 왔는지 그에 따른 연령별 추이를 조사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영유아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의 연령별 분포와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통합교단의 최근 15년간의 학생 수 변화에 대한 자세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비교분석을 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속해 있는 통합교단의 학생 수와 더불어 교사의 수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서로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교회학교 학생 수의 감소원인을 다섯 가지로 말하였는데, 저 출산으로 인한 감소, 교사교육의 획일화, 교회학교 예산지원 축소, 교회의 대 사회적 이미지 추락, 교회와 가정의 연계 부족 이다.

3장에서는 현 세대의 트렌드와 미래세대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미래교육의 7가지 키워드 즉, 세계화와 지역화, 개인주의와 군집주의, 고령화와 평생화, 컨버전스와 디버전스, 마음 훈련과 행동훈련, 연결과 봉사, 자본주의와 영성주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현 세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문화시대, 포스트모던시대, SNS시대이다. 끝으로 현 시대에 대한 이해와 특징을 중심으로 현 세대를 위한 교육 방안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권위 있는 가르침, 관계로의 가르침, 사랑으로의 가르침, 영성으로의 가르침, 공감과 정청으로의 가르침이다.

4장에서는 간 세대 교사교육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국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사교육의 대부분은 규모와 예산을 갖춘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간 세대 교사교육은 상호적 영향을 주고받는 신앙공동체 형성과 가정의 적극적 동참 그리고 작은교회가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교육의 활성화 방안의 모델로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본 논문의 현상인 참된교회가 걸어온 지난 역사의 발자취와 변화되고 있는 현재의 목회상황과 교회학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참된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했던 1대 박창하목사의 사역을 다섯 시기로 구분하였는데, 교회의 태동, 개척기, 발전기, 도약기, 성숙기이다. 지역사회 가운데 세워진 참된교회가 각 시기별로 어떤 주요한 일이 있었는지, 지역사회와 함께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교회의 존재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핵심가치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사역 중인 장창진 목사의 목회철학과 비전에 따라 교회와 교회학교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섯 가지 목회 비전이 핵심 목회철학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 복음으로 영혼을 전도하는 교회, 나눔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는 교회,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이다. 특히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서의 목회비전이 교회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실천해 가고 있는지 각 부서별 조직과 현황, 주요사역, 교육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6장에서는 교회학교 교사의 의식과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해 보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보았다. 첫째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형성 어려움이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관계”였다. 즉, 교사는 목자, 상담자, 안내자, 신앙의 신배, 멘토, 친구 등의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에 학생들과 관계형성이 잘 안되거나, 어그리지면 교육과 양육이 원하는 목표만큼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교사가 학생들과의 관계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범위와 한계를 정하여 관계를 형성해 갈 것인지 등에 대한 교육과 접근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는 교사교육의 중요성과 교사관리의 문제이다. 참된교회 교회학교에 청년교사가 많다는 것은 큰 장점이기는 하나, 동시에 청년이라는 사회적 불확실성 때문에 교사를 그만두거나 그만 둘 가능성이 장년에 비해서 큰 편이기 때문에 단점도 있다. 또한 교회학교의 자산과도 같은 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관리는 행정상의 보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며 폭 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을 말한다.

세 번째는 교육 환경의 문제이다. 교육환경은 단순하게 외적인 요인을 개선해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음세대들이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영적 공간이 되어야 함을 말한다. 교사와 학생들이 충분히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배려되어야 함을 말한다.

네 번째는 리더십이다. 교사의 리더십에 따라 학생들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리더십은 개인의 역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영향력을 말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따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사교육을 통해 교회학교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교사교육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의 핵심적 내용을 제시하였다. 교사로서의 모델은 예수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본질적 내용과 가르침의 마음, 핵심적

가치를 중심으로 교회학교에서 실천해야 할 교사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자로서의 교사는 양을 알며, 양을 먹이며, 양을 인도하며, 양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전하는 참된 목자로서의 교사이다. 또한 교회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사는 진방향 리더십을 가져야 하며, 사명을 회복하고, 말씀과 영성훈련을 꾸준히 하며,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도록 심방하며, 교사 자신의 성장을 위해 탐방과 순례를 통해 영적 지경을 넓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자는 교사교육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얻은 것을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며 마치려고 한다.

첫째, 교회학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철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최근 지나온 15년간의 한국교회와 교회학교의 성장, 정체, 쇠퇴의 과정을 비교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현상으로 인해 세대별로 증·감을 해 왔는지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15년 동안 서서히 또는 가파르게 감소해온 교회학교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가능하지 않겠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일반 교육에서도 먼 장래를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 즉,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말한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밭미암아 흉년을 대비하여 곡식을 준비하고, 흉년이 왔을 때 그 흉년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준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었다. 교회학교를 바라보며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거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만 보거나, 지나온 부흥의 시절만을 그리워한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교회학교의 실상을 보면서도 막연한 희망을 갖거나 또는 지속적인 절망의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철저한 대응책은 현 상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용기이다. 교회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되, 가장 먼저 교사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난 15년 동안 교회학교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사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각 교회의 교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눈물과 기도로 묵묵히 감당하며 버텨온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도 희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신뢰하자. 또한 아무리 사람이 계획과 대안을 잘 세워도 결국 그 결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느 한 교회가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규모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가 함께 성장해 가는 큰 그림을 함께 그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규모가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배려해야 하며,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보며 비교의식 또는 폐배의식을 갖지 말고 서로를 축복해 주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수도권과 지방 또는 농어촌 어디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교사교육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는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동반성장을 해 왔다. 한국교회가 침체와 정체를 거듭할 때에도 그동안 뿌려놓았던 영적 씨앗들이 자람으로 인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여건과 환경면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커졌으며, 이제는 뿌려놓은 씨앗도 많지 않아 예전처럼 지속적으로 거두는 것도 힘들게 되었다. 때문에 본 연구자가 제시한 예수그리스도를 모델로 한 교사교육이 교회학교의 건강한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교회 내의 조직과 여건, 예산과 환경이 부족하여도 주저않지 말고,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 정체와 침체도 한 순간에 오지는 않았으며, 모든 교회들이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을 깨울리 한 것도 아니다.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보여 지는 징조가 있을 때 그 징조를 소홀히 여기거나, 설마하고 방치한 것이 원인이었다. 내가 섬기는 교회의 부흥만이 아닌,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목양한다면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건강한 토양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을 믿는다.

셋째, 교사는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은 사람을 키워내는 것 즉 제자를 삼는 것이었다. 마태복음 28 장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전 마지막 남기신 말씀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냈다. 남강 이승훈의 영향을 받은 김소월, 주기철, 함석헌, 이중섭, 한경직을 본다 하더라도 가르치는 교사 한 사람의 영향력은 실로 놀랍고 대단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⁰⁷⁾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

107) 김도일 외 12인, *참 스승 인물로 보는 한국 기독교교육 사상*(서울: 세물결플러스,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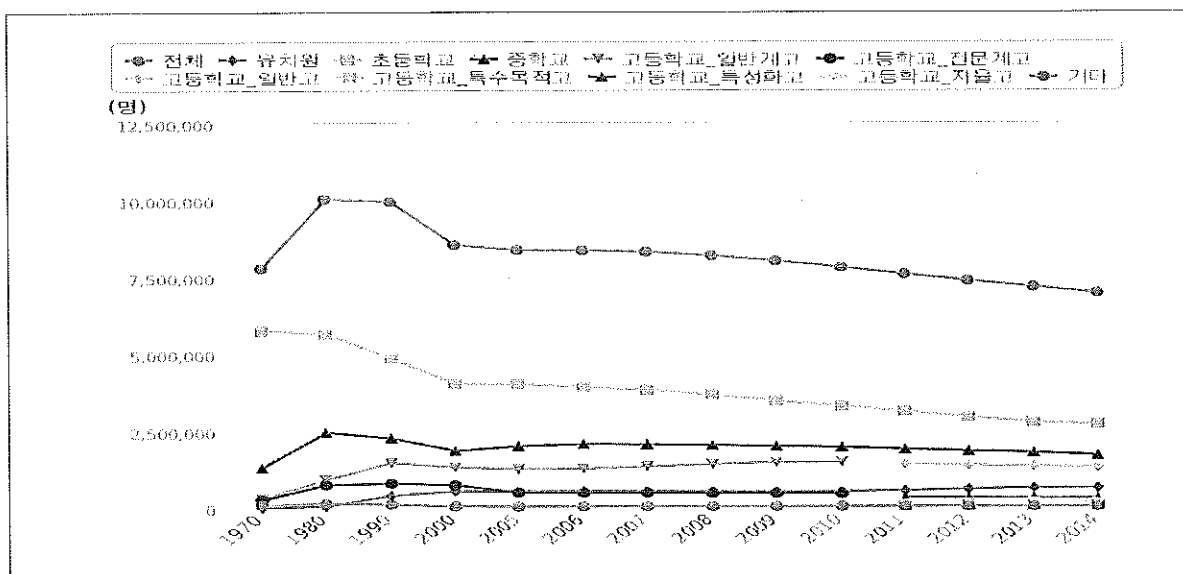
장하여 교회를 세우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곳곳에 흩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냈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멘토가 되어 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어야 한다. 지금 학생들의 모습은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그들의 먼 미래와 장래를 바라보며 축복하고 사랑하며 간절히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인재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그 분의 말씀과 삶으로 인해 일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교회의 규모가 크다고 인재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규모가 작다고 인재가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부족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교사가 학생들의 삶에 큰 울림과 영향력을 주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완벽한 교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지 않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주님이 걸어 가신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는 교사를 원한다. 이럴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찬양이 생각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그렇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럭 로리가 쓴 책 제목처럼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자. 사람들이 예측하고 대안을 아무리 내 놓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포조주가 떨어진 위기의 상황도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다.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에 처해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신 교사들이 눈물과 기도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버티고 있는 한, 주님께서 바로 그 교사들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교회학교의 역사를 써 내려 가시며, 그로인해 다음세대들은 제2의 부흥의 주역들로 성장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다니엘 12장 3절).

부록1

출생아수,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추이¹⁰⁸⁾ 및 연도별 유·초·중·고등학생 수 추이¹⁰⁹⁾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출생아수 (천 명)	635	614	635	555	492	491	473	435	448	493	466
증감 (천 명)	-34	-21	20	-80	-63	-2	-18	-38	13	45	-27
증감률 (%)	-5.0	-3.2	3.3	-12.5	-11.3	-0.3	-3.6	-8.0	3.0	10.0	-5.5
조출생률 (인구1천 명당 명)	13.6	13.0	13.3	11.6	10.2	10.2	9.8	8.9	9.2	10.0	9.4
합계출산율 (명)	1.45	1.41	1.47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108) 정재영, 한국교회,10년의 미래(서울: SFC, 2012), 35.

109)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chedi.re.kr/index>

부록2

우리나라 연령대별 인구수 추이, 1997-2006¹¹⁰⁾

연도	0-4세	증감률	5-9세	증감률	10-14세	증감률	15-19세	증감률
1997	3,524,075	-1.0	3,269,997	2.6	3,439,030	-5.9	4,031,766	2.0
1998	3,452,808	-2.0	3,367,330	3.0	3,271,379	-4.9	4,060,624	0.7
1999	3,349,173	-3.0	3,459,152	2.7	3,164,569	-3.3	3,999,155	-1.5
2000	3,259,783	-2.7	3,521,464	1.8	3,129,982	-1.1	3,842,432	-3.9
2001	3,161,001	-3.2	3,535,918	0.3	3,163,082	1.2	3,622,701	-5.9
2002	3,048,362	-4.5	3,500,255	-1.1	3,243,956	2.4	3,406,677	-5.9
2003	2,957,167	-5.0	3,422,250	-2.3	3,339,316	2.7	3,237,329	4.6
2004	2,716,762	-5.0	3,319,000	-2.8	3,410,172	2.4	3,157,487	-2.7
2005	2,544,812	-6.3	3,233,543	-2.6	3,462,832	1.5	3,136,467	-0.7
2006	2,390,212	-6.1	3,131,977	-3.1	3,474,011	0.3	3,141,841	0.2

110) 박상진, *교회교육현장론*, 365.

부록3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보고서, 영유아-중고등부 학생 수¹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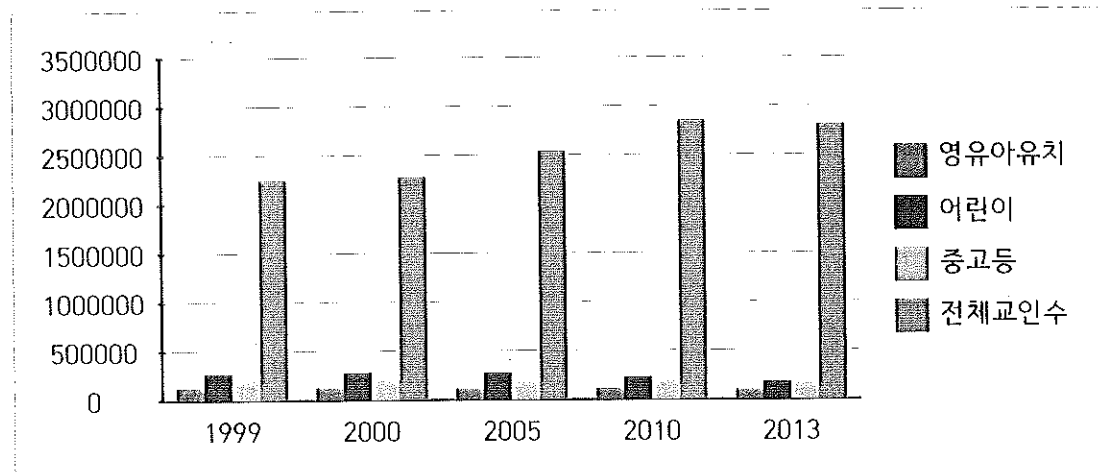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1999년	16,142	27,111	81,080	80,252	78,154	105,492	190,040
2000년	16,115	23,381	86,932	78,632	89,202	109,689	197,871
2001년	14,671	22,431	80,374	76,293	83,837	104,894	186,847
2002년	12,506	22,705	80,770	76,198	85,795	99,947	171,103
2003년	13,689	22,148	79,509	76,325	86,176	105,372	174,281
2004년	14,874	21,846	78,605	77,582	88,373	105,280	179,472
2005년	14,868	21,700	76,899	78,764	85,629	105,518	180,496
2006년	15,738	22,004	75,568	78,739	89,622	105,463	189,189
2007년	16,655	23,025	75,136	79,532	85,580	106,015	193,215
2008년	17,737	23,184	74,751	74,223	83,783	104,897	193,344
2009년	17,297	22,956	72,184	69,924	80,056	100,520	195,275
2010년	18,305	24,571	67,378	64,232	74,327	89,900	188,304
2011년	21,429	24,130	64,731	58,419	69,015	83,266	180,308
2012년	18,733	23,641	62,251	56,519	64,175	76,090	171,660
2013년	17,101	21,555	58,293	50,840	59,423	68,175	157,409

11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계위원회, 제84회 회의안 및 보고서(84회-99회까지 매년 총회에
서 보고되는 내용 중 통계위원회 교회학교 보고서를 참고하였음)

부록4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보고서, 학생 수 및 전체교인수 및 그래프¹¹²⁾

	영유아,유치	어린이	중,고등	전체교인수
1999년	124,333	263,898	190,040	2,245,326
2000년	126,428	277,523	197,871	2,283,107
2001년	117,476	265,024	186,847	2,328,413
2002년	115,981	261,940	171,103	2,329,002
2003년	115,346	267,873	174,281	2,395,323
2004년	115,325	271,235	179,472	2,489,717
2005년	113,467	269,911	180,496	2,539,431
2006년	113,310	273,824	189,189	2,648,852
2007년	114,816	271,127	193,215	2,686,812
2008년	115,672	262,903	193,344	2,699,419
2009년	112,437	250,500	195,275	2,802,576
2010년	110,254	228,459	188,304	2,852,311
2011년	110,290	210,700	180,308	2,852,125
2012년	104,625	196,784	171,660	2,810,531
2013년	96,949	178,438	157,409	2,808,912



11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계위원회, 제84회 회의안 및 보고서(84회-99회까지 매년 총회에 서 보고되는 내용 중 통계위원회 교회학교 보고서를 참고하였음)

부록5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보고서, 영유아-중고등부 교사 수¹¹³⁾ 및 합계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1999년	3,497	5,596	17,045	14,191	14,494	20,064	30,371
2000년	3,698	5,046	18,019	15,129	17,128	19,778	31,279
2001년	3,222	4,747	17,145	14,553	16,195	19,338	30,327
2002년	2,572	4,864	17,288	15,021	15,721	19,276	29,157
2003년	2,971	4,787	17,701	15,228	15,856	20,154	30,255
2004년	3,353	5,231	18,277	15,741	15,808	20,386	30,643
2005년	3,585	5,144	18,393	16,035	15,661	20,835	31,245
2006년	3,721	5,285	18,700	16,191	16,612	20,410	32,158
2007년	3,947	5,619	18,656	16,504	16,448	20,609	33,039
2008년	4,657	5,842	18,964	16,202	16,645	20,971	34,509
2009년	4,555	6,176	18,280	15,669	15,876	19,904	33,288
2010년	4,700	6,205	17,659	13,344	14,755	17,976	31,622
2011년	4,683	6,245	16,889	12,692	13,969	16,746	30,922
2012년	5,025	6,142	15,997	11,887	13,279	15,486	29,508
2013년	4,725	5,883	15,621	11,208	12,573	14,362	28,785

	영유아,유치	어린이	중,고등
1999년	26,138	48,749	30,371
2000년	26,763	52,035	31,279
2001년	25,114	50,086	30,327
2002년	24,724	50,018	29,157
2003년	25,459	51,238	30,255
2004년	26,861	51,935	30,643
2005년	27,122	52,531	31,245
2006년	27,706	53,213	32,158
2007년	28,222	53,561	33,039
2008년	29,463	53,818	34,509
2009년	29,011	51,449	33,288
2010년	28,564	46,075	31,622
2011년	27,817	43,407	30,922
2012년	27,344	40,652	29,508
2013년	26,229	38,143	28,785

11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계위원회, 제84회 회의안 및 보고서(84회-99회까지 매년 총회에
서 보고되는 내용 중 통계위원회 교회학교 보고서를 참고하였음)

부록6

초,중,고 학생 수의 감소 추이¹¹⁴⁾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4년
초등학생	5,749,301	5,658,002	4,868,520	4,019,991	3,299,094	2,828,509
중학생	1,318,808	2,471,997	2,275,751	1,860,539	1,974,798	1,717,911
고등학생	590,382(여)	1,696,792	2,283,806	2,071,468	1,962,356	1,839,372

교육통계서비스 학교기본통계, 2015.7.19.

114)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부록7

교사설문지

본 설문은 교회학교 부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들의 의식과 활동”을 살펴보고 참된교회 교회학교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목적으로 실시하오니 부디 잘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질문에 동그라미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남성(), 여성()
2.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3. 직분? 학생(), 청년(), 평신도(),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4. 섬기는 부서는? 영유아·유치부(), 유년·초등·소년부(), 중·고등부()
5. 교사로서 섬기는 일은? 담임교사(), 보조교사(), 기타()
6. 교사 경력은? 1-3년(),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7. 구원의 확신은? 있다(), 없다(), 모르겠다()
8. 교사를 하게 된 동기는?
사명감으로 자원해서(), 주위의 부탁을 받고(), 임명받았기 때문에(), 기
타()
9. 교사로서의 사명감은?
있다(), 처음에는 있었으나 식었다(), 없다(), 모르겠다()
10. 자신의 영성관리를 위해 경건생활(예배,기도,말씀)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기적으로(), 가끔씩(), 거의 안한다()
11. 공과준비는 언제 하십니까?(담임교사만 표시해 주세요)
토요일에 한다(), 평일에 한다(), 주일아침에 한다(), 안한다()
12. 공과공부 준비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담임교사만 체크해 주세요)
30분에서 1시간(), 1시간에서 2시간(), 30분이하(), 2시간이상()
13. 학생들을 위해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 매일 기도한다(), 때때로 기도한다(), 가끔 기도한다(), 안한다()
14. 주일 외에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은?(담임교사만 체크해 주세요)
 있다() 없다(), 가끔 있다()
15. 학생들을 어떻게 심방하십니까?(담임교사만 체크해 주세요)
 전화심방(), 대화나 상담(전자메일, 문자포함) (), 직접심방(),
 편지나 엽서()
16.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연구(), 학생과의 관계(), 가르침의 은사(), 교사의 성품()
 기타(기타의 내용을 써 주세요) ()
17. 학생들의 가정을 심방하거나, 부모님과 대화한 적이 있다?(담임교사만 체크해 주
 세요)
 있다(), 없다()
- (뒷면에 계속됩니다)
 (주관식)
18. 교사로서 가장 자부심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19. 교회학교가 어떻게 해야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 교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예 : 기도, 사명, 영성, 전
 도, 교육 등)

참고 문헌

1. 국내서적

- 고용수. *관계이론에 기초한 만남의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 고용수 외 6인. *기독교교육개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10.
- _____. *21세기 한국 교회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8.
- 김도일. *온전성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1.
- 김도일 외 6인. *기독교교육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곱주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9.
- _____. *참 스승 인물로 보는 한국 기독교교육 사상*. 서울: 새불결플리스, 2014.
- 김도일 책임편집. *미래시대·미래세대·미래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3.
- 김지현 외 3인. *부모교육*. 서울: 양서원, 2010.
- _____. *부모교육(개정판)*. 서울: 양서원, 2014.
- 김춘경 외 2인. *청소년 상담*. 서울: 학지사, 2006.
- 김희균. “초등교 학급당 학생 20명대로 줄어”. 동아일보, 2009년 1월7일자.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84회기-99회기)*. 한국장로교출판사.
- 박상진 외. *교사! 미션 트립*.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자원부, 2011.
- 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 _____. *교회교육현장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8.
-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IVP, 2005.
- 신현숙. *전교인 애매가 행복하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3.
- 양금희. *기독교 유아·아동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 양승헌. *크리스천 티칭*. 서울: 디모테, 2012.
- 오철훈. “목양교사 사역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5).

- 이영돈. *KBS 다큐멘터리 마음*. 서울: 예담, 2006.
- 이원규.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서울: kmc, 2010.
- 장신근. *공적신앙을 양육하는 교회와 가정교육*.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1.
- 진성수. *자녀교육혁명 하브루타*. 서울: 두란노, 2012.
- 정용섭. *현대 교육목회의 전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 정재영. *한국교회, 10년의 미래*. 서울: SFC, 2012.
- 최윤식, 최현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 표성환. “*교사교육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 분석리포트*. 서울: URD, 2014.
- 한국기독교부모교육연구회. *성경적 자녀양육*. 서울: 양서원, 2005.
- 황병준. *미래교회 트렌드*. 서울: 올리브나무, 2014.
- 황성철. *주님 어떻게 목회할까요?*.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2. 번역서적

- Berk, Laura E. *생애발달 I*. 이옥경 외 6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2.
- Bushnell, Horace. *기독교적 양육*. 김도일 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 Capps, Donald E. *인간발달과 목회적 돌봄*. 문희경 역. 서울: 이레서원, 2002.
- Gloor, Peter A. and Cooper, Scott M. *쿨헌팅, 트렌드를 읽는 기술*. 안진환 역. 서울: 비즈니스맵, 2008.
- Groome, Thomas H.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Harris Maria, *회중 형성과 변형을 위한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Hendricks, Howard G.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정명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1.
- Willhoit, James C. Dettoni, John M. *발달주의적 시각으로 본 기독교적 양육*. 서울: 큐란출판사, 2005.
- Joiner, Reggie. *싱크 오렌지*. 김희수 역. 서울: 디모데, 2011.
- Krych, Margaret A.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교육*. 이규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Melchert, Charles F. *지해를 위한 교육*. 송남순·김도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Pazmino, Robert W. *권위 있는 가르침*. 김도일·김정훈 역. 서울: 디모데, 2002.

Seymour, Jack L.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교육학*. 오성주 역. 서울: 신앙과지성사,

2015.

Wise, Carroll A. *영혼을 돌보는 목자*. 이기승 역. 서울: 세복, 1998.

Witmer, Timothy Z. *목자 리더십*. 임정철 역.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4.

3. 외국서적

Brown, David M. *Transformational Preaching*. USA: Virtualbook.com, 2003.

Nelson, C. Ellis. *Where Faith Begins*. Knox Press, 1967.

White, James W. *Intergenerationl Religious Education*. 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8.

Tye, Karen B. *Christian Education in Small Membership Church*. Nashville: Abingdon Press, 2008.

Vita of
Duck Young Kim

Present Position:

Associate Pastor of ChamDoen Presbyterian Church, Bucheon.

Personal Data:

Birthdate: Jan 04, 1970
 Marital Status: Married to Sinyoung Lee
 with 2 children, Yuhyang, Sunmok
 Home Address: 35 Jungdong-ro 49 beon-gil, Sosa-gu,
 Buche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zip code: 422-816)
 Denominatio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Tonghap)
 Ordained: May 6, 2008

Education:

Th. B.: Seoul Jangsin University, Gyeonggi-do
 Gwangju, 2002
 M. Div.: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6
 Th. M.: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8
 MAC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14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5

Personal Experience:

3/2014 to present: Associate Pastor
 of ChamDoen Presbyterian Church, Bucheon
 1/2011 to 2/2014: Associate Pastor
 of Moohak Presbyterian Church, Seoul

1/2004 to 12/2010 Associate Pastor
of Somang Presbyterian Church, Seoul